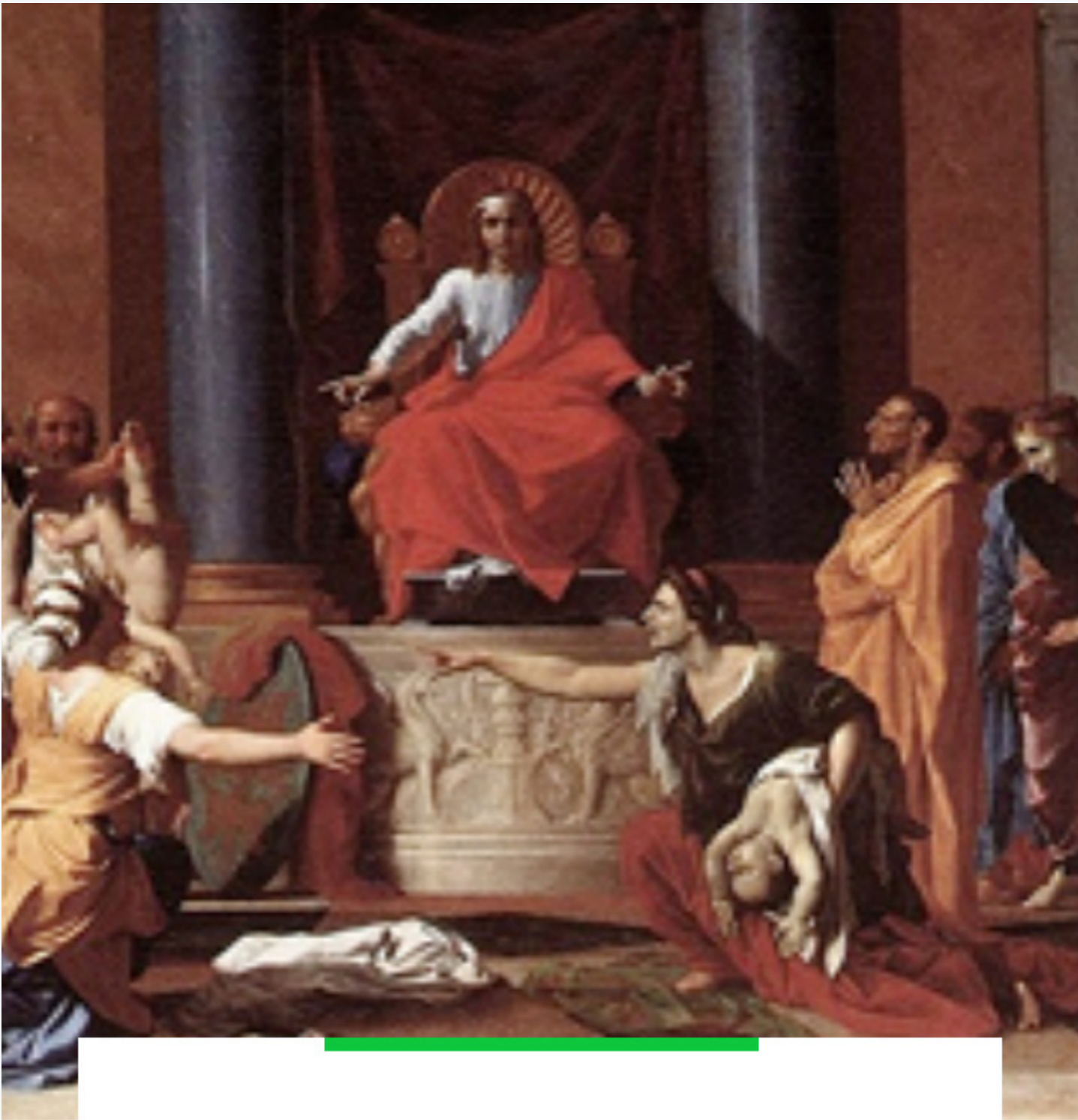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잠언서

David Spriritual Commentary

잠언서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석으

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데이빗리 목사

잠언서 1장 =====

[잠 1: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 1:2]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 1:3]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 1:4]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 1:5] 지혜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 1:6] 잠언과 비유와 지혜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잠 1:2]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지혜' <호크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wisdom'을 뜻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는 구별됩니다. 지식은 학문적으로 습득된 사실과 정보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인식됩니다. 반면 지혜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이는 삶의 선택에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합니다.

'명철' <비나>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도덕적 선택에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를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될 것이며, 의롭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 1:3] 지혜롭게, 의롭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이러한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만들 것입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을 공급하며, 저들로 하여금 근신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잠 1:4]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 <페티>는 ‘마음이 열린 자’라는 뜻으로, 무비판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삶에서의 신중함과 분별력을 결여하게 만들죠.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경계해야 하며, 모든 상황

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신’ <메짐마>이라는 말은 ‘신중함’, ‘용의주도함’을 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경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도 신중함 없이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에서 경솔함을 피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학식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잠언서가 필요합니다. 잠언서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더욱 학식이 더해지게 하며, 명철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얻게 합니다.

“[잠 1:5] 지혜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모락'은 원어 <타흐블라>에서 유래된 말로, '줄을 당기다', '조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며,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잠언서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삶을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삶을 똑바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잠언서의 교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신중함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성경의 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니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기초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잠언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보고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욱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며, 그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서는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구절을 통해 우리가 매일 더 지혜롭게,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하다' <이르아>는 말은 '공포',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게 해 주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욥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요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며,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사역됩니다. 이 두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고전 12:8]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인식하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세상에 국한되며, 주로 눈과 귀를 통해 쌓이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

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계시로 전해 들을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깊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담고 있는 그릇의 용량만큼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순간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욱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배워야만 얻어지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히 배우지 않아도 충만하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을 공급하실 때, 우리는 누구보다 풍성한 지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 10: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마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 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와는 관계없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에 어린 사람에 비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와 무관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요셉은 애굽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어린 예수는 뛰어난 성경학자들과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 깊은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험과 마음의 성숙에 의해 채워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반대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하며, 경험을 없애야 합니다. 종종 인생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혼적인 영역이 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차기 위해서는 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모든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없애야 합니다. 완전히 비워낼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풍성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며, 진정한 평안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

다 경건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욱 좋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세상을 바로 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위의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잠 1:8]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 1:9]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잠언서의 첫 교훈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부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공경하다” <카바드>라는 단어는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짐이 되다’, ‘무겁다’, ‘힘겹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일이 무겁고 힘든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때때로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기쁘거나 즐겁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키듯이 부모에 대한 공경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고 생활 지침을 주는 역할을 맡았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훈계를 가르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훈계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훈계를 가르치지 않거나, 자녀가 그 훈계를 따르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훈계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십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의 훈계를 듣기 싫어하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부모도

문제이지만 훈계대로 생활하지 않는 자녀도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녀도 문제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훈계와 법대로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평화롭고 만사가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잠 1:8] 내 아들이야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훌륭한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잘 듣습니다. 부모의 훈계대로 생활합니다. 이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훈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훈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훈계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훈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훌륭한 자녀는 그런 못되먹은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행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자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부모 밑에서 낳

아지고 길러지는 자녀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되먹은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잠언서에서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따르는 자녀는 그 결과로 아름다운 관을 쓰고, 금사슬을 목에 거는 것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은 명예로운 지위와 사회적인 성공을 의미하며, "금사슬"은 권세와 부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배

우는 것은 세상적인 출세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명예입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축복을 사치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은 그 자체로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는 그 훈계를 잘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욱 평화롭고, 가정에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식입니다.

[잠 1:10] 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꺾지라도 좇지 말라

[잠 1:11]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
자 우리가 가만히 었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
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잠 1:12]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
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잠 1:13]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
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잠 1:14]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잠 1:15]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
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잠 1:16]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
는데 빠름이니라

[잠 1:17]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
거늘

[잠 1:18] 그들의 가만히 었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잠 1:19]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
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잠언서는 악한 자를 좇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

니다.

“[잠 1:10] 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꺾지라도
쫓지 말라”

이는 우리가 악한 자를 쫓을 때 우리가 악한 자
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면 저절
로 우리도 악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는 악한 자를 말할 때 가만히 엎드려 사람
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물
을 쳐 놓고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자들입니다. 덫
을 놓아 짐승을 잡듯이 그렇게 사람을 잡는 사람
들입니다. 우연히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
니라 일부러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
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일을 꾸미는 사람들
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악한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당신도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누군가를 사로잡기 위해 덫을 놓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악한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친구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물을 쳐 놓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악한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살피야 합니다. 당신의 직장을 살피야 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살피야 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살피야 합니다. 절대로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함께하면 당신도 악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잠 1:19]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혹 당신은 누군가의 피를 흘리기 위해 뭔가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 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

은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피를 흘리기 전에 먼저 당신이 피 흘려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전에 당신의 것이 먼저 빼앗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기 전에 당신이 먼저 넘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혹 누군가 당신의 피를 흘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 사람이 당신을 찔렀습니까?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시냇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십시오. 원수를 갚고 죽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을지라도 저 세상에서는 살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잖습니까? 당신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당신을 용서하셨는데 당신도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은 까닭없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넘어지도록 덫을 놓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결코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자는 악한 짓을 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악한 자의 모습인지 살펴보십시오. 남의 피를 흘리려 하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당신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남이 걸려 넘어지길 바라는 당신의 추한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악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신은 악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스스로 악한 줄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심종을 살피고, 주변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더함으로써, 우리는 악한 자와의 관계를 끊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우리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잠 1: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잠 1:21] 환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잠 1: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잠 1:23]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 1:24]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 하
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잠 1:25]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
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잠 1: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
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
리라

[잠 1: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
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거만한 자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어리석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거만하다면, 당신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미련하다면, 당신은 지혜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잠언은 지혜롭지 않은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잠 1: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길에서 피해야 할 장애물로,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보다,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페티>은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 부지중에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부지 중에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속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하고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겔 45:20] 그 달 칠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부지중에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거만하다' <루츠>는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거

만한 자는 교만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남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에서 자신을 옳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남의 비판을 꺼려한다면, 당신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경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멸의 태도는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미련한 자’ <케실>는 ‘바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른 방법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이 땅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며, 오직 세상에만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 17:24]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여러 가지 사건에 마음을 두지만,

정작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이들은 중요한 문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지 못하고, 마치 흐릿하게 구부러진 렌즈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잃고, 목적 없이 헤매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면, 결국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움은 광풍처럼 휘몰아칠 것이고, 재앙은 폭풍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는 지혜가 결여된 삶의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선택에서 지혜를 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자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혜로운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잠 1: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
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 말씀은 모든 영혼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
리입니다. 두려움과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자
신의 선택과 태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혜롭
지 못한 길을 선택한 결과가 드리워지는 그 순
간, 우리는 깊은 후회와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를 통해 우리는 변화의 기회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리석음이나 거만
함, 미련함을 피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 맑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지혜는 단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
다. 그것은 삶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관
계에서 겸손과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입
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귀 기울이고,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 안에서 지혜로운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지혜의 빛을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 1: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잠 1:29]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잠 1: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잠 1:31]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잠 1:32]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잠 1:33] 오직 나를 듣는 자는安然히 살며 재앙
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는 그 음성을 통해 더욱 지혜롭게 변화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세상의 학문을 많이 쌓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깊고 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하기 때

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신 깊은 진리와 가르침을 놓치고 맙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安然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며,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잠 1:33] 오직 나를 듣는 자는安然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진정한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안정 속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

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는 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2장 =====

[잠 2: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잠 2: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
철에 두며

[잠 2: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잠 2: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
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잠 2: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게 되
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 2: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

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구분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치 이론이 아닌 실전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전이 아닌 이론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들을 때 뭔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

알다<아다>에서 유래된 <디아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식'이나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경외함과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경외함은 많이 다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의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경외함은 경배심이 묻어 있는 두려움입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왕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는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자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당신이 느

끼는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으며 지식보다는 훨씬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몇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을 받는 것입니다.

“[잠 2: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받다’<라카흐>라는 말은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취하다’란 뜻 외에 ‘손에 넣다’, ‘붙잡다’, ‘아내로 삼다’, ‘움켜쥔다’, ‘구입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통계에 따

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 주에 들었던 주일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거의 절반 되는 사람들이 그날 들었던 설교의 제목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돈으로 물건을 구입하듯이 취해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듯이 그렇게 간절히 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취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저들의 자녀들에게 열

심히 가르쳤으며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취했습니다.

“[신 6: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4대 구절들을 양피지에 그대로 베껴서 그것을 경문갑(經文匣, Phylactery)이라고 하는 성구함에 담아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는 경문의 풍습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신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

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
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
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
실 때에”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
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6: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
들을 좇지 말라 [신 6: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
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 6:16] 너희

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 6: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신 6:18]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 6:19]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 6: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물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 13: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출 13:4]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 13: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

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출 13:6]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칠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 13:7]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출 13: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출 13: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출 13: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출 13: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출 13:12]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출 13: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출 13:14]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이뇨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출 13:15] 그 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시고로 태에서 처음 난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출 13:16]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잠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잠 2: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간직하다' <차판>라는 말은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놓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소중히 간직하듯이 그렇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귀한 물건을 정성껏 간직하듯이 그렇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간직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간직하였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하다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오경의 구절들 중에서 613개의 계명을 정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세 번째는 귀를 지혜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잠 2: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지혜(<호크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wisdom'을 뜻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학문적인 것이며 눈과 귀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정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네 번째는 마음을 명철에 두는 것입니다.

“[잠 2:2]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명철'<테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철'<비나>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두 단어의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명철'<테분>은 '명철'이라는 뜻보다는 '총명함'입니다. '명철'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명철이 모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방법은 '지식'입니다.

“[잠 2:3] 지식을 불러 구하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지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철'<비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철이라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철'<테분>과 '지식'<비나>의 뜻은 모두 같습니다. 두 단어가 모두 <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단어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래에 언급되고 있는 '명철'은 모두 <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욥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명철'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님을 알 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악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외함은 두려움에 그치지 않고, 존경과 사랑이 담긴 감정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스며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 2:6] 대저 여호와께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 2: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 2:8]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잠 2:9]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
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은 공의와 공평, 정직을 가리켜 '선한 길'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잠 2:9]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
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공의와 공평, 정직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는 의로
운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는 절대로 편파적
이지 않으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배
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
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대하시며, 그 사
랑과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정직은 깨끗함과

투명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정직함은 그분의 거룩함에서 비롯되며, 이는 그가 언제나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따라서 공의롭고 공평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길이며,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도 그로 인해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숙과 성장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 2: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잠언은 지혜와 지식, 근신과 명철이 우리를 보호하고 악한 자와 패역한 자에게서 건져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지혜를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과 연관을 시켰고, 지식을 설명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잠 2: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고, 지식이 우리의 영혼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혜가 우리의 영혼과도 연관이 있고,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지식은 우리의 영혼과 더욱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레브>은 우리의 혼의 영역을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 풍성히 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며 의지가 솟아납니다. 마치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호수와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호수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호수이지만 '영혼'<네페쉬>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호수와도 같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호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호수를 찾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호수를 찾지 못합니다. 수영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들은 호수를 싫어합니다. 호수 근처에도 가기를 꺼려합니다. 이런 사람은 야만인입니다. 물을 싫어해서 야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건과 사물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점점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야만인은 인식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볼 뿐이고 느껴지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짐승과도 같습니다. 짐승은 뗏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뗏에 걸리고 맵니다. 사람도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숨겨놓은 뗏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뗏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인식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각으로도 뗏은 볼 수 없습니다. 시

력이 멀었다고 해서 뗏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설치해 놓은 뗏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짐승은 대체적으로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짐승이기 때문이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겉모습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합니다. 십자가를 보고서 눈물이 없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의지도 없습니다. 짐승은 포기를 잘 합니다. 어느 정도는 힘껏 일하지만 한계점에 이르러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포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더욱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포기를 던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혹 당신은 지금 뭔가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에게 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호수를 찾은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호수를 찾게 됩니다.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 2: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이렇게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호수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소 느낌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으며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인식할 수 있으며 감정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호수는 이러한 느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간해선 느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1+1=2$ 라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은 비우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채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비워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호수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수에 잠겨야만 비로소 진정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주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호수에 거하는 자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혼이 즐거운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영혼'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는 '네페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네페쉬'라는 단어는 '르아흐'라는 단어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습니다. '르아흐'가 '하나님의 영'(Spirit of God)이라고 한다면 '네페쉬'는 인간의 영(Spirit of Man)과 하나님의 영(Spirit of God)이 혼합되어 있는 '영'(Spirit)입니다. 따라서 '네페쉬'는 가끔씩 인간의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영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마음과 영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영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르아흐'라면 인간의 영은 '네페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인간의 영을 만드셨습니다. '생령'이라는 단어가 바로 '네페쉬'입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며,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 그 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의 호수를 찾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잠 2: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잠 2: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잠 2:13]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잠 2:14]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니

[잠 2:15]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잠 2:16]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잠 2:17]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잠 2:18]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잠 2:19]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잠 2:20]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 2:21]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잠 2:22]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궤홀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은 '근신'이 우리를 지키며 '명철'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 2: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근신'<메짐마>이라는 말은 '신중함', '용의 주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할 수 있으며, 매사

에 용의 주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학식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근신케 할 것입니다.

또한 명철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명철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은 '명철' <비나>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악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철함이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로부터 멀어집니다. 깨끗한 사람은 악한 사람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깨끗한 사람은 누군가 조금만 악한 사람이 근처에 다가와도 금방 그 사람의 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사람들은 도무지 악한 사람과 함께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악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정결과 거룩함에 있어서의 거리감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악한 자를 멀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냄새가 역겹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근신함과 명철함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악을 피함으로서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혜<호크마>

'지혜'<호크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wisdom'을 뜻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학문적인 것이며 눈과 귀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정리되는 것입니다. '명철'<비나>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식<디아트>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데 욕기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욥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모두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12:8]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지

식'과는 다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세상에 국한된 지식이며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정보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 주로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주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직접적인 계시로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훨씬 지식이 많아집니다. 세상 지식은 내 머리에 담겨져 있는 용량만큼 전달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없는 지식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이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속에 없는 지식이지만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세상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배워야만 채워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을 공급하실 때에 그 누구보다 더욱 충만한 지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 10: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마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명철<비나>

명철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래에 언급되고 있는 '명철'은 모두 <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명철'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

서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악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근신<메짐마>

'근신'<메짐마>이라는 말은 '신중함', '용의 주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솔히 행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신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제법 먹어 이미 어른이 된 사람 중에서도 신중함이나 숙고함이 없이 경솔히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서 3 장 =====

[잠 3: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 3:2]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장수의 복이 임하고 평강의 날을 보내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법' <토라>은 율법을 뜻하며, 이는 '계명, 법도, 규례, 율례' 등을 통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게는 '계명, 법도, 규례, 율례'를 총칭하지만, 넓게는 성경 전체 말씀을 의미합니다. '명령' <미츠와>은 '계명'의 또 다른 말입니다. <미츠와>는 도덕법 (Moral Law)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법입니다. 이러한 도덕법은 '십계명'(The Ten Commandments)에서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1-2은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장수의 복을 받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다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중에는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법)과 계명(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과 계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과의 맺은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맺은 약속을 잊고 지키지 못할 때 피해

를 보겠지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잊고 지키지 못할 때에 그 피해는 참으로 큼니다.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6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잊는 것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혹 당신의 주변 사람이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물론 당신 스스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잠 3:3]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잠 3: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은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잠언 3:3)라고 권고합니다. '인자'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인자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향해 친절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죠.

그런데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책망', '비난', '수치', '치욕'이 <헤세드>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실 때에 사람의 책망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로우신 분이 되기 위해 먼저 세상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에 먼저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애심을 베푸셨을 때에 먼저 세상의 치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53:3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고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우리도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친절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책망과 비난과 수치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애심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치욕을 먼저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고서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고서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의 치욕을 당하지 않고서 자애심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만을 얻으려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리' <에메트>는 '신실성', '성실성', '충실함',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충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하시죠. 그런 신실함과 충실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충실함이 있어

야 하며 확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신실한 사람을 소개하고, 성실한 사람을 칭찬하며, 충실한 사람은 위대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85:10은 "공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라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속성이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자' <헤세드>와 '진리' <에메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3:4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인자'와 '진리'를 묶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인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 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뢰하다' <바타흐>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에 '안심'이 생기고 '안전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타흐>라는 말에는 '안심', '안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4:8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심을 노래합니다.

'명철' <비나>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명철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3:5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확히 권면합니다. 인간의 명철은 유한하며 불완전하기에, 그것

만을 의지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다' <아다>는 '알다',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6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지도하다' <아샤르>는 '평탄하게 하다', '똑바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똑바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길이 편안해진다는 의미를 넘어,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삶의 굴곡을 다듬어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42:16은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곳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제한된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며,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 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 3: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날 때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일체의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잠언 8:13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며, 경외함이 죄악과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8은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몸' <쇼르>은 '배꼽'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두 차례 언급될 정도로 흔치 않은 단어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굳이 우리의 몸을 언급할 때 '배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꼽'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배꼽이 없으면 어머니와 자녀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태아가 탯줄을 통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탯줄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는 삶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잠언 3:8)의 '양약' <리푸으트>이라는 말은 '고침', '치유'를 뜻합니다. 단순히 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이 영적인 탯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1:9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잠언 3:8)의 '골수' <에츨>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체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뼈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뼈에는 골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수가 '윤택하게' <식쿠이> 된다는 말입니다. <식쿠이>는 '마실 것', '음료'를 뜻하며, 이는 물처럼 흐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골수가 마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천에 물이 마르듯이 그렇게 말라버리는 것이죠. 물이 마르는 것은 곧 물

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에 우리의 골수가 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강건하게 변화됩니다. 마치 태아가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기운을 전해 받듯이, 우리 역시 탯줄을 통해 하나님의 기운을 전해 받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통해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잠 3: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 3: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은 우리가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창고가 가득하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임을 약속합니다. 잠언

3:9-10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다' <카바드>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라는 뜻과 함께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 무겁고 힘이 들며, 때로는 헌금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헌금만 하지 않으면 그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도 있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헌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물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지만, 그냥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을 요구하실 때 그에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말라기 3:10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독특한 제안까지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와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길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영적인 풍요로움과 더불어 실제적인 필요까지 채워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순환의 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귀의 표현입니까?

[잠 3:11] 내 아들이 여호와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 3: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철이 덜 든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와 징계를 귀찮아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철이 든 자녀는 오히려 아버지의 징계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와 꾸지람 앞에 서는 태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못난 자녀는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고 피하지만, 철든 자녀는 하나님의 훈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나쳐버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보다도 더 먼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훈계도 그저 스쳐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맺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단지 '존재'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흐릿하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분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심령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희미한 사람은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반드시 실천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를 누구보다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 사람이라 해도, 순종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마음을 찌를수록, 우리는 더욱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꾸지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잠 3:13]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 3:14]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 3:15]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 3:16]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잠 3:17]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잠 3:18]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 3:19]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잠 3:20]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잠 3:21]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잠 3:22]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잠 3:23]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잠 3:24]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잠 3:25]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잠언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 그리고 ‘근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네 가지를 소유한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학식이나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지식입니다. 곧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얼마든지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뜻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라”

“[욥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명철’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복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명철은 죄에서 떠나는 삶,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더러운 것을 분별하기 쉽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영적 분별력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한 ‘근신’은 신중함과 절제, 용의주도함을 말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종종 경솔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이는 경험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신중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근신함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근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근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 명철과 근신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이 네 가지를 소중히 여기고 삶의 원리로 삼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분별력,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 3:26] 대저 여호와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잠 3:2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 3:28]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
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 3:29] 네 이웃이 네 곁에서安然히 살거든 그
를 모해하지 말며

[잠 3:30]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
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아끼지 말고 최선을
을 다해 행하길 원하십니다.

“[잠 3:2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
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거나 최선을 다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을 베푼다는 것은 결코 미루거나 거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잠언은 “...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잠 3:28]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일 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미루는 행위이며, 거절하는 행위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이와 같이 미루거나 거절하거나 소극적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도 응답을 미루실 것입니다. 거절하실 것이며, 소극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라 명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

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구제를 열심히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선의 대부분은 '구제'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구제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선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제만이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선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전화로의 위로, 직접 찾아가서의 격려 모두 소중한 선행입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당신을 구제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잠 11: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 3:31]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잠 3:32]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잠 3:33]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 3:34]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 3:35]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패역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 3:32]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와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패역하다’<루즈>는 ‘떠나다’, ‘비뚤어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며 그 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미워함’<토에바>은 ‘혐오스러운 것’이나 ‘가증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는데, 그들을 혐오할 만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패역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혐오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교통하십니다.

“[잠 3:32]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

으며”

‘정직한’<아샤르>의 뜻은 ‘곧은’, ‘올바름’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곧은 사람으로, 세상의 것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교통’<소드>은 ‘의논’, ‘협의’, ‘조언’을 뜻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조언을 주시며, 어떤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며, 세상의 유혹과 패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잠언서 4 장 =====

[잠 4:1]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 4:2]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잠 4:3]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잠 4:4]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잠 1:8]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

“[잠 4:2]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고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강한 가르침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훈계를 해야 합니다. '훈계' <무사르>는 '훈계'라는 의미와 함께 '징계',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훈계하고, 징계하며, 교훈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또 다른 후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대간의 가르침을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그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법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유약하고 나약한 자였는지를 고백합니다.

“[잠 3:3] 여호와여,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약한 자, 내 어머니 보기에 외아들이었던 나이다.”

하지만 잠언을 쓰고 있는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지혜자 중의 지혜자이자, 권력자 중의 권력자였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가리켜 유약한 자라고 말한 것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기 이전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받기 전에는 유약한 자였지만, 그 가르침을 통해 장성하여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비의 훈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훈계를 가르쳐야 하며, 이는 세상의 훈계가 아닌 하나님의 훈계로 우리 자녀를 강건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

는 것이 부모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 4: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잠 4:6]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 4: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 4:8]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 4:9]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지혜자 중의 지혜자였기 때문에 지혜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를 강조했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강조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렇게 열심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는 "[잠 4: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혜를 얻을 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 4:6]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또한, 지혜를 높일 때 지혜가 우리를 높여줄 것이라고 솔로몬은 언급합니다.

"[잠 4:8]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지혜를 영화롭게 한다면, 지혜는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 4:9]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지혜로 세상을 취하였고, 지혜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그의 삶이 지혜를 잃고 비참해지긴 했으나, 그 이전까지의 그의 지혜는 그를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으뜸되게 만들고, 높여줄 것이며,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지혜자 중의 지혜자였으나, 말년에는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였지만, 그보다 더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그의 잘못된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지혜는 그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했고, 결국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당신을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뛰어난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 훈계는 그에게 지혜를 줬고, 그 지혜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은 후,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줄 사람이 없어졌고, 결국 그는 세상의 지혜만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스승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도 전해주었겠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아버지 다윗의 훈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아버지

의 훈계가 세상 스승의 훈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 4:10] 내 아들이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잠 4:11]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잠 4:12]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잠 4:13]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잠 4:14]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잠 4:15]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잠 4:16]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잠 4:17]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
이니라

[잠 4:18]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
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 4:19]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
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 4:20]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
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잠 4: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잠 4:22]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참된 지
혜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
다. 많은 이들이 잠언을 단지 인생의 조언 모음
쯤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인간 솔로몬의 손을 빌려 쓰였
을지라도,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
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 사람의 길을 밝히는 진리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을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잠언 또한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든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사람의 말처럼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받아야 합니다.

잠언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잠 4:13]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여기서 ‘훈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무사르>입니다. 이 말은 단지 조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징계, 그리고 삶을 바로잡는 교훈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훈계하십니다. 이 훈계를 받는 태도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말

숨을 귀히 여기고 지킬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지식은 넓혀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혼과 영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훈계가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냅니다.

잠언은 이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키려 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며, 인간관계와 명예를 지키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히브리어 <레브>로 쓰인 이 ‘마음’은 단지 감정의 중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고(생각), 감정(느낌), 의지(결단)의 중심이며, 혼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중심부인 셈입니다.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영이 가려지고, 마음이 닫히면 생명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문밖에서 기다리시며,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은 들어오셔서 단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길 원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깊은 교제와 친밀한 동행의 상징입니다. 하나

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은 영적인 만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세상의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더 달고 기쁜 시간이 됩니다. 닭다리를 뜯고 소다를 마시는 식사가 주는 만족이 잠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음료를 마시는 영의 식사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식탁에 앉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드리시지만,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열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결단과 사모함,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어떤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를 멀리하며, 훈계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도, 그들의 영혼은 굶주려 있습니다.

육신은 풍요로워도, 영은 배쩍 말라비틀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영이 강건합니다.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의 교제로 충만하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훈계를 붙잡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자기반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늠하는 거룩한 성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읽고 흘려보내는 정보가 아니라, 붙잡아야 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심히 두어도 되는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 지켜야 할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은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앉아 식사하시고, 생명의 교

제를 나누시며,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식탁에야말로 참된 기쁨과 회복, 그리고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진정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잠 4:24] 궤핍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잠 4:25]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 [잠 4:26]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잠 4:27]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은 “[잠 4:24] 궤핍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궤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익케슈트>이며, 이는 ‘비뚤어짐’, ‘부정직함’, ‘사악함’을 뜻합니다. ‘사곡’이라는 단어는 <레주트>로, ‘탈선’, ‘부정직’, ‘비뚤어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 삶 전체가 정직과 진

리 위에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부정하고 부정직한 말을 입에 담아서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 험담과 비난, 사악하고 교활한 언어는 영혼을 썩게 하며, 우리를 점점 어두운 길로 이끕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생각, 부정직한 의도, 사악한 동기를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약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 에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입술은 우리의 성숙과 경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입술의 정결함은 생각의 정결함에서 비롯되며, 생각의 정결함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새로
워질 때, 우리는 점점 악에서 멀어지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
다.

“[잠 4:27]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중심을 지
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곧게 하며,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려면 먼저 생각을 바로잡고, 마
음을 지키고,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며, 지혜의 길입니다.

잠언서 5 장 =====

[잠 5:1] 내 아들이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
에 네 귀를 기울여서

[잠 5:2]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
도록 하라

[잠 5:3]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잠 5:4] 나중은 쏙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잠 5:5]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
부로 나아가나니

[잠 5:6]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
니라

[잠 5:7] 그런즉 아들들이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잠 5:8]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
도 가까이 가지 말라

[잠 5:9]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
라

[잠 5:10]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
노라

[잠 5:11]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패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잠 5:12]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
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잠 5:13]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
던고

[잠 5:14]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잠언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음녀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경계선
을 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음
녀의 입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 5:3]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겉으로는 달콤합니다. 그녀의 말은 마음을 녹이고, 입술은 기름처럼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부드러운 말과 매혹적인 눈빛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꿀 같은 말은 곧 날이 선 칼날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영혼을 훼손하며 결국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음녀의 유혹은 시작은 부드럽지만, 끝은 고통과 후회뿐입니다.

누구든지 음녀와 함께하는 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유혹은 단순한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전 인생을 붕괴시키는 파괴력 있는 유혹입니다. 그녀로 인해 재산이 새어나가고, 건강은 병들며, 배우자는 상처를 입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잃은 모습을 보며 슬퍼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그 미래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 5:10]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재산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흘린 땀의 열매는 전혀 상관없는 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음녀로 인해 몸이 쇠하고 육체가 병들어, 늦은 후회와 탄식 속에 자책하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녀와 동행한 자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분명하고 무서운 결말을 알면서도 음녀에게 빠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의 소리에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음녀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잊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과 욕망은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자는 음녀의 향기를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그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각은 그녀를 더럽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녀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음녀를 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음녀를 멀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훈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훈계에 순종하며 걷는 삶이야말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 5:8]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명령입니다. "멀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멀리해야 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단어 하나하나를 목숨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녀의 유혹 앞에서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음녀의 길은 멸망과 파멸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훈계의 길은 거룩과 생명, 그리고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조심하고, 멀리하십시오. 그곳에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잠 5:15]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잠 5:16]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잠 5:17]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 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잠 5:18]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잠 5:19]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 5:20] 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 5:21]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잠 5:22]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 5:23]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여인을 취할 것을 명하십니다. 다른 여인을 겸하여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언약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 5:15]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말씀은 단순한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곧 한 남자가 한 여인과만 언약을 맺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

령입니다. 더 많은 것을 탐하려는 욕심은 결국 자신이 누리던 샘마저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 5:18]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다른 여인이 아닌, 젊어서 사랑으로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아내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는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인이기에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맡기신 사람이기에, 그녀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눈이 흐려졌기 때문이며, 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은 언제나 아

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아내를 후회하고, 귀찮다 여기며, 멀리합니다. 마치 물건을 바꾸듯, 여인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물건이 아닙니다. 교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언약을 맺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생명의 동반자입니다. 내가 고른 여인이라면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인이라면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사랑스럽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외면하고, 함께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결국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행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악해졌고, 눈이 음란해졌으며, 생각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 5:22]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우리는 지금 죄의 줄에 매여 끌려 다니고 있는 개와도 같습니다. 내 발로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음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이끌려 끌려다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줄을 끊지 않으면, 결국 파멸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훈계 앞에 서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잠 5:23]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관계가 죽고, 가정이 죽고, 마음이 죽고, 결국 믿

음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다른 여인을 쳐다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만을 즐거워하라.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녀와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을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오. 단둘이 어색한 공간에 머물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함께 하십시오. 그 사람과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걸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거룩한 길입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절대 "사랑스럽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며, 창조주 앞에서 교만해지는 길입니다.

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
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도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
실 것입니다.

잠언서 6 장 =====

[잠 6:1]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잠 6:2]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 6:3] 내 아들이야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잠 6:4]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잠 6:5]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보증은 단순한 재정적 책임이나 우정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전체를 걸고 책임지는 행위이며, 때로는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는 위험한 결속입니다. 성경은 보증 서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 6:3] 내 아들이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여기서 '빠지다'는 <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단순히 실수로 빠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들어가다', '귀속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곧 어떤 사람의 지배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인이 주인의 품에 귀속될 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귀속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속하게 되는 일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위험과 책임까지 대신 짊어지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귀속물이 되기 이전에 주님의 귀속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묶인 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주님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처음에는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증하다'는 <타카>는 '손

바닥을 치다, 혹은 ‘나팔을 불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이스라엘에서 보증이 성립될 때 서로 손을 맞잡고 손바닥을 치며 약속하던 관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의 ‘하이파이브’처럼, 의기투합의 표시로 손을 마주 치며 서로의 신뢰와 결속을 표현합니다. 친구를 돕는 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일은 감정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며 마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양, 감정의 고양을 느끼며 보증을 셉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증은 곧 무서운 현실과 맞닿아 있는 책임의 사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 6:2]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보증을 선 자는 자신의 말에 얽히게 되며, 그 말로 인해 붙잡히고 말게 됩니다. 즉, 말 한마디로 자신의 삶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

한 책임을 넘어서, 자유를 잃고 고통에 묶이는
결박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잠 6:3] 내 아들이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
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겸손히 간청하여 보
증에서 벗어나라는 강한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
도 합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이나, 그물에
걸린 새처럼 보증은 인간을 휩싸는 덫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보증으로 인해 빚
을 갚지 못하고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오
늘날에도 보증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
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를 이유가 충분합니다.

“[잠 11:15]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
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

안하니라”

“[잠 17: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
옷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 20:16]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잡
힐지니라”

“[잠 22:26]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
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금한 이 보증을 예수
님께서서는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
할 수 없는 죄의 책임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
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
습니다.

“[히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
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보증’이 되셨고, 그 보증은 그

분의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보증을 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결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묶는 보증의 삶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서는 보증은 결국 서로를 망치고, 둘 다 죽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손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친구를 위해 죽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위한 보증의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감동적일 수 있지만, 그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보증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죽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잃음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일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남으십시오. 그래야 그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 6: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 6:7]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잠 6:8]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잠 6:9]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 6:10]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잠 6:11]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이 경고는 단지 성실한 생활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게으르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가 만약 나태하고 게으르다면, 그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며, 그 성품 중 하나는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은 결국 인생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 6:11]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게으른 사람에게는 빈궁과 곤핍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며, 그것은 마치 강도가 집안을 휘저으며 앗아가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삶을 무너뜨립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자연스러운 열매이며, 궁핍은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게으름 또한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부지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늘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극도로 게으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지만 주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귀찮아하며,

기도조차도 의무감으로 겨우 한 마디 내뱉는 수준입니다. 그는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은 잠들어 있으며, 그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놀라운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철학에 대해서는 열변을 토하고, 인문학 강연이나 명사의 인터뷰는 열심히 챙겨 봅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대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 진짜 궁핍을 부르게 됩니다. 단지 통장의 잔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과 인생의 의미를 잃는 깊은 가난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가난과 궁핍을 피하며 살아가는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질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간의 수고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밤낮없이 애쓰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재물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손에 재물이 모아지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문입니다. 부지런함도 중요하지만,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부지런함이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삶이 게으름에 물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의 부지런함과 열정, 그리고 멈추지 않는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부지런한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도 깨어 있고,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진짜 부요함의 길입니다.

[잠 6:12]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귀찮은 입을 벌리며

[잠 6:13]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잠 6:14]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

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잠 6:15]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성경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들은 단지 성격이 나쁘거나 질서에 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불량한 자와 악한 자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본성과 연결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과 주변을 파멸로 이끌고, 그 끝은 갑작스러운 재앙과 회복할 수 없는 패망으로 끝납니다.

“[잠 6:15]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회복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호하며 무섭습니다. 회개의 기회조차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단지 실수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패역’과 ‘거짓’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삶의 방식이 이미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잠 6:12] 불량하고 악한 자는 궤환한 입으로 행하며”

“[잠 6:14]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되고 왜곡된 말을 쏟아내며,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뜨리는 데 능숙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직 악한 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며, 분열을 조장합니다. 결국 그 열매는 자신에게 돌아오며,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불량한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벨리야알>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무가치함’, ‘무익함’, 그리고 ‘파괴자’를 뜻합니다. 단지 성실하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해치고 파괴하는 자를 의미함

니다. 이 단어는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사도 바울은 벨리알을 사탄과 동일선상에서 언급합니다. 불량한 자는 곧 사탄의 본성에 속한 자이며, 그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가치하고, 사람들에게도 무익하며, 자신조차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으며, 그의 목적은 오직 파괴와 분열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부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사람마저도 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폭력을 즐기며, 파괴를 일삼으며, 심지어 생명을 죽이는 데에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성의 왜곡이 아니라, 영적 정체성이 사탄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악한 자’ 역시 사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웬>은 ‘허무’, ‘거짓’, ‘사악함’, ‘고통’, ‘불행’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대상을 삶에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배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미 악한 자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거짓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참되지 않은 가치를 좇고, 헛된 것을 위해 애쓰며, 결국 사악한 행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필연적으로 불행과 고통을 동반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이미 악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한 자나 악한 자는 모두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남편이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며, 자녀의 믿음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자는 불량한 자요, 악한 자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사람은, 이미 어둠에 붙잡힌 자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자녀에 대한 왜곡된 사랑도 결국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든 우상이 되며, 그 사람은 악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본질이 곧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들처럼 말하지 말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량한 자는 결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생명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 6:16]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잠 6: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
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 6: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
로 달려가는 발과

[잠 6: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밋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구
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
경고나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한 권면이 아닙니
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울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분께
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
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는 고백이 참되려면,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함께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

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즐기고 죄를 따라 사는 삶의 태도 자체를 혐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잠 6: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이 구절에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 <토에바>는 ‘혐오하다’, ‘가증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죄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에 정면으로 반하는 악이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거부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예닐곱 가지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잠 6: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잠 6:18] 악한 계교를

궤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잠 6: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등장하는 일곱 가지는 모두 그 사람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눈은 단순히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깊은 오만의 표현입니다. 거짓된 혀는 진리를 왜곡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자입니다. 악한 계교를 궤하는 마음은 죄를 계산하며 계획하고,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죄를 향해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태도입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짓밟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 모두는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이며, 그 삶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거짓을 입에 올립니다. 사회 속에서 '자신감'과 '능력'이라 여겨지는 태도들 속에 교만이 스며 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지혜'라며 거짓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을 수 없이 혐오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도, 만일 그 삶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가 스며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일곱 가지는 결국 마귀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죄악의 목록입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의 말이 거짓되지 않은지, 우리의 손이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진리를 말하는 증인인지, 아니면 관계를 파괴하는 자는 아닌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며, 거룩함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걸음입니다.

[잠 6:20]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 6: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잠 6:22]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잠 6: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 6:24]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

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 6:25]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
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잠언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것
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 6:20] 내 아들이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 바로 ‘나’
를 가리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남자를 의미하
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여자일지라도 잠언의 ‘아
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아들’의 의미가 이처럼 포괄적인 것처럼, ‘아비
의 명령’과 ‘어미의 법’ 역시 보다 포괄적인 의미
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
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아버
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의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을 원래의 뜻으로 표현하자면,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할 때 음녀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 6:24]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언의 저자가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에게 빠질 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 6:26]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 이니라."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말은 죽지 않을 정도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거지 중의 거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지나칠 정도로 음녀를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은 음녀입니다. '악한'<라>이라는 단어는 '나쁜', '악한'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뜻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악한 자는 우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입니다. '악한 계집'은 우상을 섬기는 자이며 우상을 섬기도록 종용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악한 계집에게 빠지는 자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여기는 자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악한 계집'이라고 해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 계집'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이방 계집입니다. 성경

에서 '계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을 낮추는 말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 6: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신 6: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

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4대 구절들을 양피지에 그대로 베껴서 그것을 경문갑(經文匣, Phylactery)이라고 하는 성구함에 담아 손목과 이마에 부착하고 다니는 경문(經文)의 풍습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신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신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

실 때에.”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6: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신 6: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신 6: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 6: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신 6:18]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 6:19]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앞에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 6: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신 6: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물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 13: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출 13:4] 아빕월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 13:5]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출 13:6]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칠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 13:7]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출 13: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

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출 13: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출 13: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라 [출 13:11] 여호와께서 너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출 13:12]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와 의 것이니라 [출 13:13]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출 13:14]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이뇨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새 [출 13:15] 그 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고로 태에서 처음 난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출 13:16]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또한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나 바깥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유명한 말들을 적은 글을 붙이는 것이 유행했던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적어서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부적 붙이는 행위도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하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오랜 세월 동안 흘러 전해져 온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음녀의 유혹을 피하고, 영적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 6:26]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잠 6:27]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잠 6:28]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잠 6:29]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잠 6:30]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잠 6:31]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잠 6:32]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잠 6:33]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잠 6:34]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잠 6:35] 아무 벌금도 돌아 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의 저자는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실수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 6:32-33]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간음은 단지 육체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타락이며, 사람의 정체성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가장 깊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는 단지 사회적인 비난이나 일시적인 수치심을 넘어서, 영혼의 부끄러움과 상처로 이어지며, 그것은 씻기 어려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간음의 죄가 이렇게까지 강조되는 이유는, 이 죄가 불러오는 결과가 너무도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녀와 가정 전체가 무너지며, 때로는 일생을 걸고 쌓아올린 평판과 사역, 명예, 신뢰가 한순간에 붕괴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음을 저지른 자는 스스로도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무서운 자기파괴의 감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 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요일 5: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간음의 죄는 그만큼 심각한 죄이며, 그 죄를 지은 자는 스스로 그 죄 책임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 죄는 마치 새겨진 상처처럼, 삶 전체에 흔적을 남기고, 완전히 회복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떤 경우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또한 간음을 당한 배우자의 반응을 언급하며, 인간의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합니다.

“[잠 6:34-35]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속죄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간음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무너짐입니다. 이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돈이나 물질로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때로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에, 완전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잠언의 저자는 도둑질에 대한 예를 들어, 간음죄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잠 6:30-31] 도적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사람이 배고픔 때문에 훔친다 해도 들키면 반드시 배로 갚아야 합니다. 하물며, 남의 아내라는 가장 귀한 존재를 훔친다면 그 죄는 어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7배라는 숫자는 단순한 배상의 차원을 넘어, 완전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상징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도둑질에 대해 오분의 일을 더해 갚으라 하였지만,

“[민 5: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

왜 잠언 저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말을 했던 것일까요? 왜 도적질 하다가 들키면 7배를 더하여 갚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는 완전한 갚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단순한 도적질이 있다면 오분지 일만 더해서 갚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배우자를 도적질 하는 행위는 오분지 일만 더해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갚을지라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구해서 갓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갚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갚음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간음에 대한 완전한 갚음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여자를 사서 갚아 준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생긴 여자 일곱을 구해서 준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간부의 배우자이지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서 용서하시면

완전한 깊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간음한 것에 대해 주님의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행위에 대해 완전하게 깊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을 통해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음란한 영상과 이미지가 쏟아지고, 짧은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간음은 결코 먼 일이 아닙니다. 방심하면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고, 우리 역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음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
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7 장 =====

[잠 7:1] 내 아들이야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잠 7:2]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잠 7:3]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잠 7:4]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잠 7:5]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잠 7:6]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잠 7:7]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잠 7:8]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잠 7:9]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잠 7:10]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잠 7:11]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

에 머물지 아니하여

[잠 7:12]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잠 7:13]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
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잠 7:14]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
늘날 갚았노라

[잠 7:15]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에 온전
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너무나 소
중해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들어오려 하면 본능
적으로 눈을 감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 또한 그렇게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잠 7:2]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
처럼 지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보호하라고 당부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작은 티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동으로 눈을 감고 보호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민감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을 괴롭히는 미세먼지처럼 작은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유혹조차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는 화려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유혹하여 죄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마치 미세먼지가 우리의 눈을 위협하듯, 음녀는 우리의 영적 눈을 흐리게 하고 오염시키기 위해 다가옵니다.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신속하게 영적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 유혹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순간의 유혹에 눈을 감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침투하여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킵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킬 때, 친히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영적 눈을 밝히고, 유혹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잠 7:16] 내 침상에는 화문 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펴고

[잠 7:17]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잠 7:18]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잠 7:19]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잠 7:20]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잠 7:21]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잠 7:22] 소년이 곧 그를 따라오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

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잠 7:23]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
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잠 7:24]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
하라

[잠 7:25]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잠 7:26]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앞드러
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잠 7:27]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패와 보호막을 주
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입니
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더라
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
니다.

성경 말씀을 방 안에 가득 쌓아두었어도 펼쳐 읽

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 7:25]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음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음녀가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어떤 틈새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음녀에게 마음을 열어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음녀를 보내 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는 음녀에게 그토록 쉽게 문을 열고 있을까요?

어쩌면 배우자보다 더 매력적이라서일까요? 아

니면 순간의 호기심과 즐거움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든 간에, 마음의 문을 음녀에게 여는 순간 우리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배우자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두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닫힌 마음, 배우자에게 닫힌 마음은 모두 우리를 파괴할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호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

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오직 배우자에게만 활짝 열기로 결단합시다!

잠언서 8 장 =====

[잠 8: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잠 8:2]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잠 8:3]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잠 8:4]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잠 8:5]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잠 8:6]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잠 8:7]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잠 8:8]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잠 8:9]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잠 8:10]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잠 8:11]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서 8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지혜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도 깊이 있는 묘사로 손꼽히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지혜'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마치 살아 숨 쉬는 존재처럼 생생하게 의인화하여 우리 앞에 세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지혜를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장에서의 지혜는 그동안 잠언 전체에서 계속 강조해 온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잠언서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주제는 바로 지혜 없이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지혜는 단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실용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통찰과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며,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잠 8:11]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구절은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얻고 싶어 하는 보물, 즉 진주나 금, 은 같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는 더 귀한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삶이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잠언서 8장에서 지혜는 말합니다. “내가 영원부터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요. 이는 지혜가 단지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경륜 속에 함께 있었던 본질적인 속성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지혜를 얻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안정된 삶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지혜가 낫다고요.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값지며, 진정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잠 8:12]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만나니

잠언서에서 지혜는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결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 곁에는 언제나 주요 조연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명철', '지식', '근신'입니다. 이 단어들은 잠언서 저자가 특별히 사랑한 표현들이며, 지혜와 함께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들처럼 나타납니다.

“[잠 8:12]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한 구절 안에 지혜의 동반자들이 모두 다 등장합니다. 우선,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표현을 봅시다. 여기서 ‘주소를 삼다’는 히브리어 <사칸>은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물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지혜가 명철이라는 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명철은 지혜가 살아가는 공간이며, 지혜는 명철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명철’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비나>는 ‘분별력’, 곧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식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악을 멀리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곧 명철한 자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명철은 단지 지적인 분별만이 아니라 도덕적 결단이 포함된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와 악 앞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경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찾아 얻다’는 히브리어 <마차>는 ‘간절히 찾다’, ‘도달하다’는 의미로, 마치 보화를 발견하려는 자의 간절한 수고처럼 느껴집니다. 지혜가 그토록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지식과 근신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지혜는 결코 태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려 하고, 늘 더 나은 분별을 위해 자기를 훈련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것이며, ‘근신’은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이 둘을 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절제하고 조심하며, 더 깊이 있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 한 절만 보아도 지혜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생깁니다. 지혜는 그 자체로 고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지혜는 명철이라는 집에 거하며, 지식과 근신이라는 보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는 존재입니다. 지혜가 자녀라면 명철은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명철한 사람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명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고, 지식과 근신을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명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끊임없이 지식과 근신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결코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책상 앞에 앉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실제 상황에서 분별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태도입니다. 지혜는 행동으로 증명되고, 선택으로 드러나며, 말과 태도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늘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상황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동시에 욕망과 감정, 언어를 다스릴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명철한 삶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명철이라는 기반 위에서 자라납니다. 지식과 근신은 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면, 반드시 깊이 있는 앎과 절제 있는 삶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로 서게 됩니다.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감정보다 분별을, 충동보다 절제를,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잠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서 8장에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지혜는 단지 현명한 판단이나 좋은 아이디어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깊은 경외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경외하다’는 히브리어 <이르아>는 ‘두려움’ 또는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공경과 존중, 경탄에서 우러나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땅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

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게 하며, 그 관계 안에서 참된 인생의 방향을 얻게 합니다.

잠언서는 이미 초반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각과 분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잠 9:10]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과 지혜, 그리고 명철은 마치 삼위일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게 하며, 명철은 그 모든 이해 위에 실제적 판단과 분별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의 감정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시작점이요 본질적인 기초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신약에서도 드러납니다.

“[고전 12:8]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도 지혜와 지식이 구분되어 있지만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이 강조됩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능력이라면,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아는 데 필수적이며, 이 두 가지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명철은 더 정밀해지고, 판단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잠 8:13]은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게 된다고요. 왜냐하

면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자신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깃든 사람은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자체가 그것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이며, ‘거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는 태도입니다. ‘악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곧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며, ‘패역한 입’은 거짓, 비방, 조롱과 같은 사악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삶은 지극히 실제적인 삶입니다. 겸손하고, 귀를 열고, 바르게 행하며, 말을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 내 태도와 마음은 지혜와 함께 거하고 있는가?

이러한 점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철한 인생의 길입니다.

[잠 8:14] 내게는 도락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잠 8:15]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잠 8:16]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잠 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 8:18]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잠 8:19]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잠 8:20]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
운데로 다니나니

[잠 8:21]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
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니라

지혜는 단지 똑똑함이나 빠른 판단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요, 공의를 세우는 권위이며, 하
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영적인 통
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 8:15]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
들이 공의를 세우며” “[잠 8:16]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
스리느니라”

지혜는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왕이 나
라를 바르게 통치하게 만들고, 재판관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하며, 지도자들이 정의의 기준을

세우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처럼 지혜는 정치, 사법, 행정 등 모든 공적 영역을 움직이는 중심 동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지혜가 단지 세상의 지혜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분명 유익한 것이며,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깊으며,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쌓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실수와 성공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지혜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것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경험과도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감동에 의해 임하는 것이며, 누구든 마음을 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청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의 모든 지혜자를 능가했

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창 41:39]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또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성전에서 성경학자들과 논쟁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연륜이나 지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마음을 겸비하게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빈 마음에만 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적 영역-곧 감정과 이성, 육적인 본성-을 비워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나를 채우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비우는 과정을 통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 지혜가 옵니다.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열려야 하고,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끊고, 혼적인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전히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자리잡게 됩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내 안의 경험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만큼 낮아진 자이며,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잠 8: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 8:23]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잠 8: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

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났으며

[잠 8:25]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
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 8:26]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잠 8: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
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잠 8: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
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잠 8: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
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에

[잠 8: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
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 8: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
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은 '지혜'를 매우 인격
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
인 개념이 아니라, 마치 살아 있는 인물처럼 '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많은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특정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고대부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해 왔고, 오늘날에도 그 해석은 여전히 유효한 신학적 관점을 지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 8장의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묘사와 정확히 겹칩니다. “[잠 8: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는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본질이며, 세상의 모든 질서와 창조는 지혜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하는 해석은 매우 풍부한 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지혜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었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단지 한 인물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명, 질서와 기쁨을 담아내는 영적인 실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 8: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 8: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혜는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단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 사역에 함께했던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일에 깊은 기쁨을 느끼며,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고, 인간의 창조와 그 삶의 터전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이는 곧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그 뜻을 따르는 데서 오는 내적인 기쁨과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혜란 단지 똑똑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자세이며, 하나님의 일

에 동참하고 그 뜻을 기뻐하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알아야 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의 삶입니다.

결국, 잠언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라. 그것은 태초부터 존재한 것이며, 그 지혜 안에서 너 또한 기억되고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라. 지혜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의 영광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잠 8:32]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 8:33]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잠 8: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잠 8:35]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 8:36]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서 8장은 지혜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총, 곧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잠 8:35]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 8:36 상]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잠 8:36 하]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곧 지혜를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초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며 사망을 사랑하는 자로 여겨진다고 단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는 때로 유익해 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성공을 가져다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출처가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경험과 계산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망의 길에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

에 있는 자의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혜의 길이요, 진리의 본체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학문과 기술, 경험과 정보는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

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어떤 지혜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영원한 가치를 따르게 만듭니다. 반면 세상의 지혜는 일시적인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입니다. 매일의 선택과 판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9 장 =====

[잠 9:1]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잠 9:2]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잠 9:3]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잠 9:4]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잠 9:5]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잠 9: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잠언서 9장은 지혜가 마치 한 여인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부르고 설득하며 준비된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베푸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잠 9:1]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잠 9:2]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잠 9:3]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 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 장면은 단순한 비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는 표현은 지혜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견고하고 거룩한 곳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며 상을 갖추었다’는 표현은, 지혜의 초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정성스러운 잔치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정성껏 초대하시며, 어리석은 자들이 기꺼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초청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지혜는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 사람과 환경, 상황을 통

해 지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은 그저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초청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우리 안에 자리잡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단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이 베푸신 자리에 나아가는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 9: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삶을 바꾸라는 권면이자, 방향을 전환하라는 요청이며,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가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로 결

단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안에는 지속적인 배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겸손한 태도, 그리고 실천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마치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그 이후에 열심히 공부해야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배우며 살아가는 삶-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자리를 잡기 위해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지혜는 단지 관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체가 되어, 생명과 은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잠 9:7]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잠 9:8]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 9:9]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잠언 9장에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특히 징계와 책망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그에게서 능욕을 당하고, 악인을 책망하면 오히려 흠을 잡히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

에서 어떤 태도가 악한 것이며, 어떤 반응이 의로운 것인지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악인으로 표현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세상은 거만한 자를 단지 성격이 강한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거만함을 '악함'으로 보십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충고도 무시하며, 자신에게 책망하는 자에게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거나 징계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욕을 먹고, 문제의 본질을 왜곡당하며, 정작 선한 의도로 다가간 사람의 인격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닫혀 있고,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으며,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다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여기며, 자신을 돌아

보는 거울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망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고 하셨고, 지혜 있는 자는 그 교훈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자는 배움을 통해 그 학식이 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방식이 어떤 태도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의로운 사람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겸손히 배우는 자,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 하나님의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가 곧 의인이라는 뜻이며, 거만한 자가 곧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거만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자기 신앙에 확신이 있고, 자기 방식에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충고나 성경적 책망

조차도 듣지 않으려는 태도는 영적인 거만함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태도입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신이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며, 결국 스스로를 더 큰 어둠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변화되며, 그 변화의 과정에서 더욱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자기를 날마다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로운 자라 부르시고, 더 큰 지혜를 맡기시며, 삶의 열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기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책망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 안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는가? 혹시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교만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다면, 먼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사람을 통해 주시는 책망과 교훈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입니다.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경외하다'는 히브리어 <이르아>는 단순한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생기는 깊은 존경과 경건한 두려움을 함께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렵고 떨림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며, 그런 경외함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잠언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는 ‘지혜’가 아닌 ‘지식’의 근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른 단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부터 함께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인식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기에, 표현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지혜와 지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고전 12:8]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은 별개의 은사로 주어지지만 모두 성령으로부터 오며, 하나님을 아는 깊은 경외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따릅니다. 단지 경건해 보이는 태도를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와 악에서 떠나는 실질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잠 8: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함, 그리고 부패한 행위를 버리게 됩니다. 이는 경외

가 단순한 감정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별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직접적인 깨달음을 통해 주어지기도 합니다.

“[마 10: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마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학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 역시 세상의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이와 경험을 통해 쌓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이 순전하고 열려 있는 자에게 임하며,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 더 풍성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을 비울 때 임합니다. 혼적이고 육적인 요소가 비워질수록,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명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히브리어 <디아트>로 번역된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이해, 경험에서 우러나온 앎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는 반드시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악에서 떠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욥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서 명철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기초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지식과 지혜, 그리고 구별된 삶의 시작입니다.

[잠 9:11]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잠 9:12]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잠 9:13]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잠 9:14]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잠 9:15]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
되

[잠 9:16]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잠 9:17]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
이 있다 하는도다

[잠 9:18]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
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겉보기
에는 평안하고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는 심각한 어둠과 멸망의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
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잠 9:17]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말씀은 불의하고 은밀한 쾌락, 곧 하나님께

서 금하신 길을 따르는 삶이 잠시 즐거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끝은 멸망이며, 하나님의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파괴적인 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택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로 분류합니다.

“[잠 1: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단순함과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쉽게 잘못된 길로 끌려갑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의 판단을 절대시하며 책망을 거부하고, 미련한 자는 참된 지식과 진리를 배울 의지가 없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며, 결국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치 음녀의 말에 미혹된 자들처럼, 자기 영혼을 위태롭게 내맡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지 못한 자는 죄의 유혹 앞에서 속

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도적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라는 표현은 불의하게 취한 쾌락, 감춰진 죄를 즐거움으로 착각하는 자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잠 9:18]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그의 객들이 음부의 깊은 곳에 있느니라”

지혜 없는 자의 길은 결국 사망이며, 그의 끝은 스올, 곧 멸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아가는 자는 자기 인생의 진짜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방황합니다.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혼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음녀의 유혹, 즉 세상의 지혜와 말에 휘둘리며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의 지혜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 그 순간의 달콤함에 속아 멸망의 길로 접어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짓된 달콤함에 속지 않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도적질한 물이 결코 달지 않으며, 몰래 먹는 떡이 진정한 만족이 아님을 압니다. 그는 숨기고 감추는 삶 대신, 진리 안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복되다는 사실을 압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하는 자와 멀리하는 자 사이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과 구원의 길이며, 영원한 평안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언서 10 장 =====

[잠 10: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0장은 '미련한 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란,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깊은 영적 고집과 완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련함'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며, 경건에 대한 무관심이자 진리에 대한 반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22절은 지혜를 거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잠 1: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자’는 <페티>라 하여, 분별력이 부족하고 유혹에 쉽게 끌려가는 단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만한 자’는 <레츠>인데, 이는 조롱하고 비웃으며, 경건한 것들을 경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카실>로 표현되며, 이는 교훈을 싫어하고 훈계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고집스러운 자를 가리킵니다.

이 세 부류는 단순한 성격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잠언이 이 세 부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혜를 거절하는 태도는 결국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은 단지 육적인 실패나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영원한 분리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하

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지혜 자체이십니다. "[잠 2:6] 대저 여호와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세상에도 지혜는 있습니다. 전략과 계산, 계획과 학문이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구원의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예수님께 이르게 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드리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되 마음에 새기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거절하며, 결국 어둠 속을 걷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페티>처럼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레츠>처럼 진리를 비웃으며, <카실>처럼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곧 네 생명이니라.”

지혜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 지혜 안에만 생명이 있으며, 그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잠 10:2]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 10:3]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잠 10:4]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 10: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
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이니라

[잠 10: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
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 10:7]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잠 10: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
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잠 10:9]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
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 10:10]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잠 10: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 10:12]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 10:13]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잠 10:14]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잠 10: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잠 10:16]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 10: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
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 10:18]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잠 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 10:20]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잠 10:21]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잠언은 반복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단순히 '미련한 자'라기보다는, '지혜롭지 않은 자'라고 보는 것이 더 본질적인 구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지혜롭지 않은 자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그리고 '미련한 자'입니다.

이 세 부류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자기 판단을 따르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잠언 10장에 이르면, 지혜롭지 않은 자의 대표격으로 특별히 '미련한 자'가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어리석음을 넘어, 지혜와 교훈을 고의로 거절하고 반복된 훈계를 무시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잠언 10장은 지혜로운 자에게는 복이, 미련한 자에게는 화가 따른다는 원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배불리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 미련한 자는 그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 10:3] 여호와께서 의인의 심령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네페쉬>입니다. 이는 단지 '영'만을 뜻하는 <르아흐>와는 구별됩니다. <르아흐>가 인간 존재의 영적인 본질만을 의미하는 반면, <네페쉬>는 인

간의 감정, 의지, 생각까지 포함된, ‘혼’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따라서 “의인의 심령을 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단지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와 내면, 삶의 감각과 지성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영역은 단지 육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 곧 <네페쉬>가 진정한 허기와 배고픔을 느낍니다. 육체가 느끼는 배고픔보다도, 영혼이 느끼는 배고픔은 더 깊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의 허기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 현실에는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비극이며, 믿는 자들조차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신다고 하십니다.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기서 ‘소욕’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하우와>인데, 이는 ‘욕망’, ‘열망’을 뜻하는 단어입니

다.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인정이든, 관계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를 향해 쓰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악인의 욕망을 거절하시지만, 의인의 욕망은 기꺼이 채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욕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망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 더럽고 탐욕적인 세상의 욕망에 물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은 정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며, 거룩한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은 정욕으로 흐르고, 자기 중심의 탐심으로 변질되며, 죄와 부끄러움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욕망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탐하는 욕망은 세상에서 온 부패한 욕망입니다. 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욕망은 단지 인간 내면의 본능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욕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과 기준에 이끌린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종류의 욕망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세상의 욕망은 육체의 쾌락과

외적인 성공, 자아의 자랑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 뿌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망은 거룩함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란, 바로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겨난 욕망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비롯된 욕망은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욕망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욕망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은 주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품은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내면은 메마를 것입니다. 그들의 열망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욕망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욕망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화려했던 기준에 이끌린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의 심령은 주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내가 물리칠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정결한 욕망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 10:22]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잠 10:23]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요함에 근심을 더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10장 22절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재물이 많아 보이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오히려 더 큰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부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재산을 유지하려고 불안해하고,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계산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관계의 불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결코 복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이 많은 부자는 근심이 없는 가난한 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부요함이 참된 복임을 가르칩니다. 근심은 복이 아니라 짐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요함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더불어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안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만일 우리의 재물이 근심과 두려움을 불러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며, 그 복은 재물뿐 아니라 마음의 평강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함만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 없는 참된 부요함이 될 것입니다.

[잠 10:24]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 10:25]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 10:26]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미련한 자를 악인으로 분류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에 포함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잠언 10장 24절은 악인과 의인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

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두 부류가 모두 ‘마음속에 품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두려움을 품고 있고, 의인은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악인은 그가 두려워한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반면, 의인은 그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도 두려워할 수 있고, 악인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실제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보호하심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녀에 대해 품었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고, 배우자에 대한 염려가 실

제 사건으로 나타났으며, 재물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 실현되었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그대로 병으로 드러났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자, 곧 악인의 범주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보호 가운데 지나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하신 의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잠언 10장 24절 하반절은 의인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나 자기암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의인이 품는 소원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소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원하는 것이지만, 그가 바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구하는 것이 옳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줄 아는 사람

입니다. 그는 무질서한 욕망이나 어리석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합니다. 반면 악인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야 할 것조차도 요구합니다. 결국 그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헛된 외침이 되며,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온전한 분별력 안에 있는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감정과 세상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현실이 되지 않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의인

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잠 10:27]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잠 10:28]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 10:29]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잠 10:30]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잠 10:31]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베임을 당할 것이니라

[잠 10:32]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잠언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분명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는 말씀은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장수하는 삶으로 연결됩

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란 단순한 두려움이나 외형적인 경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인생의 후반부까지 의미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의 비결이 인간의 노력이나 유전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수명이 길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수'의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중에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수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 있는 장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그것은 궁극적인 복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

하는 자는 그 삶이 반드시 장수의 복으로 이어지며, 단순히 생명의 길이만이 아니라 삶의 질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장됩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분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 이런 질문은 인간의 시선으로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외’는 외적인 신앙 활동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장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행위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수의 복이 주어지며, 그 복은 단지 긴 생명을 넘어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

[잠 11: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속이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형태의 속임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분은 천사에게도, 인간에게도,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속인 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전혀 다른 본성을 가진 자들, 곧 속이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명확하게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속임은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며, 그의 활동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하늘의 천사들을 속였으며, 인간을 속였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착각했고, 스스로의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은 마귀의 이 교만과 속임을 묘사합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은 그를 하늘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한 그의 실상이 폭로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서지 못한 존재는 결국 무너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는 타인을 속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그분을 대적하려 했고, 자기의 권세를 높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속이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속이는 자, 진실을 가장하고 거룩함을 흉내 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아시며, 그들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면, 그는 마귀처럼 낮아질 것이며, 결국은 땅에 짚히는 존재가 될 것

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속였기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사기와 속임에 의해 하늘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마귀를 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존재들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이 사기꾼들을 더 이상 천국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기록합니다.

이후 마귀는 인간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 마귀를 하나님인 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처럼 마귀의 사기는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인간들은 그 속임수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

기극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귀는 붙잡히게 되며, 무저갱에 던져져 천 년 동안 결박당하게 됩니다.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마귀의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사기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삶 속에 '사기'의 흔적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1절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단순한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과 불공정, 사기적인 태도의 상징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일상 속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감정에 따라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태도이며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편애하거나 불공정하게 대한다면 그것 역시 속이는 저울입니다. 사업이나 장사에서 정당하지 않은 가격을

매기거나 고객을 속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사기입니다.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이나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성도들 앞에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기심과 위선을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단지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명백한 죄만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상의 속임, 불공정함, 감정에 따른 차별, 진실을 왜곡하는 언어, 표리부동한 태도-이 모든 것이 마귀의 속성과 닮아 있는 것들이며, 결국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그는 처음부터 진리에 서지 못했고, 지금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며,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속이는 자는 단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마귀의 속성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판단과 관계에서 속이는 저울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사기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속이는 저울을 내려놓고, 진

실함과 공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잠 11:2]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결국 교만으로 인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하늘의 권세를 빼앗으려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를 낮추시며, 피조물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구절은 교만의 결과가 수치와 불명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기서 “교만이

오면”이라는 표현은 교만이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교만이 사람 안에 들어올 때 교만한 태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받아 그 성향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를 얻습니다. 이는 마귀가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의 지지를 얻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만한 자 역시 대중의 우상으로 부상하기 쉽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아이돌’이라 불리는 존재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되며, 이는 ‘우상’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우상이 되기를 원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오히려 더

큰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며,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욕, 곧 수치와 치욕이 따르게 됩니다.

‘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칼론>은 ‘부끄러움’, ‘불명예’, ‘치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실상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당장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무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높이고 따르던 우상들이 결국 얼마나 처참한 결말

을 맞이하게 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귀를 따르던 자들도 마찬가지로 불뭇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이 지혜는 단지 지적인 통찰이나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분별력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머리 숙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높이시며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함의 가장 완전한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굶주리셨고, 함께 고난을 당하셨으며, 결코 제자들을 이용하거나 자신만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시며 죄인들을 위한 길을 걸

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단순한 말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군림하고, 자신의 편의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의 본질을 모르는 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경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입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수치를 면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고자 한다면, 마귀의 교만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욕을 피하는 길이며, 지혜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잠 11: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

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이며, 그분 안에는 어떤 왜곡이나 거짓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역시 정직해야 하며, 정직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특징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짓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사기를 치는 자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입니다.

잠언 11장 3절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툼마>이며, 이는 단순히 ‘부지런함’이나 ‘열심’이 아닌, ‘순결’ 혹은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이란, 행동의 격렬함이나 노력의 강도가 아니라, 마음의 순결함과 동기의 깨끗함을 가리킵니다. 정직한 자는 마음이 순결하고, 그런 순

결한 마음이 그의 삶 전체를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세상은 종종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실함은 '속이 비치고, 동기가 맑으며, 감추는 것이 없는 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겉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거나 계산적이라면 성실하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이 크지 않더라도,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성실한 자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직함과 순결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로 행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은 그분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속성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이 정직함을 삶에 드러내야 하며, 그

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직함과 순결함은 단지 도덕적 수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며, 그의 길을 밝히십니다. 반대로 거짓된 자, 속이는 자, 계산적인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순결한 삶이란, 육적인 결백을 넘어서 영적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억제한다고 해서, 혹은 세속적인 환경을 떠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순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함은 마귀의 거짓된 방식과 단절하고,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 곧 진리와 정직의 길로 들어설 때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버려야 하며, 사기적인 언행과 속이는 태도를 철저히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의 거처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더럽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기반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하며, 세상의 방식이나 문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 교묘한 이익 계산, 표리부동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순결함을 육적인 방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나기 위해 육체를 포기하거나 세속적인 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은 성경이 말하는 순결의 본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함과 순결은 마음의 문제이며, 내면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된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결입니다.

정직한 삶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본적인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시며, 정직한 자의 길을 성실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과 순결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 11:4]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잠 11:5]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잠 11:6]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잠 11:4 상)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는 마지막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세상의 재물이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

물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재물이 영혼을 구원하거나 심판을 피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재물은 일정 부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물과 체계, 심지어 교회 건물과 제단, 우리의 재물과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마지막 날 앞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집,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막, 보이는 업적, 보이는 명예-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겐 실제적이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곧 내면의 믿음, 진실한 경건, 성령 안의 역사, 그리고 하늘에 쌓이는 보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후 4: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지나가며, 그것에 기대를 두는 삶은 본질적으로 허망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 가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마귀의 유혹에 빠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진짜라고 착각합니다. 마귀는 늘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화려함, 힘, 숫자, 돈, 인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시선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구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우선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지 않지만 믿는’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눈,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는 눈,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시작될 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높아 보였던 건물들이 작아지고, 대단해 보였던 업적들이 하찮아지며, 소중하게 여겼던 재물들도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어떤 재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실한 믿음과 순결한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며, 그 길 위에만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 11:7]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
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잠 11:8]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악인’이란 단순히 죄를 짓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에서 악인을 뜻하는 <라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존재를 가

리킵니다. 이러한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존경받고 선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 또한 악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악인’을 나쁜 짓을 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외적인 행위보다 훨씬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윤리적 행위를 기준으로 의인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믿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척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외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잠언 11:7)라는 말씀은 그 단절의 비극적 종말을 드러냅니다. 원어에서 ‘소망’을 뜻하는 <티크바>는 줄, 혹은 매달린 끈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악인은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곧 죽음 앞에서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 명예, 인간관계, 권력은 죽음 앞에서 모두 힘을 잃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시간 안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영원을 마주하는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집니다.

혹 지금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삶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악인'의 삶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실체를 직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벧전 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소망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공허합니다.

잠언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보여줍니다. 악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의인이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악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며 은혜로운 진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죽음조차도 그의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으며, 어떤 환난 속에

서도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재물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며, 어떤 인간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이 당신의 마음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든 말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소망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며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의 불확실한 현실을 딛고, 하늘의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을 의인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잠 11:9]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 11:10]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잠 11:11]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잠 11:12]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잠 11: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
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
기느니라

사람의 입은 생명으로도, 죽음으로도 이끌 수 있
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말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혀를 온 몸을 더럽히고 지옥의 불을 옮기는 “불”
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은 사
특한 자, 즉 말을 통해 이웃을 무너뜨리는 자에
대해 강한 경고를 줍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
나...”(잠언 11:13 상) 여기서 ‘한담하는 자’에 해
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킬>입니다. 이 단어는 단
순한 수다쟁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모
략하고, 험담하며, 이간질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라킬>은 공동체를 분열시

키고 이웃을 몰래 파괴하는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지만, 말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로 사람의 평판과 명예, 심지어 삶 자체를 찌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특한 자는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로 끌고 갑니다. 마치 썩은 사과 하나가 온 상자를 망치듯, 그 입에서 나오는 독소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가 한 말은 바람처럼 퍼져나가고, 무수한 오해와 상처,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악인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입에는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요 8:44).

혹시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은밀히 남을 홍보며, 비밀을 누설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기 우월감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그런 자를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단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물리적 죽음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내면과 명

예,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를 죽이는 자입니다.

사람은 흔히 칼에 찔리는 고통은 기억하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영혼 깊은 곳에 남아 평생을 괴롭힙니다. 성 어거스틴은 “혀가 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돌아오지 않으며, 그 말이 가져오는 파괴는 때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신실한 자는 그 입으로 생명을 품습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잠언 11:13 하) 이 말에서 ‘신실한’이라는 단어는 진실함, 믿을 수 있음,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신실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은밀히 감싸며, 자신이 알게 된 비밀을 결코 흥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칼이 아니라 치유의 붕대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신실한 자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의 다리

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입니다.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험담보다는 중보기도로, 비방보다는 격려의 말로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단순히 좋은 성품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며, 그와 가까이 하는 자는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당신 스스로의 입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무심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숨은 험담 속에서 이웃의 신뢰를 허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회개의 날입니다. 우리의 입은 원래 찬양과 생명의 언어를 담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입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흐르도록 경건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을 통해 사망이 흐를 수도 있고, 생명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험담과 비방은 사탄의 도구이며, 은혜와 사랑의 말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사특한 자의 말에서 멀리하고 신실한 자의 말 가까이 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입술이 오늘 누구를 죽이고 있으며, 또 누구를 살리고 있는지를.

입술의 말이 당신의 생명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의 열매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잠 11:14]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성경은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14절 상)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락’은 히브리어로 <타흐불라>이며, ‘지도’, ‘조언’, ‘계획’, ‘지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어가 아니라, 방향성과 명확한 길잡이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락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조언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조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잠 11:14]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락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의 조언은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고대의 종교 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조언서이며 인생의 지도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글은 읽고 버릴 수 있지만, 성경은 생명과 진리를 품고 있기에 우리 삶을 근본에서부터 교정합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을 받을 때 비로소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14절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락, 즉 조언과 충고는 우리 내면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줍니다. ‘모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아츠>는 ‘충고하다’, ‘권면하다’, ‘상담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조언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잠 11:14]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락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우리는 깊은 평안을 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로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않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된 영원한 평안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

리 심령 깊은 곳에 닿을 때, 세상의 소음은 잠잠 해지고, 불안은 가라앉습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까? 깊은 불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세상적인 평안에 기대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음성 앞에 조용히 머문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바로 지금도 살아 있는 하나님의 조언이며, 당신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세상적인 평안을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당신 안에 머물 것입니다. 당신은 세

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이 당신
을 평안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잠 11:15]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
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
안하니라

성경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잠 6:3 상)
이라고 말하며, 보증 서는 자를 향한 경고를 분
명하게 줍니다. 보증은 단순히 재정상의 책임을
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묶어버리는 영적 결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웃의 손에 빠진 것’이라고 표현
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자유를 넘겨주는 행위
와 같습니다.

“[잠 6:3]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
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보증’이라는 개념은 단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히브리 문화 속에서 하인이 주인의 손에 붙들릴 때, 혹은 여인이 남편에게 속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와 책임이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입니다.

‘보증하다’라는 뜻의 <타카>는 ‘손바닥을 치다’, ‘나팔을 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계약이나 약속이 성립될 때 손을 마주쳤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듯, 어떤 관계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바닥은 때로 인생을 묶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무서운 보증을 서셨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올리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해 대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살았습니

다. 보증은 언제나 고난을 동반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홀로 감당하셨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히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지만, 결코 서로를 위해 보증을 서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서는 보증은 종종 서로를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은 사람을 얽매이고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조언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이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

녀를 위해,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쉽게 내어주는 사람이 많지만,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나 가족을 위해 보증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의리를 위해 죽지만, 그런 죽음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죽을 목숨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보증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할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 죽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 인생을 태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애입니다.

[잠 11:16]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잠 11:17]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잠 11:18] 악인의 샅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잠 11:19]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잠 11:20]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 11:21]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잠 11:22]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성경은 유덕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16절)는 말씀처럼, 성경은 여자의 미덕과 남자의 근면함을

같은 가치로 높이 평가합니다. 근면한 남자가 훌륭하듯이, 유덕한 여자는 단순히 외모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은혜와 인격으로 존영을 얻게 됩니다.

“[잠 11:16]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유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며, ‘은혜’, ‘호의’, ‘매력’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외모를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로 충만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를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는 축복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외모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내면의 향기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각적인 매력과 외적 아름다움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덕함, 곧 인격과 품위, 은혜를 받은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아름다움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22절)고 말했던 것입니다. 금고리는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돼지 코에 걸려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안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 내적인 분별과 삼가함 없이 드러날 때, 그 모습은 돼지의 코에 금고리가 있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금고리 자체가 초라하게 보입니다.

“[잠 11:22]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

‘삼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암>인데, 이는 ‘분별하다’, ‘판단하다’, 또는 ‘맛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마치 요리사가 음식의 맛을 판단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양념을 넣어 망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인의 분별력은 아름다움의 맛과도 같은 것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판단이 흐려지고 인격에 분별이 없으면 참된 아름다움은 퇴색됩니다.

여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유는, 얼굴이 아니라 판단의 지혜와 삼가함의 깊이에 있습니다. 유덕한 여인은 말에 은혜가 있으며, 행동에 절제가 있고, 태도에 존엄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며,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여성을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까? 외모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분별, 절제, 유덕함입니다.

[잠 11:23]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생명을 낳지만, 악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

러일으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23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느냐가 우리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흔히 ‘소원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상으로 보며, 소원의 성취 여부는 하나님의 뜻과 의인 됨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소원은 결국 진노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 곧 의인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주님 앞에 상달되며, 그분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 145:19]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이 소원의 응답 여부를 가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말이나 간절함, 또는 인간적인 선함에 따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자, 그것이 의인입니다.

“[요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다면, 그는 여전히 악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단지 관념적 존재이며, 그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의롭다 여겨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내 죄를 깊이 깨달아 회개한 적이 있는가? 만약 “왜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눅 1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눅 18: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

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떨림을 느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소원은 응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간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껏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면, 당신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악인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소원은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시 66: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단지 시

간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당신은 의인입니까?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잠 11:24]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 11: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은 구제를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구제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시간, 재물, 생명, 자녀-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베푸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제품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따라 구제를 실천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흠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24절). 여기서 ‘흠어 구제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파자르>이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풍성하게 나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치 홍수 속에서도 씨를 뿌리듯, 지금의 희생을 통해 미래의 풍요를 믿고 구제합니다.

“[잠 11:24] 흠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로운 실천 세 가지는 기도, 금식, 구제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제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구제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의인이라 불릴 수 없었습니다.

“[마 6:1]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 6: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6: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 6:4]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히브리인들은 구제를 철저히 실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구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시선에서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원치 않아도 사회적 의무감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구제하는 자를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

고, 도리어 돕는 자를 이상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25절). 여기서 ‘구제’는 히브리어 <베라카>, 곧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복을 빌어 주며,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잠 11: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한 ‘윤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와>이며, ‘흠뻑 젖다’, ‘잔뜩 마시다’, ‘만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공급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까지 채움 받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흠뻑 젖도록 채워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들도 이 의미를 잘 살립니다. 이 구절을 KJV는 "인색하지 않은 영혼은 풍부해질 것이며 물을 주는 자는 자신도 물을 공급받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RSV는 "관대한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공급받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KJV: "The liberal soul shall be made fat: and he that watereth shall be watered also himself." RSV: "A liberal man will be enriched, and one who waters will himself be watered."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베푸는 자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만 먹고 마시는 자는 말라간다. 우리가 생명수를 가지고 있다면, 혼자 마시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남을 배부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구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재물을, 시간과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켜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길 원하십니다. 구제를 기뻐하는 자, 남을 윤택
하게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
다.

[잠 11:26]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잠 11:27]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
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
리라

매점매석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한 행위입니
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자를 탐욕스럽고 비열한 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신자들조차 이러한 행위를 하
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재물을 축적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입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26절). 이는 곡식을 감추어 시장에 내지 않는 행위, 즉 매점매석을 의미합니다. 고의적으로 공급을 막아 가격을 조작하려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잠 11:26]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카브>이며, 본래 ‘뚫다’, ‘찌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저주가 아니라, 심판의 창이 몸을 찌르는 무서운 결과를 암시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엘르아살이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매점매석의 죄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형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단지 곡식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 땅을 독점하며 가격을 올리는 행위,
- 물 같은 생필품을 축적하여 이익을 노리는 행위,
- 사람이나 노동을 이용해 착취하려는 행위,
- 교회가 성도를 자신들의 영역에 가두고 독점하려는 영적 매점매석,
-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누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매점매석하는 죄입니다. 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독점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악인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 할 청지기입니다. 구원도, 은혜도, 복음도,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함께 나누는 것

이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27절 상). ‘선을 간절히 구하다’는 말은 단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총을 베푸시는 대상이 됩니다.

“[잠 11:27]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선을 찾는 자에게는 은총이 임하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악이 임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탐욕과 독점 욕구를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나누고 있는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움켜쥐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나눔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눔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잠 11:28]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 11:29]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잠 11:30]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 11:31]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28절) 이 구절은 매우 분명한 경고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일 때, 그것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공급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

리가 그 자리에 재물을 얹혀 놓는 순간, 패망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잠 11:28]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기서 “패망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팔>로, ‘떨어지다’, ‘엎드러지다’, ‘넘어지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처럼, 삶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파산이 아니라, 영적 파탄, 신뢰의 붕괴,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충성심과 사랑을 빼앗아 가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해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29절 상)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부를 쌓는 듯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바람과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허무함,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결과를 뜻합니다. 즉, 그런 자의 모든 수고와 소득은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잠 11:29]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바람을 잡으려는 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의인은 생명나무 같아서 열매를 맺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자기 소득으로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자는

가정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며,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잠언서 12장 =====

[잠 12: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
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
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훈계는 하나님께
서 사람을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
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더 깊이 이
해하며,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는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훈계를 통해 우리를 다
듬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1절 상).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담긴 훈계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식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참된 지식
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
별하는 통찰은 마음을 열고 훈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히브리어로 훈계는 <무사르>라고 표현되며, 이는 단지 말로 하는 교훈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와 연단을 포함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훈계를 불편해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자녀들, 교사의 권면을 무시하는 학생들, 목회자의 말씀을 경고가 아닌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신자들. 모두 훈계를 싫어하고 피하려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1절 하). 이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을 때 짐승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코 머리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영혼이 깨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스며듭니다. 그러기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만이 지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달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날마다 지식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점점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훈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책망을 받을 때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 그 손길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잠 12:2]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잠 12:3]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 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지탱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악으로는 결코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니...” (3절 상). 이 말씀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악함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악함은 뿌리내릴 수 없는 모래 위의 집과 같고, 진노의 바람이 불어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반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이유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뿌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가 약한 사람은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반면 뿌리가 깊고 튼튼한 사람은 폭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한 것은 곧 악함의 열매입니다. 악한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지 않기에 그 뿌리는 썩어 있으며 언제든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지혜로운 척하고,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텅 빈 존재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의인의 삶은 다릅니다. 의인은 뿌리가 깊고,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의인의 뿌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으며, 결국 열매 맺는 계절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뿌리를 지켜 주십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영적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시련이라는 물을 통해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고, 세상의 헛된 가르

침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뿌리 깊은 의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생각과 악한 가치관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잠 12: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로 썩음 같게 하느니라

성경은 여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단지 외모나 성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존재가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우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썩음 같게 하느니라” (4절). 이 말씀

은 여인이 가정과 남편에게 주는 영향력을 얼마나 중대하게 보는지를 보여 줍니다.

‘어진 여인’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일>로, 이는 놀랍게도 ‘힘’, ‘능력’, ‘부’, ‘용맹’, 심지어는 ‘군대’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이 단어는, 오히려 성경이 여인을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로 보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인의 영향력은 때로 남성보다 더 깊고 넓게 작용합니다. 겉보기에는 남성이 가정의 기둥 같아 보일지라도, 실제로 그 집안을 지탱하는 힘은 여인의 품성과 태도, 인내력과 지혜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가정 안에서 어진 여인은 남편에게 있어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왕의 영광이자 자랑이며,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어진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그의 삶 전체가 존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됩니다. 여인이 주는 은혜와 인내, 섬김

과 덕망은 남편의 삶을 빛나게 하고,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 즉 남편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안겨 주는 여인은 성경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표현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존재라고까지 말합니다. 뼈가 썩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근본적인 무너짐과 생명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마음의 아픔이나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남편의 삶 자체를 병들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이처럼 여인이 주는 정서적, 영적 영향력은 남편의 뼈에까지 이를 정도로 깊습니다. 여인이 수치심에 빠지고, 스스로 실패자라 느끼며, 욕심과 불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분위기는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남편의 심령과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여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남편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인이 존귀함을 입을 때 남편도 영광을 입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여인의 가치를 외모나 사회적 성공으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특히 남편에게 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힘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욕을 끼치는 여인이 아니라, 면류관이 되는 어진 여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어떤 정서와 방향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진 여인은 면류관이 되며, 욕을 끼치는 여인은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잠 12:5]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궤홀이니라

[잠 12:6]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

원하느니라

[잠 12:7]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반영하며,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궤홀이니라” (5절). 여기서 ‘공직’이라는 표현은 <미쉬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는 ‘정의’, ‘공의’, ‘판단’, ‘율법’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공의와 뜻에 부합하는 생각, 즉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의롭고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참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반면, 악인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한 궤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은 “악인의 도모는 궤환이니라” (5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모’란 <타흐불라>라는 단어로, 지도나 조언, 계획을 뜻합니다. 즉, 악인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조언의 목적은 타인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궤환’(<미르마>)이란 말 자체가 ‘속임’, ‘기만’, ‘배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말과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은 아니었는지, 혹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희생시키려 한 적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6절 상)라고 하며, 악

인의 말이 결국 남을 죽이는 무기와 같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궤환한 자는 자신이 앞드러지게 됩니다. “악인은 앞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7절 상). 궤환로 세운 계획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좇던 그 발걸음은 힘을 잃고, 뿌리 없이 흔들리며 결국 무너집니다. 그런 자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남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앞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걸음은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져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잠 12:8]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은 지혜에 따라 칭찬을 받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8절 상). 이 구절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평가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똑똑함이나 계산 빠른 실용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 즉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삶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그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 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마땅히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궤환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비틀며 사는 사람은 ‘패려한 자’라 불립니다.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8절 하). 여기서 ‘패려한 자’는 히브리어 <아와>로, 뜻을 굽히고 비트는 자, 곧

‘불법을 꺾고 정의를 왜곡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교묘하게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드러나고 말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패려함’은 단순히 나쁜 성격이나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향해 왜곡된 판단과 거짓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뒤틀며, 정의로운 것을 부정의하게 만들고, 선한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나라에는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패려한 자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존경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말이나 행동, 혹

은 마음의 동기 가운데 왜곡되거나 비틀어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정직한 자를 칭찬하시고, 패려한 자를 멀리 가운데 두십니다.

[잠 12:9]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 12:10] 의인은 자기의 생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이니라

[잠 12:11]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좇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 12:12]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사람들은 비천하게 보이는 사람을 비천하게 여

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천하게 보여지는 사람은 실제로도 비천한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 때문에 남들의 눈에 비천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러합니다. 실상은 결코 비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비천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잠 12:9]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겉모습이나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비록 세상의 비천함을 받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종들, 곧 천사들을 부리는 자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는다’는 <칼라>라는 히브리어로, 이는 ‘모욕당하다’, ‘멸시당하다’, ‘불명예를 입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우

리에게는 하늘의 자존이 있습니다.

“[히 1: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이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들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높다 여기고, 화려하게 보이며, 멋있게 포장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음식이 찌꺼기인 자들입니다. 즉, 진정한 영적 양식도, 참된 생명도 그들 안에는 없습니다.

“[고후 6: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부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천상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나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천군을 부리는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잠 12:13]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의 최후는 언제나 실패와 절망뿐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계속해서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라면, 그것이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

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혹시 하나님 없는 길은 아닌지, 영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은 "[시 37:1]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의인에게도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시간을 결코 실패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과정을 통해 정결하게 되어갑니다. 그에게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과정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욥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절망은 끝입니다. 고난은 반복되고,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 인생은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왜 악인이 더 잘사는가'라는 의문을

깁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번영은 잠시 잠깐이며, 깊이 들여다보면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죄로 스스로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를 '입술의 허물'이라 말합니다. 잠언 12장 13절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페샤>이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며 반역적인 죄를 뜻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며,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입술로 지을 수 있는 죄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말, 거짓된 증언, 비판과 정죄의 언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교묘한 말들까지... 이러한 말들은 결국 자신이 던진 덫이 되어, 스스로를 옹아매게 됩니다. 그물에 걸린다는 것은, 마치 사냥꾼이 놓은 올가미에 새가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유익해 보이는 미끼에 이끌려 무심코 다가섰다가, 결국 그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나는 것처럼, 말의 미끼에 걸린 자는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입술의 허물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 전체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말은 곧 마음의 열매이며, 말은 씨앗처럼 뿌려져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결국, 말한 자 자신이 가장 먼저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입술을 살피야 합니다. 나는 지금 축복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괴와 정죄를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무너뜨리고 있는가?

결국,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입술과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무너질 때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고난이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의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 12:14]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성경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14절 상)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의 열매를 맺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는 데 큰 힘이 들지 않고, 수고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 말이 맺는 열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을 공장에서 좋은 물건과 불량품을 구분하듯 세심히 분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말을 걸러내지 않고 내뱉으면, 그것으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사용해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더러운 말이 불러오는 사고는 심각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말로 인해 배우자에게 큰 상처가 생기고, 자녀에게도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결국 당신 입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제는 어떠했습니까? 혹시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지 않으셨나요? 혹 배우자에게 “이 나쁜 놈아, 헤어져!”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놈이야!”라고 말하지는 않으셨나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당신 자

신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사랑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선포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선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말은 권세 있는 말입니다. 왕이 왕권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권세 있는 자가 선언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왕의 자녀이고, 왕에게도 권세가 있지만 왕의 자녀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권세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내뱉는 말에는 큰 권세가 없지만, 믿음과 권세를 담아 선포하는 말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잠 12: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이고, 자신의 행동과 능력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세상의 중심인 듯 살아갑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고, 그들의 권고를 기꺼이 듣습니다. 성경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더욱 완전해집니다. 쓴 말일지라도 달게 받는 자만이 미련함에서 벗어나 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말, 칭찬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곁에 머무르려 하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오히려 미련함을 키울 뿐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쓴 말을 환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쓴 말을 해 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진정한 동지가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달콤한 말보다 쓴 말에 더 귀 기울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분노를 드러내며 자만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쓴 말에도 감사하며 겸손히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잠 12:16]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곧바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고 견딥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1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쉽게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것은 미련함의 징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분노를 드러내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분노하지는 않겠지요? 대개는 누군가 나에게 불편한 말이나 비판을 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마음을 닫지 말고, 귀를 막고, 인내하며 참아야 합니다. 모든 수욕을 견뎌내는 참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참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마음과 모든 높아짐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 속에서, 비천한 자들과 함께하며 자신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로 그 낮아짐 속

에서 수욕을 참을 힘을 얻게 됩니다.

수욕을 참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사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보여주신 이 잠잠함과 인내는 우리에게 깊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수욕 속에서도 그분을 본받아 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 12:17]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잠 12:18]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 12: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미련한 자의 말은 마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은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고,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창과 같아 듣는 이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18절)는 말씀은 우리에게 말의 무서움과 동시에 말의 치료적 힘도 알려 줍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을 지녔는지 모른 채, 쉽게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신도 그 말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이며, 한마디 말이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17절)라는 말씀처럼, 진실과 의를 말하는 자의 말은 영혼을 살리고 공

동체를 세웁니다. 반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사람을 속이고 파괴합니다. 이러한 거짓말과 허황된 말들은 순간은 달콤해 보이나, 결국에는 허망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19절)고 기록합니다. 거짓말과 허황된 말은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순간적인 불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불러온 결과와 상처는 오래도록 남아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 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말이 사람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양약 같기를 바랍니다. 양약은 아픈 곳을 치유하고, 상처 입은 곳을 회복시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혼란을 잠재우며, 사랑을 전합니다. 그 말은 때로

는 쓴 약과 같지만, 결국 사람을 세우고 강건하게 만듭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자신의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노와 경솔함에 이끌려 말을 던지고, 그 말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를 찌르는 상처가 됩니다. 이런 경솔한 말로 인해 맺는 열매는 인생의 실패와 절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통해 맺는 열매를 늘 살피십시오. 말의 힘을 기억하며, 상대를 살리는 말, 진리를 전하는 말, 사랑과 격려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말이 사람의 마음에 양약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 12:20]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 12:21] 의인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임하지 아

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잠 12: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롭고 선한 척하지만, 내면에는 교묘한 꾀와 사기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잠12:20)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자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사기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이는 결코 당신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당신의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모든 사기꾼들의 한결같은 말은 “내가 당신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은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미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거짓 입술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사기꾼들은 거짓 입술을 가진 자들로서, 그 입술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가문을 더럽히며, 자신을 타락시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잠12:22)는 말씀은 그들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인이 됨을 분명히 합니다.

반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정직함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고,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가 속임으로 마음을 채울 때, 진실로 화평을 이루려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 차이가 바로 악과 선, 거짓과 진실의 근본적인 구별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악을 꾀하는 마음이 아니라, 화평을 의논하며 희락을 나누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참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 12:23]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무턱대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신중하게 다루며, 꼭 필요한 때에만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지혜임을 아는 태도입니다. 반면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거리낌 없이 떠벌리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까지도 무심코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미련함의 한 징표이며, 두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모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자칫 자만과 경솔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자신 또한 성장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무게를 잘 알고,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분별할 줄 압

니다. 그런 신중함과 절제가 깊은 깨달음과 분별력을 키우는 토대가 됩니다.

히브리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인 <아룸>은 ‘교활하다’, ‘간교하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가장 간교하다’고 표현하신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이 말은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즉, ‘슬기로운’이라는 말은 선과 악, 지혜와 교활함을 모두 내포하며,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담긴 말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공동체를 해치며, 결국 자신에게도 큰 해가 됩니다. 반면, 신중하고 정직한 말은 사람을 세우고 마음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와 같아서, 반드시 그 열매가 누군가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말이 위로와 격려가 되어 사람을 세

우는지, 아니면 상처와 혼란을 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말을 신중하게 다루는 사람만이 참된 지혜와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지혜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함부로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침묵과 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입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슬기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잠 12:2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부지런함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일상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원리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

리가 감당할 능력을 이미 갖추었기에 주신 권한
이자 책임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기지 않듯,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에 맞는
소명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
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
지런함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쉬지 않고 하나
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며 백성의 문제를 해결했
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
며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했고, 왕이 된 후에도
늘 자신과 백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바울은 복음
을 전하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치의
게으름 없이 전도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삶은 부지런함이 얼마나 큰 축복과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섬기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지혜를 가집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남의 지배를 받으며 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부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지런함은 책임감을 동반하며,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져 주어진 소명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부지런함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은 소명을 진심으로

로 사랑하며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온전히 펼치고 있는가?

부지런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길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지런히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 12:25]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부지런함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일상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원리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능력을 이미 갖추었기에 주어진 권한이며 책임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키지 않듯,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에 맞는 소명과 능력을 허락하셨기에, 그 일을 수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부지런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 쉬

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며, 백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고, 왕이 된 후에도 늘 자신과 백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치의 게으름 없이 전도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삶은 부지런함이 얼마나 축복과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섬기며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지혜를 가지게 되지만,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남의 지배를 받으며 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인 부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와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지런함은 책임감을 동반하며,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부지런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져 주어진 소명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부지런함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소명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온전히 펼치고 있는가?

부지런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길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부지런히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풍성한 축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 12:26]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잠 12:27]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 12:28]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웃을 돕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연스럽게 이웃의 인도자가 되며, 그 길을 함께 걷는 이들에게 빛과 희망이 됩니다. 반면, 악인은 자기 중심적인 행위로 인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들의 소행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길이며, 참된 삶에서 멀어져 가는 길입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볼 때, 남을 도우며 그들의 삶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처지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어쩌면 악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스스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그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존재가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모든 사람이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악한 길을 걷는 이들도 존재하며, 그들은 종종 사기와 거짓으로 타인을 상처 입힙니다. 그런 이들은 결국 자신의 삶마저 안정시키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지런히 자신의 삶과 이웃을 세우며, 공동체의 등불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인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게으름은 의인의 길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으며,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에 결국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부귀와 형통은 부지런한 데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육체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영적인 태도를 포함한 전인적 삶의 자세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립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부지런히 다스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게으름을 버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께서는 부지런히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하시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도와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길은 생명이 가득한 길입니다.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길에는 사망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결국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며, 참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삶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의인과 악인, 부지런함과 게으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걸음을 돌아보십시오. 맡겨진 삶과 사명 앞에서 부지런히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머물러 자신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걸으며 부지런

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 갈 때, 그 삶은 축복과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욱 확장되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

[잠 13:1]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 13:2]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지혜로운 자의 반대 개념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 1: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귀가 얇아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1절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거만하다' <루츠>는 말은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만한 자는 교만한 자이며, 무례한 자입니다. 이들은 남의 비판을 거부하고 책망을 싫어합니다. 혹 당신이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남의 비판을 꺼려한다면, 당신은 거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당신은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만한 자는 불성실하며,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결국 다른 사람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거만한 자를 가리켜 "... 마음이 궤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2절 하)라고 말했습니다. '궤사하다'는 배반하거나 사기 치는 것을 말하며, '강포를 당하다'는 '폭행을 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말을 듣기를 꺼려하고 도무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

으려 하는 거만한 자는 이처럼 누군가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말 듣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성품 때문에 결국은 화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잠 13:3]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의 입술, 즉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 삶의 방향과 심리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은 "사람의 복이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며, 언어가 지닌 창조적인 힘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경험을 좌우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지혜롭게 입을 관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만, 입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심리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겪게 됩니다.

잠언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3:3)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크게 벌린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포체 세파타이프>로, 직역하면 '자신의 입술을 벌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무분별하고 경솔하게 말하는 태도를 비유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충동성과 자기 통제 부족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쏟아내거나,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행동은 관계의 손상을 가져옵니다. 마치 아무 곳에서나 하품하는 것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듯이, 무례하고 경솔한 언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비존중감을 안겨주어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솔한 말은 종종 후회와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녕을 해치기도 합니다. 잠언 10:19은 "[잠 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합니다. 이는 '제어하는 자' <호세크> 즉 '붙잡고 있는 자'가 심리적 성숙과 지혜의 중요한 지표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말에 대한 주의 깊은 성찰과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과 타인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2는 "[약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고 하여, 언어의 통제가 곧 자아 통제와 온전한 인격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과도 연결됩니다.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더 높은 통제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다윗 왕은 이러한 언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입술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빼놓지 않고 간구했던 기도는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41:2-3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141: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 141:3]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쉬타 쇼메르>는 ‘경비원을 두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입술의 문’ <델레트 세파타이>는 언어가 외부로 나가는 통로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지혜로운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그의 깊은 내적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내적 일관성과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말을 조절하려는 노력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잠언 18:21은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리라”고 말하며, 혀의 강력한 영향력을 경고합니다. ‘권세’ <야드>는 ‘손’ 또는 ‘힘’을 의미하여 혀가 가진 실제적인 힘을 강조합니다. 이는 언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정과 관계, 심지어 현실까지도 형성할 수 있는 창조적 힘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10은 "[벧전 3: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환을 말하지 말고"라고 권면합니다. '혀를 금하여' <크라테토 하그롯>은 '혀를 붙잡아 매다'는 의미로, 언어의 엄격한 통제를 요구합니다. 이는 윤리적 언어 사용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거짓말이나 악한 말은 관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36-37에서 예수님께서 "[마 12: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마 12: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경고하시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닌 책임감과 도덕적 무게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

각하고, 덕을 세우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려 깊은 의사소통은 건강한 자아상과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입술은 복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리적 평안과 성숙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잠 13:4]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고 부지런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나태한 자로, 매사에 열심히 행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먼저 일어나는 법이 없고, 놀기를 좋아하며,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으로 직접 하기보다 말로만 모든 것을 다하려 하고, 때로는 입을 여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 극단적인 게으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게으름이 영혼을 멸망시키

려는 마귀의 역사와 연관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지런하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5:17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부지런하심을 증거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만한 게으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길 원한다면 이는 모순입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이 사장으로부터 예뻐를 받고자 하는 것과 같아서, 이는 참으로 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4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 <아첼>은 '나태한 자', '굶든 자'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육체적 활동의 부족을 넘어 의지와 동기

부여의 결핍을 암시합니다. 반면 '부지런한 자' <하루심>은 '열심히 일하는 자', '경작하는 자'를 뜻하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나' <에인>, 즉 아무것도 소유하거나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는 노력과 행함이 없는 소망은 심리적으로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루세프>, 즉 '풍요로워진다', '살 찐다'는 의미로, 그들의 노력과 행함을 통해 삶에서 풍족함과 만족을 얻게 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보람과 내면의 충만함, 즉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며, 부지런함은 그분의 창조 질서와도 부합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부지런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실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거짓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풍족함을 누

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잠 13:5]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잠 13:6]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거짓말'에 있습니다. 악인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지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잠언 13:5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나' <사네>는 단순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 '혐오하다', '증오하다'는 깊은 감정을 나타냅니다. 의인은 거짓 자체를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내적 특성을 지니는 반면, 악인의 행위는 '흉악하여' 결국 '부끄러운 데' 곧 수치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개념은 마귀의 교묘한 유혹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8:44에서 예수님께서서

는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마귀의 본질이 거짓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설 수 없으며,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이 곧 마귀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며,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 지어낸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마귀의 것이며,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거짓말은 일시적인 문제 회피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심리적, 관계적 손상을 초래합니다. 거짓말은 인지 부조화를 일으켜 내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한 더 많은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한,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의 수치심과 죄책감은 자존감을 크게 훼손하고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 측면에서도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하며, 이는 인간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피해가 예상되거나 손해를 볼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정직함만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잠언 13:6은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공의' <체데크>는 '의로움', '정의', '정직함'을 의미하며, 이는 '행실이 정직한 자' 곧 흠 없고 온전한 길을 가는 자를 보호합니다. '보호하고'는 곧 지키고 보존한다는 뜻으로, 정직한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악'은 불의함, 악함을 의미하며,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는 거짓된 삶의 필연적인 파멸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비록 당장의 손실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의로움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잠 13:7]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잠 13:8]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은 우리 시대에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많은 이들에게 재물은 또 다른 '신'처럼 여겨지며, 하나님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4).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재물의 강력한 힘을 인정합니다.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잠언 13:8)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재물이 마치 생명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음을 인정하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자신이 재물이 많다고 뽐내기도 합니다. 재물이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부한 체 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잠언 13:7)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부한 체 하여도'는 히브리어 <미트아셰르>로 '스스로 부자처럼 행동하다', '부자로 가장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과시적 행동은 내면의 결핍과 불안감을 감추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인정과 물질적 소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 결국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부요함은 세상의 재물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스스로 부유한 척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 보여도 실상은 많은 재물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10에서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부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적인 풍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 그리고 영원한 소망은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만족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과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부요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요함입니다.

[잠 13:9]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악인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빛'의 본질에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잠언 13:9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에게에는 참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요한복음 8:12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요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빛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만 비추어지며, 그들의 삶을 환하게 밝힙니다. 이 빛은 영원하며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시편 36:9은 "[시 36:9]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라고 하여, 생명과 빛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을 섬기는 자는 이러한 참된 빛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빛이라고는 '등불' 뿐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영원한 광명을 상징한다면, '등불'은 세상의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등불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꺼지고 맙니다. 잠언 24:20은 "[잠 24:20]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등불은 마치 물질적인 성공, 세상적인 명예, 혹은 일시적인 쾌락처럼, 잠시 동안은 밝게 빛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질 허무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6:19-20에서 예수님께서 "[마 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 6:20] 오직 너

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
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
처럼, 세상의 등불은 언젠가 꺼질 것입니다.

이러한 빛과 등불의 차이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영원하고 참된 빛을 누리
는 길인 반면, 세상을 섬기는 삶은 일시적이고
허무한 등불에 의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무엇
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 비출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
지 않는 참된 생명과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잠 13: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
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를 상대하는 것은 언제나 다툼을 초래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굳
게 믿으며,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
입니다. 반면에 권면을 경청하는 자와 함께할 때

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됩니다. 혹 당신은 교만한 자이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교만한 자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새겨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새겨듣는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만은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하찮게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무시당하는 기분을 안겨주어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합니다. 잠언 13:10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명확히 경고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에는 더 큰 다툼과 불화를 낳게 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새겨듣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배우려 합니다. 잠언 12:15은 "[잠 12:15] 미련한 자

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합니다. 권면을 듣는다는 것은 겸손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비판적인 피드백까지도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에 신뢰를 쌓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함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2:3은 “[롬 12: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지혜와 이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19은 “[약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

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가르칩니다. 말을 아끼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려는 노력이 관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셋째, 비판과 조언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잠언 9:9은 “[잠 9:9]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듭니다.

혹시 당신은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배울 때, 우리는 다툼 없는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참된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 13:11]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많은 사람이 재물을 쉽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서 때로는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즉 쉽게 얻은 재물은 결국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애써 손으로 수고하여 모은 재물은 늘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죠. 혹 당신은 쉽게 재물을 얻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재물을 얻는 방식의 정직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잠언 13:11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히브리어 <호온 메헤벨>로, '헛된 것에서 온 재물', 즉 부정한 방법이나 요행으로 얻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물은 마치 거품처럼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르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는 땀 흘리지 않은 소득은 결국 남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쉽게 얻은 돈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충동적인 소비나 무모한 투자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심리적 불안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반대로 '손으로 모은 것'은 히브리어 <코베츠 알 야드>로, '손으로 모으다', '수고하여 쌓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정직한 노동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이 '늘어간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의 기반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으로 직접 일하여 얻는 수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얻는 것에 복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10은 "[살후 3: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하여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19-20에서 "[마 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물을 모으는 방식뿐만 아니라, 재물의 근원과 그 목적 또한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정직한 수고로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한다면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재물을 얻으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직한 땀과 수고를 통해 재물을 모으는 지혜를 택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지속적인 풍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은 어떤 방식으로 얻어지고 있습니까?

[잠 13:12]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더디 이뤄질 때,

우리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마침내 이뤄지는 순간, 마치 생명이 되살아나는 듯한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깊은 경험을 꿰뚫어보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잠언 13:12)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세상적인 소원의 성취만을 넘어, 우리의 영적인 소망이 이뤄질 때 주어지는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소원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6:35에서 "[요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

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상징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소망이 더디 이뤄지는 경험은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며, 때로는 무기력감이나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그 소망의 성취를 통해 존재의 의미와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소망은 아무리 이뤄져도 다시 새로운 갈증을 유발하며,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생명나무'로 비유된 궁극적인 만족과 생명이 세상 소망의 성취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나무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면의 깊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덧없는 소망에 매달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결코 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소망은 무엇이며, 그 소망은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나요?

[잠 13:13]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멸망하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숨 쉬며, 단순히 책 속에 갇힌 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곁에 두며 끊임없이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119:105은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

다”라고 고백하듯이, 그들에게 말씀은 삶의 나침반이자 인도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말씀을 거역할 때 초래될 영적 위험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1:22은 “[약 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며,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심지어는 무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지 않고 전혀 읽지도 않으며,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좋아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며, 잠언 13:13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고 경고합니다. ‘패망할 것이요’라는 표현은 단순히 불행을 겪는 것을 넘어, 완전히 파멸에 이르

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영적인 파멸을 경험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26-27에서 예수님께서는 "[마 7: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 7: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시며,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은 삶의 비참한 결말을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옛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의 길이며,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잠 13:14]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 13:15]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 13:16]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의 말은 주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미련한 자는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많은 이들이 당신의 말을 통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도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 특히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연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 (잠언 13:14)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들의 말은 듣는 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절망 속에서 벗어나

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건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생명의 샘' <마코르 하이임>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을 뜻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교훈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지속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말은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관계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말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며,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중심적이고 즉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이는 언어의 파괴적인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언어 습관이 개인의 내면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은 낮은 자존감, 충동성,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잠언 4:23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야고보서 1:5은 "[약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셋째, 사랑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29은 "[엡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와 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 되듯이,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누구를 살리고 있습니까?

[잠 13:17]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신은 나라에 재앙을 가져다주지만, 충성
된 사신은 나라에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입니다. 만일 우
리가 악한 사신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성된 사신이
라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굳건하
게 설 것입니다.

성경은 사신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
합니다. 잠언 13:17은 "악한 사신은 재앙에 빠져
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

다. 여기서 '악한 사신'은 히브리어로 <말아크 레사>로, '악한 메신저' 또는 '사악한 대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결국 나라에 해를 끼치고, 심지어 스스로도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태만이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악한 사신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며, 이는 내적 갈등과 외부와의 불신을 야기하여 관계 파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성된 사신'은 히브리어 <말아크 에무나>로, '신실한 메신저' 또는 '믿음직한 대사'를 뜻합니다. 이들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내는 자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나라에 '양약' <마르페>이 됩니다. '마르페'는 '치료', '치유', '회복'을 의미하며, 충성된 사신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유익을 가져다주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5:20은 "[고후 5:20]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충성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견고함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사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정확한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디모데후서 2:15은 "[딤후 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둘째, 성실한 수행자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골로새서 3:23은 "[골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셋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하

나님 나라 전체의 유익과 회복을 추구합니다. 로마서 12:10은 "[롬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권면하며,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사신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악한 사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충성된 사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신이 되고 싶습니까?

[잠 13:18]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를 기꺼이 듣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고, 다른 이들에게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욕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훈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훈계에 대한 태도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잠언 15:32은 "[잠 15:32]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권계를 듣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영혼, 즉 자신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경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발전 없는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반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더욱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훈계를 거부하는 태도는 종종 자기애적 성향이나 경직된 사고방식과 연결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타인의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방어기제는 학습과 성장을 방해하고, 대인 관

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결국,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타인의 신뢰와 존경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궁핍함과 수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훈계를 겸손히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열린 마음과 성장 지향적 사고방식의 증거입니다. 잠언 9:9은 "[잠 9:9]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 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권면합니다. 훈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맹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하며,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는 지혜를 더하고, 이는 결국 삶의 궁핍함을 해소하고 존경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로 훈계를 듣고 있나요? 훈계를 듣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며, 궁극적으로 당신을 존경받는 자리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귀 기울여 듣고, 겸손히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잠 13:19]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더디 이뤄질 때 마음에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잠언 13:19은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고 말하며, 미련한 자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합니다. 이들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악을 버리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소원 성취가 악에서 떠나는 길에 있음을 알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실천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소원이 성취되는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회피합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걷지 않고 죄를 계속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자기 파괴적인 패턴과 관련이 깊습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가치를 희생하면서 당장의 쾌락이나 익숙한 악 습관에 머무르려는 즉각적인 만족 추구하고 변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가계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보혈과 회개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 좋은 길, 이 확실한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련한 자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이 길을 거부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은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남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만 손해를 보며,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미련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저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로 인해 병 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질병, 가난, 상처, 그리고 고통은 미련한 자에게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악한 행위와 잘못된 선택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영적인 저주가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싶다면, 보혈과 회개를 행하십시오. 보혈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보혈을 열심히 뿌리십시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곳에, 악한 세력이 모여 있는 곳에 뿌리십시오. 당신의 심령에 뿌리고, 가족에게 뿌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남을 비판하기보다 당신 스스로를 비판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고, 당신에게 붙어있는 저주가 떠나가며, 당신의 저주가 빛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성찰과 책임 수용은 심리적 치유와 영적 자유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잠 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신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냐, 아니면 미련한 자들이냐? 대체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당신 역시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면, 당신 또한 미련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7:17은 "[잠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고 말하며, 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암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부담이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잠언 13:20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동행하다' <할라크>는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을 넘어 '생활하다', '관계 맺다'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해를 받느니라' <로 예라>는 '고통을 당하다', '나빠지다'는 뜻으로, 미련한 자와의 교제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경고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를 선호합니다. 이는 어떠한 부담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미련한 행동과 사고방식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부추기기도 하여, 불편함 없이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33은 "[고전 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

니”라고 경고하며, 좋지 않은 교제가 인격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성장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는 갈수록 더욱 미련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해서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은 “[잠 1:5]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하여, 지혜가 단순히 학습을 넘어 관계 속에서 더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지식을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올바른 부모와 함께 성장한 자녀가 더욱 올바른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그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 방식, 무책임한 행동, 단기적인 만족 추구 등의 특성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인지 편향을 강화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 그릇된 길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교제는 성장 마인드셋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역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8:7은 "[잠 28:7]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방탕한 자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하여 올바른 교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 주변에 미련한 자들이 많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영적인 '똥 통'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오래도록 머무르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무엇이 좋다고 그 '똥 통'에 계속 머

무르려고 합니까?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미련한 자로부터 최대한 빨리 떠나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은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여, 악인들과의 분리를 복 있는 삶의 시작으로 제시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과 관계는 당신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잠 13:21]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상하게도 재앙은 죄인의 몫이고, 복은 의인의 몫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해 놓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재앙이 자주 임한다면, 당신은 어쩌면 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이는 늘 듣는 말입니다. 죄인은 항상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왜

당신이 "나는 죄가 없어요"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재앙이 당신에게 임하는 것을 원하시나 봅니다. 그것이 소원이라면 당신은 정말로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복의 밀접한 관계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잠언 13:21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고 명확히 선포합니다. 여기서 '재앙' <라아>는 '악함', '불행', '재난'을 의미하며, '죄인' <하타>는 '과녁을 벗어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를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불행과 재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 <차디크>은 '정의로운 자', '올바른 자'를 의미하며, 그들에게는 '좋은 일' <토브>이 '보응한다' <살렘>, 즉 '완전하게 되돌아온다', '깊아진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의인에게는 복으로, 죄인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태도는 성경 곳곳

에서 발견됩니다. 요한일서 1:8은 "[요일 1:8]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사야 59:2은 "[사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본 원인임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몫이 결정됩니다. 잠언 28:13은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는 일시적인 안도를 줄 수 있으나, 결국은 영적인 형통함을 가로막습니다. 반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합니다.

당신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정말로 소원이라면, 죄를 부정하는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복과 생명을 원한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의 몫, 곧 좋은 일과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립니다.

[잠 13:22]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잠 13:23]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참으로 신기하게도, 악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에게로 갑니다. 악인의 재물은 아무리 쌓으려 해도
 항상 쌓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

인의 재물을 빼앗아 의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잠언 13:22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인' <토브>은 '좋은 자', '의로운 자'를 의미하며, 그들의 '산업' <나할라>는 '유산', '상속 재산'을 뜻합니다. 선인은 그 정직하고 의로운 삶의 결과로 자손 대대로 이어질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반면 '죄인' <하타>의 '재물' <호온>은 결국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차판 라차디크>고 말씀합니다. '차판'은 '숨겨두다', '축적하다'는 의미로, 악인이 모은 재물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인에게로 가게 됨을 강조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그것이 온전히 그의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 의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잠언 28:8은 "[잠 28:8] 번리로 이익을 얻으려고 자

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쌓는 것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욥기 27:16-17은 악인의 재물이 많아도 “[욥 27:16] 그가 은을 흙 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 같이 준비 할지라도 [욥 27:17]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나눌 것이니라”고 하여, 악인의 재물 축적이 결국 의인의 몫이 됨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으며, 그 재물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가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물질적 부요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속과 자자손손 이어지는 축복이 약속됩니다. 반면, 불의하게 재물을 탐하는 악인에게는 그 재물이 결국 사라지고, 오히려 의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정직

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부요함과 후손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을 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 13: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
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

‘초달’은 ‘매’를 뜻합니다.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경은 매를 아끼는 부모를 가리켜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잠언 13:24)고 표현합니다. 이는 자녀를 미워하기 때문에 훈육에 필요한 매를 아끼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근심히 징계합니다. 여기서 ‘근심히 징계한다’는 것은 징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체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꾸준히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든 형태의 훈육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부

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7은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하여, 자녀 교육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적절한 훈육과 명확한 경계 설정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무분별한 허용과 징계의 부재는 자녀에게 자기 통제 능력 부족과 책임감 결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며, 장기적으로는 자존감 문제나 비행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징계는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건강한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 강인함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매'로 상징되는 징계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의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서 그들의 영원한 유익과 올바른 성장을 추구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필요할 때 적절한 훈육을 통해 자녀가 지혜와 분별력을 갖춘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잠 13:25]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

의인은 배부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배부른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배가 곱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배고픈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의 것을 탐

내는 자 역시 악인일 가능성이 큼니다.

성경은 의인의 만족과 악인의 결핍을 분명히 대조합니다. 잠언 13:25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식하다'는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넘어, '완전히 만족하다', '충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인은 상황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적인 만족을 누립니다. 반면 악인의 배는 '주린다'고 표현되는데, 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적, 심리적 갈증과 공허함을 나타냅니다. 악인의 탐욕은 끝이 없어, 늘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유하면서도 더 부유한 자를 부러워하는 자는 항상 배고픔을 느낍니다. 이는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 현상과 연결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타인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불평과 불만을 낳고, 내

면의 평화를 맛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배고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나눔'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권면하며, 그렇게 할 때 더욱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6:38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로만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부유함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진정한 부자란 물질적인 재산이 많은 사람을 넘어,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눔을 통해 기쁨을 얻고, 타인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발견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풍요를 누립니다. 이러한 부유한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잠언서 14장 =====

[잠 14: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집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남성도 가정을 굳건히 세우고, 미련한 남성은 가정을 허물어뜨립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언급하는데, 현숙한 여인은 곧 지혜로운 여인을 뜻합니다. 잠언 31장 중반 부분부터 끝부분까지에 걸쳐 현숙한 여인의 구체적인 모습과 역할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잠언 14:1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물을 넘어, 가정, 가족 공동체, 나아가 관계와 삶의 터전 전체를 의미합니다. '세운다' <바나>는 가정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뜻하며, '허문다' <하라쓰>는

부정적인 언행과 태도로 가정을 파괴하고 와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가정을 돌보고, 구성원들을 세우며,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잠언 31장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그녀는 재정적으로 현명하고 (“[잠 31:16] 그는 밭을 살피보고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며”), 부지런히 일하며 (“[잠 31: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잠 31:14] 무역하는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 오며 [잠 31: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리고 “[잠 31:27]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가족을 돌보고 베푸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잠 31:20]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잠 31:21]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올지라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녀의 언어는 지혜와 인애로 가득하며 (“[잠 31:26] 입

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그 혀에는 인애의 법이
있도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잠
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
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러한 특성들은 가정을 굳건히 세우
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녀의 지혜는 가
정의 물질적인 안정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인
건강까지 책임지는 전인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행동
으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즉흥적인 감정
표현, 무책임한 재정 관리, 가족 구성원과의 불
화 유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정 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안
정감을 해치며, 결국은 가정을 파괴에 이르게 합
니다.

우리의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자,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고 지키
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잠언 24:3-4은
“[잠 24:3]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
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잠 24:4]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가정이 단순한 힘이나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이라는 영적이고 내적인 자원으로 견고해지고 풍요로워짐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자입니까? 우리는 모두 현숙한 여인, 즉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견고히 세우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 14:2]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문장은 거꾸로 읽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2은 “정직하게 행하

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행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강조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직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다니엘서 6:26은 "[단 6: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외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라고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만일 당신이 정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께 선하게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패역한 자'입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히브리어 <네호즈 데라카브>로, '자기 길을 굽게 하는 자', 즉 비뚤어진 길을 걷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시편 10:4은 "[시 10:4]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마음을 묘사합니다.

정직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시편 15:1-2은 "[시 15: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시 15: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으로 정직함을 꼽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을 드러내는 거울임을 기

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역하여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까?

[잠 14:3]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잠 14: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잠 14:5]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미련한지 지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3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입에서 미련한 말들을 쏟아내고, 결국 스스로 매를 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혜로운 말 한 마디는 풍성한 복을 가져다주지만 미련한 말 한 마디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결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감출 수 없습니다. 입술은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34은 "[마 12: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보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샤마르>로, '지키다', '주의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혜롭지 못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말이 우

리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차라리 입이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미련한 말을 내뱉는 입 때문에 안 좋은 결과만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는 바가 없습니다. 입이 있어야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빗대어 "[잠 14: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구유가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수고도 없다는 의미지만, 소가 주는 생산적인 힘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과 생산적인 관계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으로 '신실한 증언'만을 하길 원합니다. 잠언 14:5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

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비록 진실을 밝히는 것 때문에 그 어떠한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잠언 6:16-19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중에 “거짓말하는 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25 또한 “[엡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권면하며 진실된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과 관계, 그리고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지키고,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며, 신실한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 14:6]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
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잠 14:7]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
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잠 14:8]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
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
이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얻으려고 아무리 애쓸지라도 쉽게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죠. 이는 거만한 자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결코 지혜를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쉽게 얻습니다. 잠언 14:6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 14:7]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총명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진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 없이 말하고, 그들의 말은 오히려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33은 “[고전 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경고하며, 좋지 않은 교제가 우리의 인격과 판단력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합니다.

미련한 자는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며,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4:8은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 <아룸>는 ‘교활하다’, ‘영리하다’는 의미와 함께 ‘분별력 있는 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들의 지혜는 곧 ‘자기

의 길을 아는 것' <야다 다르코>, 즉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이벨렛 크실림>은 '속이는 것' <미르마>, 즉 '기만'과 '사기'를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속이고 그릇된 판단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여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교만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명철한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 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지식을 흡수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하고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잠 14:9]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심상하게 여깁니다.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지은 죄에 대해 심상하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매우 정직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정직하게 치르는 자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 14:9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심상히 여겨도'는 히브리어 <아리츠 아삼>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죄를 비웃다', '죄를 비웃듯이

다루다' 또는 '죄를 가볍게 여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하찮게 생각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도덕적 둔감성과 자기 기만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여, 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8-32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도 "[롬 1:32]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고 말하며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매우 정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을 정직하게 치르는 자입니다. 이는 정직한 자기 성찰과 책임감의 발현입니다. 시편 32:5은 "[시 32:5] 내가 내 죄를 여호와께 아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 하셨나이다(셀라)”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라촌>은 '호의', '기쁨', '은총'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축복이 정직한 자에게 임함을 나타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걸을 것 인지를 결정합니다. 잠언 28:13은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 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정직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와 회복,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심상히 여기며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잠 14:10]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오직 본인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고통을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잠언 14:10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 내면의 깊이와 고유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만 주변 사람들이 미워지게 되고 그

들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공감의 한계'와 '자기 위로의 필요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타인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맥락, 가치관, 그리고 과거 경험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서 완벽한 위로와 해결책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기대가 좌절될 때 더 큰 실망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실망과 상처를 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편 42:5에서 "[시 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도우시는 얼굴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듯이,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외부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면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

고 다스리며, 건강한 방식으로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신만의 치유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잠언 25:20은 "[잠 25: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는 기운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고 말하며, 부적절한 위로가 오히려 상처를 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마음의 즐거움 역시 타인이 온전히 참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이를 가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풍요로움을 스스로 누리고,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히 나누되,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얻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만족입니다. 빌립보서 4:7은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우리만이 온전히 알 수 있는 심오한 영역입니다. 타인의 한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내면의 고통을 다스리며, 궁극적인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더욱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잠 14:11]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합니다. 악한 자의 집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도우시기에 그들의 집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11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하겠고'는 히브리어 <니흐라베>, 즉 '황폐하게 되다', '파괴되다'는 의미로, 악인의 삶과 가정이

결국은 무너지고 황폐해짐을 나타냅니다. 반면 '흥하리라' <야프리흐>는 '번성하다', '꽃피우다', '번영하다'는 뜻으로, 정직한 자의 장막(집)이 번성하고 풍요로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을 넘어, 영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견고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돕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시편 7:11은 "[시 7:11]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여,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선택이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거나 거두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잠언 28:25은 "[잠 28:25]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함을 얻으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

에게 주어지는 풍족함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시편 5:12은 "[시 5:12]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라고 하여,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정직한 자의 집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번성하고 흥하게 됩니다.

결국, 집의 흥망성쇠는 재물이나 세속적인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즉 정직함과 악함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무엇을 기반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우심을 받는 정직한 집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악함으로 인해 망하게 될 집입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우리의 집, 곧 우리의 가정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잠 14: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

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 14:13]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잠 14:14]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 항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무슨 일을 시행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4:12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경고합니다. '바르나' <야샤르>는 '곧은', '정당한'이라는 의미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어진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을 시행

해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일이 잘못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선입견이 함께 작용하고, 우리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깨끗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여과기가 더러울 때 여과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물이 더럽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깨끗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욱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1:16-17은 "[사 1: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기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사 1:17]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며 내면의 정결함을 통한 올바른 행

실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통해 일을 시행할 때, 그 일은 보다 완전하며 보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하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행하게 될 때, 성공하는 듯 보일지라도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에는 웃음과 슬픔이 함께 합니다. 잠언 14:13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쾌락과 성공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며, 그 끝에는 종종 허무함과 근심이 따라옵니다. 이는 세상적인 만족이 결코 온전한 평안을 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는 웃음은 항상 웃음으로 끝날 뿐입니다. 즐거움은 항상 즐거움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슬퍼지거나 우울해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영적인 불균형이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주어집니다. 잠언 14:14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 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히브리어 <나쉬가르>, '뒤틀린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그들의 '행위' <드라카> 즉 '길'은 결국 악한 보응을 가져옵니다. 반면 '선한 사람' <토브>은 그의 선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결과에 순복해야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만족해야 합니다.

[잠 14:15]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 14:16]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 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 14:17]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 14:18]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잠 14:19]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습니다. 이는 귀가 얇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귀가 얇고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귀가 얇지 않기 때문에 쉽게 행동하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잠언 14:15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지은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마치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며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잠언 14:16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노하기를 속히 합니다. 화를 잘 내고, 쉽게 분노하며,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잠언 14:17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중에는 악한 계교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다 악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페타>은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고, 너무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쉽게 속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이런 사람은 부지중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하고 순진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잠언 1장 22절에는 "[잠 1: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페타>는 단순하고 순진하여 쉽게 속는 자, '거만한 자' <루츠>는 '경멸하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교만하고 무례하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자' <크실>는 지식을 미워하고 중요한 문제를 놓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여러 가지 사건에 마음을 두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지 않으며, 눈의 초점이 흐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혹 당신이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남의 비판을 꺼려한다면 당신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 곧 악인으로 취급됩니다. 잠언 14:18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

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삼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자신의 유산이나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자신의 면류관, 즉 영광과 권위로 삼습니다. 결국 악인은 선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한 악인을 불의한 자로 여기셨으니, 그들이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19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의인과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과 지위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잠 14:20]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 14:21]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자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현실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미워할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이웃조차 그들을 따돌립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가 일부러 가난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잠언 14:20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고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재물이라는 외적 조건이 인간 관계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원래 만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찌 가난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가

난한 자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9은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난한 자를 위해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처럼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부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부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부요한 사람에게는 그 부요함 때문에 친구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비록 세상 친구는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친구 되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 14:21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이 바로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잠언 11:25은 "[잠 11: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는 자입니다. 이러한 나눔은 단순히 외부의 빈곤을 채우는 것을 넘어, 나누는 자의 영혼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잠 14:22]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선과 악의 도모: 인자와 진리의 길 당신은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 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은 선한 길이 아닙니다. 잠언 14:22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고 명확히 대조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호쉐베 레아> 인데, 이는 '악을 꾀하는 자', '재앙을 계획하는 자' 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길이 명백히 '잘못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도덕적,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 났음을 뜻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악을 도모 하는 마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내면 의 불안과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행동 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외면하는 자기 합리 화는 죄의 굴레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

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헤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 '자비', '언약적 신실함'을 의미하며, '진리' <에메트>는 '진실', '확실함', '신뢰성'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의 길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궁극적으로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6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 자체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도모하는 길은 사망과 분리를 가져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은 선하며 진리이자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우리의 존재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진정으로 복되고 생명 있는 삶을 원한다면, 선을 도모하고 예수님 안에서 인자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잠 14: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수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도 보상이 주어지죠. 하지만 입술만 수고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궁핍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잠언 14:23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더욱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있어도 잡담만 하고 앉아 있으면 가난하게 된다." (잠언 14:23,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은 노동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수고' <콜 에체브>는 '모든 고통', '모든 노고'를 의미하며, 이는 땀 흘리는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수고에는 반드시 '이익' <케멜> 즉 '결실', '성과'가 따른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원칙으로, 갈라디아서 6:7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여 수고에 대한 보상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반대로 '입술의 말' <디베르 세파타임>은 실제적인 행위 없이 오직 말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비유합니다. 이는 헛된 약속, 공허한 계획, 혹은 게으른 변명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입술의 말'은 결국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궁핍' <마흐소르>은 '결핍', '부족', '가난'을 의미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잠언 28:19은 "[잠 28:19]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심하리라”고 하여 게으름과 궁핍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과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만 가득 찬 삶은 자기 효능감을 저하시키고, 실제 성취 경험의 부재로 인해 자존감마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수고라도 꾸준히 행하고 그 결과로 이익을 얻는 경험은 긍정적인 강화로 작용하여 더욱 적극적인 행동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성취감을 통한 동기 부여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입술의 수고를 넘어 손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익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말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수고의 열매로 채워져 있습니까?

[잠 14:24]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재물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은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재물에 비할 만한 우상이 그리 많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존재이기에, 재물을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잃고 말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10은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

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이 있습니다. 잠언 14:24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물' <오세르>은 '부', '부요함'을 의미하며, '면류관' <아타라>는 왕의 면류관처럼 '영광', '명예',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소유한 재물은 그들에게 영광과 존경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는 반면,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 <이벨렛 크실림>이라고 지적됩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저 어리석음의 결과일 뿐 아무런 영적 가치나 진정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재물은 세상의 면류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물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천국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세우십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충만한 재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더럽

고 추악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물을 취할 자로 세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11은 "[눅 16:11]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말씀하며, 세상의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청지기 직분과 연결됨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관리할 때, 그 재물은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소유하되, 재물에 소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은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알고 겸손하게 사용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재물을 통해 영적인 풍요와 진정한 만족을 얻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은 지금 당신의 면류관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입니까?

[잠 14:25]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니라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계명은 수많은 계명 중 핵심 중의 핵심인 십계명 중 하나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계명은 613개에 달하는데, 그 방대한 계명들이 단 10가지로 함축되었다는 것은 이 거짓 증언에 대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0:16은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 증언을 밥 먹듯이 자주 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서 하루를 보낸 적이 없을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짓 증언으로 가득 차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나도 거짓말을 하고, 모두가 거짓말로 살아가니 거짓말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

아가는 듯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의 근원을 마귀에게 두며, 거짓된 삶의 결과를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8:44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근원적인 악입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은 일시적인 이득이나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거짓말은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여 내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한 더 많은 거짓말을 낳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는 자아 존

중감의 저하와 만성적인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적인 측면에서 거짓말은 신뢰를 파괴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고립을 초래하며, 결국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허물어뜨립니다. 잠언 12:22은 "[잠 12: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하여, 거짓된 언어가 하나님께 미움받는 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 증언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핵심 중 하나인 거짓 증언 금지 명령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진실성과 정직성을 요구합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그 기반이 되는 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 자신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잠 14:2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 14:2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유익을 줍니다. 겉보기에는 별다른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실제로 얻는 유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유익 중 하나는 '견고한 의뢰'입니다. 이는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그곳에 거하는 자는 안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4:26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의뢰' <미브타흐 에탄>는 '확실한 신뢰', '견고한 피난처'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확고한 안전감을 의미하며, 이 안전함은 경외하는 자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마흐세> 곧 '피난처'가 됩니다. 이는 영

적인 보호와 평안이 세대를 이어 전달됨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91:1-2은 "[시 91: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 91:2]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노래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고개를 뺏뺏이 쳐들고 오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5은 "[벧전 5: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

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재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요함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자가 아닌데도, 집도 없고, 심지어 병들어 곧 죽을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에 대해 이런 감정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20은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여, 말과 행위의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의 죄악들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언 14:27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생명의 샘' <마코르 하이임>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근본적인 길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는 것은 죄와 그로 인한 영적인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됨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

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죄에서 멀어지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 14: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잠 14: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 14:30]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노하지 마십시오. 정 노하고 싶다면 마귀에게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에는 노할지라도 마귀에게는 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마귀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18:10은 "[마 18:10]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

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군천사들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노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노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욕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욕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때린다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때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3:9-10은 “[약 3:9] 이것으로 우리가 주 곧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약 3:10]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때리면서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마음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분을 푸십시오. 당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생명이 보존 받습니다.

잠언 14:30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당신의 몸이 생명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시기' <킨아>는 '열정', '열심', '질투'를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열정 때문이고, 열심 때문이며, 질투 때문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내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것 자체는 관찮을지 몰라도, 그 시기 때문에 평안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 사람이 설령 간음을 할지라도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지라도 마음을 비우십시오. 평안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평안을 유지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뼈가 썩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잃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의 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 4:23은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강조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지혜는 명철한 자의 것입니다. 잠언 14:29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당신이 명철한 자라면 당신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지혜와 사귄 수 있으며 그 지혜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항상 당신의 마음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그 지혜는 당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지혜로 인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머물지 못합니다. 이는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 속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거

만하고 미련한 것들이 지혜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만 나올 뿐입니다. 잠언 14:28은 "[잠 14: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고 하여, 지도자의 지혜와 그 결과로 인한 번성을 보여주듯, 개인의 내적 지혜 역시 삶의 풍요를 결정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이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잠 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서 아버지가 필요치 않겠지만,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만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는 과부나 고아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은 더욱 과부와 고아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68:5은 "[시 68:5]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불쌍하고,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과부에게 함부로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건드려서 무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상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과부를 건드려서는 안 되며, 과부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과부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과부처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유독히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 14:31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해서도 안 되며,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과부나 고아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레위기 19:10은 "[레 19:10]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

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여,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조합니다. 신명기 24:19-21에서도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명령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공경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 14:32] 악인은 그의 환난에 앞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닥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환난에 앞드러지고 말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에 능히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문제든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언 14:32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앞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히브리어 <베라아토>로 '고난', '불행', '재앙'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이러한 환난 앞에서 무너지고 패배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에게는 심지어 '죽음에도' <베모토> 즉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 <티크바>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소망은 고난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정신적 자원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어떠한 문제든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13은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시편 46:1은 "[시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여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합니다.

악인은 환난 앞에서 무너지는 반면, 의인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것은 의인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들의 편에 서서 도우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사야 41:10은 "[사 41: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

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
심을 약속합니다.

결국,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 환난
을 대하는 태도와 그 결과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
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당신은 환
난 앞에서 앞드러지는 악인입니까, 아니면 죽음
의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는 의인입니까?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며, 그 소망만
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고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잠 14:33]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
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잠 14:34]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 14:35]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
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
니라

항상 그렇듯이 지혜는 명철한 자의 것입니다. 당신이 명철한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지혜와 사귈 수 있으며, 그 지혜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항상 당신의 마음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그 지혜는 당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지혜로 인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4:33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철한 자'는 히브리어로 <나본>이며, 이는 '통찰력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레브>에는 지혜가 '머문다' <타누아흐> 즉 '쉬고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혜가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마음에 머물면, 그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며,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머물지 못합니다. 이는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 속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것들이 지혜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만 나올 뿐입니다. 잠언 14:33에서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곧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의미하며, 이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난다' <유다> 즉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지혜는 더 나아가 공동체와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 14:34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공의' <체데크>는 '의로움', '정의'를 의미하며, 이것이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루맘> 즉 '높이 올리고 존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죄' <하타트>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헤르파트> 즉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지도자와 백성의 지혜롭고 공의로운 삶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의 행실은 그가 속한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의 위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 14:35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람은 왕에게 '은총' <라촌> 즉 '호의'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신하'는 어리석거나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 왕의 '진노' <에브라토> 즉 '맹렬한 분노'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지혜로운 행동이 권위 있는 자에게 인정받고 승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미련한 행동은 불이익과 징계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지혜를 품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머물러 있습니까?

잠언서 15장 =====

[잠 15: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 15:2]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한 말'은 '부드러운 말'을 뜻합니다. 우리는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잠언 15:1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과격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체브>에 뿌리를 둡니다. 이는 '상처', '수고', '고통'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격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와 수고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체브>에는 '그릇'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상처투성이 그릇'과도 같다는 비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

스스로 상처 있는 그릇이다 보니, 무심코 내뱉는 말이 저절로 가시가 되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선인장이 가시로 사람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혹시 '상처투성이 그릇'은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상처투성이 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우 신중하고 선한 말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상대방은 이미 당신의 말에 상처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내면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가시가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깃들도록 배려하고, 평안이 당신의 심령에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2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

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충분한 평안이 임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유순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내면의 평안은 언어 표현의 온화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배려심을 증진시켜,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듭니다.

유순한 말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5:2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혀로 선한 지식을 베풁습니다. 선한 지식은 부드럽고 듣기에 달콤하며,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설령 나를 꾸짖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다지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야단치는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꾸짖음은 달콤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며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하며, 이런 말

은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지 막 쏟아냅니다. 하고 싶은 말이면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니 부담 없이 말하지만, 듣는 자들은 그 말로 인해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그 사람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어 하고, 다시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며, 심지어 그 사람을 원수같이 여깁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언어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며, 타인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혜로운 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쉬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내뱉고 있습니까?

[잠 15:3]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

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 15:4] 온량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CCTV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CCTV는 이 세상 어떤 나라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수천만 개의 CCTV로 백성을 감시하는 나라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찰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CCTV는 완벽하고, 숨을 곳도,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불을 꺼도, 동굴에 숨어 있어도, 땅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늘에 떠 있어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도, 나무 속에 숨어 들어가도, 심지어 사람의 치맛자락 속에 들어가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잠언 15:3은 "여호와와 그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CCTV는 악인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악하기 때문에 보시지만, 선인은 선하기 때문에 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혹자는 "이거 너무한 것

아니야!”라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나도 도망칠 나라가 없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도 하나님의 감찰은 미치니 우리가 갈 곳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CCTV 앞에서 보란 듯이 사는 것이 낫습니다. 벌거벗었으면 벌거벗은 대로 사십시오. 추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추한 모습대로 사십시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보이십시오. 무엇을 감출 수 있고, 무엇을 숨길 수 있으며, 무엇을 거짓으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숨으려 하기보다, 진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운 '온랑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온랑한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때에 '생명나무'와 같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

실 때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언 15:4은 "온량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온량한 혀' <레슨 마르페>는 '치유하는 혀', '회복시키는 혀'를 의미합니다. 이는 말의 긍정적인 힘이 생명나무처럼 생명을 주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상하게 될 것이며, 상대방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패역한 말을 감싸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패역한 말은 곧장 상대방에게 달려가 상대방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말' <셀레프 레슨>은 '왜곡된 혀', '뒤틀린 혀'를 의미하며, 이는 잔인한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내뱉어서는 안 될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곧 칼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잔인한 말은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숨겨진 생각까지도 감

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온순한 혀로 생명을 살리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패역한 혀로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를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잠 15:5]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
나슬기로운 자는 경계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업신여기다'는 곧 무시한다는 뜻이죠. 우리들 대부분은 아비의 훈계를 무시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비의 훈계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야말로 지혜자 중의 지혜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의 훈계뿐만 아니라, 스승의 훈계, 친구의 훈계까지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훈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

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스승의 훈계를 잘 들으며, 친구의 훈계도 잘 듣는다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5:5은 "미련한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경계를 받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업신여기다'는 히브리어 <나아츠>로, '경멸하다', '멸시하다', '비웃다'는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경멸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유익한 조언을 거부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훈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애적 방어 기제와 경직된 사고방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타인의 비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학습과 성장을 방해하고,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미련합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경계를 받는다'는 말은 '

타이를 때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이러 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꾸짖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타이러 때 말을 들어야 하고, 부모가 꾸짖기 전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이 타이러 때 말을 들어야 하고, 스승이 꾸짖기 전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름을 받을 때 말을 듣는 자는 매우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2:15은 "[잠 12: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씀하며, 겸손하게 조언을 수용하는 것이 지혜의 특징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훈계를 겸손히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16은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여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말합니다. 훈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맹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으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하며,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자세로 훈계를 대하고 있습니까?

[잠 15:6]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인 것도 아니죠. 재물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매우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사는 이유는 자신보다 더 큰 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21은 "[마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 움직이며,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면 항상 행복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바라볼 때 죽을 맛이지만, 자신보다 더 없이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상대적 비교 심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할 때 시기심이나 박탈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불만족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며 감사함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얻는 것은 보편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참된 보물은 외적인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인 행복과 내면의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을 좇는 욕망은 끝이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잠언 27:20은 "[잠

27:20] 음부와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으며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고 경고하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비유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덧없는 재물이나 비교 의식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한 사랑에 둘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물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잠 15:7]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지식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전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을 전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식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에게서 지식의 말씀

이 흘러나온다면 당신은 아마도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에서 도무지 지식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미련한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만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지식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자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잠언 1:7은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며, 참된 지식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당신의 입을 보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혹 당신의 입에서 세상의 지식만 흘러나오지는 않습니

까? 입만 열었다면 음담패설을 지껄이거나 야하고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열면 돈 타령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앓으나 서나, 자나 깨나 돈 타령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당신은 입만 열면 돈 이야기만 하는 것 일까요? 혹 당신은 입만 열면 자녀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들을 말이라곤 자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왜 당신은 입만 열면 경제 이야기만 하고, 사회 이야기만 합니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뭘 했는지 아는 것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내면, 곧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34에서 "[마 12: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우리의 언어생활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입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끊이

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지식과 물질, 혹은 현세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성경 말씀도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도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16은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를 증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술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 15:8]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우리는 모두 제사를 지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0:20은 "[고전 10:20]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최선을 다해 제사를 지냅니다. 지극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리며, 지극 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진정 정결과 거룩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어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영적

예배이며, 영적 기도입니다. 잠언 15:8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아사르>이라는 단어는 '곧은', '정직한', '올바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까? 당신의 기도가 정직하다는 것은 당신의 제사가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 점과 흠이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 없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점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제사를 받기 원하시며, 신령과 진정어린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어린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드려졌던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전에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잘 드렸더라도 지금 제사를 잘 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10년 전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을지라도 지금 열심히 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1은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제사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는 떡과 음식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런 음식들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제사입니다. 정직한 제사는 곧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정직한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기도는 곧 영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살아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잠 15:9]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좇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잠 15:10]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선인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선택은 훨씬 자유로울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많이 힘들어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악인의 길을 걷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

으신다면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필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악인의 길을 걸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뻔뻔해졌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악인의 길을 걷고자 결심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걷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잠언 15:9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

도 공의를 좇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선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악인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악인의 길에 빠져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特效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도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시편 119:105은 "[시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임을 고백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악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악인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악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악인입니다. 마태

복음 6:15은 "[마 6: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당신이 형제의 물건을 탐한다면 당신은 악인입니다. 출애굽기 20:17은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명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악인입니다. 출애굽기 20:12는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악인이 되게 하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쉽게 악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악한 일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혹시라도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악인의 길을 걷게 되고, 너무나 쉽게 악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

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하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면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배반하지 마십시오. 배반은 약속을 버리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몰래 도망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4-6은 "[히 6:4]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히 6: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 6: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경고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떠나고 있

습니다. 몰래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징계를 받을 것이고,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잠 15:11] 음부와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라

[잠 15:12]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만, 하나님은 열 길 물 속도 아시고 수많은 사람의 속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두 아십니다. 정작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만 스스로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당신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5:11은 "음부와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며, 아무리 깊고 감추어진 곳이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역시나 당신은 거만하군요. 제 말을 듣지 않는군요. 당신이 제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5:12은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잘 하군요. 이 말씀은 거만한 자의 본질적인 특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건설적인 비판이나 조언을 거부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좀처럼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선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걷고 있는 길을 모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6:2은 "[잠 16: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하며, 인간의 자기기만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대비시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만 때문에 영원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자신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길을 점검해야 합니다.

[잠 15:13]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빛이 나지만,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빛이 없어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얼굴'은 <파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무려 2천 번 이상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막과 연관되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물 중 이 단어로 구성된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설병'입니다. 출애굽기 25:30은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설'이라는 말은 곧 '얼굴'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해서는 안 됩니다. 뭔

가를 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얼굴떡'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떡이 없습니다. '떡 줄 사람 얼굴을 봐야 떡을 얻어먹는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떡 주실 하나님을 뵈는 때에 즐거운 얼굴로 나아가야 합니다. 찡그리는 얼굴은 곤란합니다. 울상인 얼굴도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얼굴을 좋아하시고, 빛나는 얼굴을 좋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방문하셨는데 당신이 인상 쓰면서 짜증 내는 얼굴로 접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민망해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당신은 떡을 얻어먹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15:13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심령'은 <루아흐>입니다. 이는 '영'(Spirit)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

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영이 상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구절에 언급되고 있는 '마음' <레브>는 인간의 '마음' 또는 '정신', '의지'를 뜻합니다. 이는 '지정의' 영역을 뜻하는 인간의 혼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과 '영'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영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의 영이 밝아지지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영도 기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우리의 영도 슬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밝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은 "[살전 5:16]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

령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슬플 때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짜증 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괴로울 때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본 구절에 언급되고 있는 '상하게 한다'는 말은 <나케>입니다. 이는 '매를 맞아 괴로워하며 상처 입은 상태'를 뜻합니다. 비록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얻어터져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근심이 우리를 찾게 됩니다. 본 구절에 언급되고 있는 '근심' <앗체베트>는 '고통', '상처', '근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상처를 입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핍박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순간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애써 기뻐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해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고 짜증 내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기쁘

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혹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짜증스럽지는 않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당신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당신은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지금 웃어보십시오. 가증스럽게 웃지 마시고 진정으로 웃어보십시오. 싱겁게 웃지 마시고 이왕이면 맛나게 웃어보십시오. 형식적으로 웃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웃어보십시오. 기쁨이 당신 마음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당신 마음에 기쁨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기쁨이 당신 마음에 충만히 채워지고 있습니까? 이제 당신의 영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영이 살아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니다. 다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을 충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웃지 않고 계시는군요.

[잠 15:14]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니라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무엇을 좋아하느냐로 구분됩니다. 명철한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지식' <디아트>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지혜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를 즐깁니다. 이는 그들이 명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깁니다. 무엇이 미련한 것일까요? 바로 썩어 없어질 것들, 세

상에 속한 것들, 인간의 정욕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고 생활하는 것 등 육체적인 욕구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많습니다. 미련한 자는 늘 이런 정욕에 사로잡혀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자에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면서 속으로는 이방인처럼 사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6:31-32에서 "[마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 6:32]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둡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습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세상의 덧없는 욕망을 좇으며,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일시적인 쾌락에 갇혀 진정

한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
욕에 속한 것들입니까? 이 선택은 당신의 현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잠 15:15]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 15:16]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크게 부하고 번뇌함이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 15:17] 채소만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
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
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닙니
다.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를 경외하기 때문에 부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재
산이 많다 하여도 그 사람이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부자에게는 번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영적 상태가 참된 부요함을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15:16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함이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소유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번뇌와 함께 큰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와 걱정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5:17은 "채소만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채소만 먹는 것'은 소박한 삶을, '살진 소를 먹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비유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사랑이 물질적 풍요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강

조합니다.

하지만 만일 채소만 먹고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최악의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송두리째 가난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가난은 더욱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난은 소망 없는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박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내적으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은 은행 잔고나 소유한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진정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잠 15:18]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도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당신은 화를 쉽게 내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지는 않습니까?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쉽게 일으킵니다. 하지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분을 내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도노하기를 더디 하여 시비를 그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26-27은 "[엡 4: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엡 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화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

숨은 속히 화를 풀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화를 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화를 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만일 당신이 화를 빨리 풀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풀기 원하십니다. 이는 마귀가 당신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해가 지기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그 마음에 틈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여 당신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8은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결코 틈을 허용함으로써 마귀가 당신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는 곧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잠언 15:1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분노를 통제하는 것이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은 감정 조절 능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한 후회를 줄여줍니다. 또한, 분노를 오래 품는 것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움을 끼칩니다. 이는 마음에 쓴 뿌리를 내리게 하여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채우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

는 길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잠 15:19]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
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성경에서 게으른 자의 반대가 왜 '정직한 자'로 언급될까요? 일반적으로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게으른 자의 반대로 정직한 자를 내세우는 것은, 게으른 자가 정직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 정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자는 무엇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부지런한 자는 무엇에 있어서 정직한 것일까요?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시고, 신실하시며,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쉼 없이 일하셨습니다.

습니다. 요한복음 5:17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하시기에 우리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름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의 정직성 결여를 의미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직하지 못함: 게으른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능력, 그리고 기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며, 때로는 불성실한 태도로 결과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성실, 곧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적인 동기 부여의 부족을 겉으로는 관찮은 척 포장하려 하거나, 실제로

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태도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정직함.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 때문에 정직한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합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직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솔직하게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들의 부지런함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정직함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정직한 자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지런하신 성품을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지런함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직한 삶의 증거가 됩니다.

[잠 15: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

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 15:21]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
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성경은 '아비'와 '어미'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부모'를 뜻하는 말입니다. '업신여기다'는 <바자>로,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부모를 멸시하는 자인 것이죠. 자녀가 미련하면 부모가 멸시를 당하고, 자녀로 인해 경멸과 멸시를 당하는 부모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어찌 멸시를 당하는데 즐겁겠습니까? 잠언 15:20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를 두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곧 명철한 자녀입니다. 명철한 자녀는 항상 그 길을 바르게 합니다. 그들은 무슨 길이 바른 길인지 알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 길이 바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잠언 11:5은 "[잠

11:5]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고 기록합니다.

자녀의 지혜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부모의 명예를 세우는 일입니다. 잠언 10:1은 “[잠 10: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하여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사회적인 존경까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철한 자녀는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삶과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갑니다. 잠언 2:6은 “[잠 2:6] 대저 여호와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로다”라고 말씀하며, 참된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안전하며,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참된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있습니까?

[잠 15:22]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락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은 조언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소드>는 ‘의논’, ‘협의’, ‘조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조언이 없으면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무너지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22)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지략'은 히브리어 <야아츠>로,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의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과 지혜가 결합될 때 더 나은 결정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멘토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멘토를 통해 영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계획하지 마세요. 계획한 일을 혼자서 실행하지 마세요. 조언을 들으십시오. 조언을 듣고 하는 일과 조언 없이 할 때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 11:14 또한 "[잠 11:14]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말하며, 좋은 조언과 지혜로운 계획의 중요성을 강

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심리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지적 편향이나 맹점을 혼자서는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조언을 듣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얻고,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멘토의 존재는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길러줍니다. 이는 혼자 고군분투하며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사들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당신의 계획을 세워줄 지혜로운 멘토가 있습니까?

[잠 15:2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 15:24]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잠 15:25] 여호와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잠 15:26]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음부, 즉 죽음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을 택함으로써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음부의 삶을 삽니다. 이러한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음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잠언 15:25은 "여호와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허시며’는 히브리어 <잇사흐>로, ‘무너뜨리다’, ‘파괴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무너뜨리시지만, 과부는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교만한 자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68:5은 “[시 68:5]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잠언 16:5은 “[잠 16: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한 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과부가 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과부’는 단순히 배우자를 잃은 여성을 넘어, 세상에서 의지할 힘이 없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경계를 정하여 보호하십니다.

교만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죄악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 지혜, 혹은 소유를 과대평가하여 하나님과 타인보다 자신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화와 파괴를 초래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 있으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견고히 세우십니다. 베드로전서 5:5은 "[벧전 5: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교만의 길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의 길입니까?

“[잠 15:26]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하나님은 악인의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 싫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도록 애써 기도하는 사람, 원수 된 자를 죽이기 위해 열심히 악한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악인입니다. 악인은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살펴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악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생각은 당신의 심령을 더럽게 만듭니다. 오직 선한 생각만이 당신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잠언 15:26은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고 말씀

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는 히브리어 <마흐쉐 보트 라>로, '악한 생각' 또는 '악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면의 악한 의도를 미워하십니다. 반면 '선한 말'은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넘어, 그 말의 근원이 되는 선한 생각과 의도를 포함하며,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19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악한 생각은 모든 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들은 마치 싹이 트고 자라 결국에는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시편 10:4은 "[시 10:4]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라고 악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에 지속적으로 몰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

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이는 부정적 사고 회로를 강화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 증오, 복수심 같은 악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외부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우리 내면의 평화를 갉아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악한 생각은 당신의 심령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빌립보서 4:8은 "[빌 4:8]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선한 생각만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선하고 정결한 생각으로 채울 때, 당신의 영혼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잠 15:27]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취하는 이익을 의미하죠. 이러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집을 해롭게 합니다. '자기 집'이라는 말은 곧 '자기 가족'을 뜻합니다. 재물이 있다고 해서 집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돈은 오히려 집을 더럽게 만들고, 그 부정한 돈으로 산 집은 가족들까지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한 이익으로 번 돈은 집과 가족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맙니다.

잠언 15:27은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익을 탐하는 자'는 히브리어 <보체아 바차>로, '탐욕스러운 자',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가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오케르

베토>고 하는데, '오케르'는 '교란하다', '망치다', '파괴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가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가정의 화목을 깨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영적인 타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얻은 재물은 지속적인 불안감, 죄책감, 그리고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개인과 가족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은 부당한 이익이며, 받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이익입니다. 잠언 17:23은 "[잠 17:23]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고 기록하며 뇌물이 정의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뇌물을 좋아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은 해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뇌물을 싫어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당신 가족이 살 것입니다. 잠언 28:16은 "[잠 28:16]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말하며,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미워하시며, 의롭고 정직한 삶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33:15은 "[사 33:15]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미워하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죄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함 이익은 잠시의 풍요를 약속할지 모르나, 결국은 가정의 평안과 영적인 축복을 앗아가는 독과 같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정직한 수고의 열매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함 이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잠 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 15:29] 여호와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내뱉는 말은 실수가 적죠. 물론 말

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2은 "[약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 에 굴레 씌우리라"고 기록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대답을 할 때 깊이 생각하는 반면, 악인은 그와 반대입니다. 악인은 입에서 악을 쏟아냅니다. 마치 먹은 음식을 토해내듯이 그렇게 말을 토해내죠. 너무나 쉽게 토해내며,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마구 쏟아냅니다. 잠언 15:28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히브리어 <하가>로,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의로운 자가 언어 사용에 있어 신중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악을 쏟아내다'는 것은 통제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악인을 멀리 하십니다. 이는 의인의 기도가 깊이 생각해서 나오는 기도인 반면, 악인의 기도는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할 뿐입니다. 마치 개나 돼지가 똥이 마려우면 아무 곳이나 배설하듯이, 악인의 기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하며, 아무 곳에서나 기도합니다. 그저 자신의 기도만 응답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잠언 15:29은 "여호와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언어를 깊이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조절하

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건강한 대인 관계와 문제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반면, 악인의 '악을 쏟아내는' 행동은 충동성과 자기중심성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분노를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관계를 손상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언어와 기도는 우리 내면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의로운 자는 언어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반면, 악인은 그들의 말과 기도를 통해 자신과 주변에 해를 끼칩니다. 당신의 언어와 기도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잠 15:30] 눈의 밝음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밝은 것을 봅니다. 같은

것을 볼지라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다른 것을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밝은 것을 보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두운 면을 봅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마음이 밝아지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항상 밝은 것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좋은 기별이 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별것 아닌 소식도 기쁜 소식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아침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아내가 빨아 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든 소식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울어대는 새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가 왠지 시끄럽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느끼죠. 네, 맞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야 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잠언 15:30은 "눈의 밝음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접하는 사람은 뼈가 윤택해집니다. '윤택하다'는 말은 살이 찐다는 의미이고, 기름지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살이 찐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살이 찌는 것이 어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뼈가 윤택해지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살이 찌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뼈가 윤택해지는 것은 몸에 좋은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건강과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23:5은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여, 영적인 풍요와 만족을 기름부음으로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태도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영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삶의 밝은 면을 찾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잠 15:31]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잠 15:32]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권계를 듣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당신은 다른 사람의 책망을 얼마나 잘 듣나요? 다른 사람의 타이르는 말을 얼마나 잘 듣나요? 본문에 나오는 '경계', '훈계', '견책'은 모두 '책망'이라는 말입니다. 모두 듣기 싫은 말이죠. 모두 누군가로부터 나의 잘못을 지적받는 말입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의 책망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책망을 듣는 태도가 지혜를 얻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15:5은 "[잠 15:5]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슬기로운 자는 경계를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반면, 슬기로운 사람은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잠언 15:32은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권계를 듣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고 하여, 책망을 거부하는 것이 스스로의 영혼을 해치는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방어 심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와 성장은 이러한 불편함을 넘어설 때 찾아옵니다. 책망을 잘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잠언 12:15은 "[잠 12: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타인의 조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기: 비판의 내용보다 비판하는 사람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 노력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언 1:5은 "[잠 1:5]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책망이 불편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방어하려 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1:19은 "[약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배움의 기회로 삼기: 책망 속에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세요. 잠언 9:9은 "[잠 9:9]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고 말합니다.

듣기 싫은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을 지

헤로운 길로 인도하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의 책망을 어떻게 듣고 있나요?

[잠 15: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
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존귀'라는 말은 <카보드>인데, 이 단어는 '부'와 '영예'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주는 부와 영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부와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을 '경외'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경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외'는 히브리어 <이르아>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존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두렵고 떨리는 존경심을 뜻합니다. 잠언 15:33은 "여호와

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며, 경외가 지혜의 시작이자 존귀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사람 앞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만나는 사람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3은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권면하며,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여 타인과 하나님을 경시하는 태도인 반면,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과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잠언 18:12은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하여 교만의 비참한 결과와 겸손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대조합니다. 겸손한 자는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지혜와 통찰력을

얼게 하여 진정한 영예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태도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존귀를 얻는 길을 걷고 있나요?

잠언서 16장 =====

[잠 16: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 16: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 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부인하며, 스스로 운명을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 봐야 우물 안 개구리의 노력일 뿐이고,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잠언 16:1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는 신본주의와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장난감과 같다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만일 당신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쩌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을 섬길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잠언 16:3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노력하되, 그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시편 37:5 또한 "[시 37: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 시고”라고 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길 때 얻는 심리적 유익은 상당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오는 불안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미래를 완벽히 예측하거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내적인 평안과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바위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계획과 통제 아래 살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당신의 모든 계획을 맡기고 있습니까? 참된 평안과 성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잠 16: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때, 각각의 목적에 맞도록 지으셨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예정설'을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정된 대로 나아가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예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한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 다니는 것과 숨 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됩니다. 심지어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계획하셨는지 모릅니다. 악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도 예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가 스스로 지옥을 택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예정설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졌다고 믿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예정설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더해져야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만큼은 예정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만큼은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신본주의(하나님 중심)와 인본주의(인간 중심)를 연결시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 놓여져 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자유의지를 통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만큼은 조금도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정과 자유의지는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잠 16: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실 뿐 아니라, 아예 미워하십니다. 잠언 16:5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 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하시나니'라는 단어는 <토에바>인데, 이는 '혐오스러운 것' 또는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혐오스러워 하시고 가증스러운 자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할 수 없을 것이며, 가까이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교만'이라는 말은 <가바흐>인데, 이는 '높아진'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가장 높

은 분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탄을 닮았습니다. 사탄은 가장 높아진 자입니다. 이사야 14:13-14은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라고 사탄의 교만한 마음을 묘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자이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웠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자부했던 자입니다.

혹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인생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사탄의

후예이며 마귀의 후사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잠언 16:5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서로 계약을 맺거나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아무리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을지라도 그 효력이 없으며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무조건 멸망당하며, 사람에게 의해서도 멸망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처참해질 것이고 그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잠언 18:12은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도 교만합니까?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진 참새가 빨리 죽는다'는 말처럼, 교만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왜 옆 사람을 깔보며, 왜 주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왜 잘난 체하고,

왜 혼자 하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당신 스스로 당신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죄악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잠 16:6]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잠언 16:6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께서 그 깨끗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나오십

시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까?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경외함'은 히브리어 <이르아>로,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사랑에 대한 깊은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외함이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기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인보다 죄인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의인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의인은 의롭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

다. 물고기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17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죄악을 속하고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잠 16: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

시느니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 원수와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꺼려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마저 원수로 삼을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7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얼마나 원수 된 자가 많이 있습니까? 혹 배우자를 원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자녀를 원수로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혹 이웃 중에 원수 된 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

하십니까? 왜 당신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2:17-18은 "[롬 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 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원수로 여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마귀의 존재는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며, 그리 신경 쓰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마귀는 없어진 존재요, 패배된 존재이며,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미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지워진 존재이며, 이미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요한일서 3:8은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원수 된 자를 자꾸 원수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된 마귀를 신경조차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 된 자를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신경을 쓰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두려워하신다면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원수로 삼거나, 그 원수 된 자를 미워하거나, 자꾸만 원수 된 자로 인해 마음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미 당신은 원수에게 진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가 당신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와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43-44에서 “[마 5: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원수가 예뻐서 그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마

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여유를 원수에게 직접 보이십시오. 우리는 자주 원수가 아닌 사람에게 나의 관용을 보이려 하지만, 우리는 원수에게 직접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고 우리의 넉넉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바닷물이 모든 쓰레기를 포용하듯이 그렇게 우리도 원수 된 자를 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원수를 미워하며 원수에게 당한 대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그런 원수를 사랑하며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모세의 가르침대로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며 당한 것을 그대로 갚으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까?

[잠 16: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
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적은 소득이라도 악인의 많은 소득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많은 소득을 취할지라도 의인의 적은 소득보다 낫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사는 자는 의인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잠언 15:16은 "[잠 15:16]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함이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며, 물질적 풍요보다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만일 당신이 의인이라면 적은 소득으로도 행복함을 느껴야 합니다. 진정 당신은 적은 소득으로 행복하십니까? 왜 적은 소득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 당신은 악인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진정한 의인이라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당신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마에 '의인'이라는 도장을 찍어 주셔야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돈으로 의인 도장을 살 수 없고, 당신의 능력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 없이 산다고 하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3:20은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5:1은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의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

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임을 밝힙니다. 만일 당신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적은 소득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참된 행복은 세상의 소득이나 재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깊은 만족과 평안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진정한 의인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결코 사람은 자신의 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못합니다. '마음' <레브>이라는 말은 사람의 혼적인

영역을 뜻하며, 자·정·의(지성, 감정, 의지)에 국한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계획은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그의 계획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Spirit)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계획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의 계획하심으로 살아가기 뿐입니다. '계획'이라는 말은 <하샤브>입니다. 이 단어는 '계획하다'라는 뜻 외에 '생각하다', '판단하다', '계산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날들을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해결하고 싶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으며,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도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데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교회는 인간의 마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이시며,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도될 때 인간의 교회가 되고,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지 실제로는 홍길동 교회인 셈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며, 진리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혹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6은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혹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어찌 하나님을 원숭이와 비교하셨습니까? 혹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원숭이 자녀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무엇을 믿든 간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가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결코 원숭이가 당신을 낳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어찌 원숭이를 당신 아버지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계획하지 마시고 영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혼자서는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완전함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26은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 16:10]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치지 아니하리라

[잠 16:11] 공평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와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잠 16:12]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

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
라

[잠 16:13]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
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
라

[잠 16:14] 왕의 진노는 사망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잠 16:15]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 은
택이 낮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릇되이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
나님의 입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는 모든 상거래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
거래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간칭'과 '명칭'과 '추돌'은 모두 상거
래에서 사용되는 저울과 추를 뜻합니다. 부정하
게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저울을 사용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추돌을 사용했습니다. 저
울의 무게를 무겁게 하거나 저울의 크기를 약간
작게 만들면 그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들은 저울을 통해 부당한 이윤을 챙겼습니

다. 추돌은 보다 정확하게 무게를 재기 위해 사용되는 돌인데, 불량한 사람들은 이 돌의 크기와 무게를 약간 변경해서 부당한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정직한 상거래를 엄격히 금합니다. 잠언 16:11은 "공평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 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상거래의 모든 도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9:35-36에서도 "[레 19:35]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를 잴 때나 무게를 달 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치 말고 [레 19:36]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저울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상거래를 통해 사회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운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13은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실된 말과 정직한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도 기뻐합니다.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직하고 투명한 상거래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공정한 거래는 불신과 분노를 야기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반면, 공정함과 정직함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또한, 개인의 정직한 언어와 행동은 내적인 일관성을 높여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죄책감이나 불안감 없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특히 경제 활동과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정직과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상거래는 정직합니까? 당신의 입술은 의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잠 16: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
다 더욱 나으니라

[잠 16:17]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
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비할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금보
다 낫고 명철이 은보다 나은 것이죠. 잠언 16:16
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
해서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이제는
금과 은이 그들의 신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과 은을 섬기고 있죠. 마태복음
6:24은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과
은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금과 은
이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필요를 채워
주고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
나 그렇다고 해서 금과 은을 하나님과 바꾸지 않
습니다. 금과 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도 않습
니다. 잠언 3:13-15은 “[잠 3:13] 지혜를 얻은 자
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잠 3:14]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
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잠 3:15] 지혜는 진
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여 지혜의 탁월한
가치를 재차 강조합니다.

금과 은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금과 은으로 하나님을 바꾸서는 안 될 것입

니다. 더 이상 금과 은이 하나님인 양 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영적인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디모데전서 6:10은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라고 경고하며, 물질 숭배가 가져올 영적 위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금과 은, 혹은 다른 세상적인 가치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않은가요?

[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 16:19]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을 뜻합니다.’

거만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둘 모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 하기 때문이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도 없고 자신 외에 다른 사람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마귀는 높아짐으로, 즉 교만함으로 멸망했습니다. 이미 마귀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마귀는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살게 될 것이며, 그것이 그의 운명입니다. 그가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20:1-3은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고 마귀의 최종 운명을 기록합니다.

만일 당신이 교만한 자라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결코 남보다 위에 서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고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혼자 잘났다고 까불지 마십시오. 거만하면 넘어집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씀을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잠언 16:18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마음을 낮출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면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추십시오. 키를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당신보다 더 올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더욱 기쁘게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다른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3은 "[빌 2:3] 아무 일에도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고 권면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에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소와 놀고 염소는 염소와 놀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놀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과 놀입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당신이 지금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만한 자와 함께 있다면 당신은 교만한 자입니다. 잠언 13:20은 "[잠 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하며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끊어야 할 것은 비단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을 끊으십시오. 거만한 자를 끊으십시오. 좋은 음식이 당신에게 필요하듯이 겸손한 자도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잠 16:20]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 16:21]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잠 16:22]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잠 16:23]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즐겁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 16:24]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로움으로 선한 말을 합

니다. 만일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선한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말은 당신을 명철하게 만들고 생명을 가져다주지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22은 "[잠 15:22]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하며, 지혜로운 의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련한 자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은 잠언 19:29에서 "[잠 19:29] 미련한 자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었고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느니라"와 같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잠언 16:21)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이라는 말은 <메테크>로, '단맛', '감미로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자'라는 말은 곧 선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달콤하고 감미로운 말이며, 남을 유쾌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법입니다. 선한 말은 이처럼 설득력이 있습니다. '남의 학식을 더한다'는 말은 곧 '설득력을 더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6:24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말씀하며 선한 말의 힘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습니다. 한번 선한 말을 해 보십시오. 그동안 선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선한 말을 해 보십시오. 달콤한 말을 해 보십시오. 감미로운 말을 해 보십시오. 유쾌한 말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듣는 이가 좋아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말은 상대방의 뼈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뼈의 골수를 많이 생성하게 하여 마치 물이 차고 넘치듯이 골수가 차고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 어떤 약보다 당신의 선한 말은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자의 악한 말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잠언 15:28은 "[잠 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고 악인의 언어 습관을 지적합니다. 악한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분노를 일으키며, 결국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잘못하는 것을 넘어, 내면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언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고 삶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입술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잠 16:25]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의 시각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을 통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좋지 않은 것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부모의 도리처럼 보이며 훌륭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경우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때, 그것은 곧 사망의 길이 됩니다. 잠언 16:25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만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재물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 필경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24은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며,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파멸적인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6:10은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라고 하여, 재물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만일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당신은 건강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려고 건강을 챙겼는데, 오히려 건강 때문에 일찍 죽을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맹목적인 추구가 본래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영적인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36-37에서 “[막 8: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질문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 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제한적이며, 우리의 욕망은 종종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잠 16:26] 노력하는 자는 배를 위하여 일하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 세상 사람의 삶은 단순합니다. 매우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너무 단순합니다. 이 세상 삶은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그리 좋은 것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생각에 갇히곤 합니다. '잘 먹는 사람이 최고이며 잘 마시는 사람이 최고'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과 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람과 모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일하고,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역설적으로 일하는 것이 배를 고프게 하고, 음식을 먹는 입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독촉합니다. 잠언 16:26은 "노력하는 자는 배를 위하여 일하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으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삽니다. 로마서 14:17은 "[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합니다.

'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옳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물질로 의를 행하는 것을 포함하죠. 마태복음 6:1-2에 보면 의는 구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 6:1]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

느니라 [마 6: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물질을 주어야 합니다. 내 입으로 들어갈 음식을 남의 입에 넣어주고, 내 배를 채워줄 음식을 나눠 주는 것이 곧 구제입니다.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27은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실 때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평안을 누립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세상의 일은 당신의 입과 배를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마음에 평강을 줄 것입니다.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먹고 마실 때 기쁨을 얻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쁨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친구와 동행하는 자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음식만 좇는 자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52은 “[행 13: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하여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함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잠 16:27]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니 그 입술

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잠 16:28]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 16:29]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꺾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불량한 자는 항상 악을 꺾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불량배이고 깡패이며 양아치입니다. 불량한 자의 입에는 악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16:27은 "불량한 자는 악을 꺾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맹렬한 불 같은 것'은 악한 세력을 태우는 성령의 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온 세상을 태우는 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온 집안을 태우는 불이죠.

이러한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패려한 자는 못돼먹은 자입니다. 이런 못돼먹은 자는 항상 다툼을 일으키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다툼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과 평화롭지 못하고 누군가와 다툼의 관계에 있다면, 당신은 패려한 자이며 못돼먹은 자입니다. 잠언 16:28은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수다쟁이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말장이'는 수다쟁이이며, 말이 많은 자를 뜻합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면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마는, 수다쟁이는 주로 악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28에서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고 말했듯이, 그들의 말이 친한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당신 주변에 수다쟁이가 누구인지 살펴보십시오. 혹 당신이 그런 수다쟁이는 아니겠죠?

이러한 언어의 부정적인 힘은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내면을 병들게 합니다. 불량한 자의 악한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불신과 증오를 싹트게 합니다. 패려한 자의 다툼은 지속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수다쟁이의 이간질은 친구 사이를 멀

어지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을 만들어냅니다. 야고보서 3:5-6은 "[약 3: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약 3: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고 혀의 파괴적인 힘을 경고합니다.

당신의 언어생활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입술은 생명을 살리는 불꽃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태우는 불꽃입니까?

[잠 16:30]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눈을 감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입술을 닫지 마세요. 우리는 주로 쓸데없는 일에는 눈을 뜹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볼 때도, 멋진

차를 볼 때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눈을 크게 뜨죠. 하지만 남의 고통을 볼 때에는 주로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당신이 눈을 감기를 좋아하고 입술을 닫기를 좋아한다면 당신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자이죠. 당신 스스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편함이 진정한 편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마음을 함께하세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잠언 21:13은 "[잠 21:13]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은 의인의 삶이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입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잠언 14:31은 "[잠 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5:40에서 "[마 25:40] 임금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지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나섭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의인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의 눈과 입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 16:3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백발이 싫어서 염색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려 애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백발을 가리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인 것은 아닙니다. 백발 그 자체는 추할 수 있으며, 전혀 영광의 면류관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백발이라고 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만 백발을 영광의 면류관처럼 으스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도, 길 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으스대며, 단지 백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쭐댑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으스대면 추해 보일 뿐입니다. 백발이 모두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은 결코 으스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합니다.

오직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려면 의로운 길에서 얻을 뿐입니다. 잠언 16:31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화의 면류관'은 히브리어 <아타레트 티프에레트>로, '아름다운 면류관', '영광스러운 왕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흰 머리가 나는 것을 넘어, 그 백발이 의미 있는 것은 '공의로운 길'에서 비롯될 때입니다. '공의로운 길' <데레크 체다카>은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는 삶은 영화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24은 "[롬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하며, 우리의 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지금 의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 옆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십니까? 지금 당신은 모든 당신의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백발이 진정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한다면,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잠 16: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않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용사라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꼭 화를 내고 싶다면 마귀에게 화를 내십시오. 귀신에게 화를 내십시오. 악한 세

력에게 화를 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잠언 16:32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화를 내지 않는 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화를 쉽게 내지 않는 자는 용사라고 불리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을 빼앗는다'는 말은 성을 정복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성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곧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은 자기 통제의 최고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외부의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정신력을 부여합니다.

우리 인생은 제비뽑기와도 같습니다. 열심히 사

는 사람이 모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는 자일지라도 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 내 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33은 "[잠 16:33] 제비는 사람이 뱉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작정하다'는 히브리어 <미쉬파트>로, '판결하다', '결정하다'는 의미와 함께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이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공의로운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조금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

다. 시편 37:5은 "[시 37: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라고 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결과를 약속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잠언서 17장 =====

[잠 17: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화목일까요? 마른 한 조각으로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집은 먹을 것이 많아도 늘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1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집, 물건을 살 돈 등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다 보니 막상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마음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서운해하며, 의지가 없어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며, 기분 좋은 일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없는 것에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빼앗긴 것에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도 감사하며,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11-13은 "[빌 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 4: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목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내면의 만족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만족과 감사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당

신의 가정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툼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마른 떡 한 조각으로
도 감사할 수 있는 화목과 믿음입니까?

[잠 17:2]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주
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그 아들들 중에 나누는
유업을 함께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
다. 이는 그 종이 슬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종은 아들과 함께 주인의 유업을 기업
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잠언 17:2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
겠고 그 아들들 중에 나누는 유업을 함께 얻으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슬기로운 종이 될 때 비로소 하
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슬기로운 종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속한 단체가 당신으로
인해 부흥한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종입니다. 당

신이 속한 가정이 당신으로 인해 화목하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종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으로 인해 행복해한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종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부모가 기뻐한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종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은 슬기로운 종이 가진 지혜와 섬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당신으로 인해 오히려 회사가 망하고, 회사의 실적이 저조하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종이 아닙니다. 당신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종이 아닙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 이혼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종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에게 떠나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종이 아닙니다. 당신의 교회가 당신으로 인해 부흥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종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슬기롭지 못한 행동과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떠한 유업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종의 특징은 단순히 능력 있는 것을 넘어, 관계적 지혜와 섬김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람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리더십의 본질과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0:26-28은 "[마 20: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 20: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이 부흥하고 있습니까?

[잠 17: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 마음은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만듭니다. 도가니는 매우 뜨거운 용광로에서 재료를 녹일 때 사용되는 용기입니다. 풀무로는 금을 만듭니다. 풀무는 용광로를 말하죠. '연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바한>으로,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금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불순물을 온전히 제거하는 작업이 '연단'하는 작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붙어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다 깨끗한 금이 나오듯이, 우리도 정금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23:10은 "[욥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입니다. 마치 뜨거운 불이 금속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듯, 고난은 우리의 교만, 이기심, 세상적인 욕망 등을 태워

없애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순수한 존재로 만듭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은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정금처럼 순수해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6-7은 "[벰전 1: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벰전 1: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며, 시험을 통한 믿음의 연단이 금보다 귀하다고 강조합니다.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연단의 과정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43:2은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

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하리니”라고 약속합니다. 연단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우리가 정금처럼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정금처럼 변화되고 있나요?

[잠 17:4]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말을 잘 듣습니다. 이는 그가 악하기 때문이죠. 악한 자는 어떤 말도 악한 말로 듣고,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항상 악한 자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는 항상 거짓말을 듣습니다. 그 어떤 말도 거짓말처럼 들리며, 거짓말쟁이의 주변에는 거짓말쟁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 당신 주변에 거짓말쟁이로 가득 차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 주변에 선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필시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자석과 같아서, 선한 자는 선한 사람을 끌어당기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 주변에 악한 사람이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필시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잠언 13:20은 "[잠 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하며,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본성과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료 의식과 선택적 지각이라는 심리적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 성향,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또한, 자신의 내면적 상태가 세상과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찾아내고, 비판적인 사람은 타인의 결점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자신의 내

면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악의를 찾아내고, 결국 자신과 비슷한 악한 자들을 주변에 모으게 됩니다. 이들은 서로의 악함을 강화하며 악순환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진 자는 타인의 선함을 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언행에서 선함이 묻어나오고, 이는 선한 사람들을 끌어당겨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33은 "[고전 15: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경고하듯이,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인격과 행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는 우리를 더욱 선하고 지혜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당신의 주변 관계는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많다면, 당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시편 1:1은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

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하여, 복 있는 삶의 시작이 악한 자들과의 분리임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삶을 둘러싼 관계를 점검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당신의 본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잠 17: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불행에 대해 기뻐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잠언 17:5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조롱하는 자’는 히브리어 <로에그>로, ‘비웃다’, ‘경멸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단순히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존중이 곧 하나님께 대한 존경으로 이어진다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45에서 예수님은 “[마 25:45] 이에 임금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라”고 말씀하시며, 약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곧 당신 자신을 향한 무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혹 당신은 어떤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벌을 면할 것입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은 공감 능력의 결여와 악한 심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질투, 시기, 교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욥기 31:29-30은 "[욥 31:29] 내가 만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패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앙 만남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면 [욥 31:30] 나의 입이 범죄함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여,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2:15은 "[롬 12:15]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권면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임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불행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잠 17:6]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니라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되는 이유는 손자로 인해 가문이 존속되기 때문입니다. '손자'는 곧 자녀를, 후손을 말합니다. '노인'은 조상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가문이 존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잠언 17:6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니라"고 말씀하며, 세대 간의 연결에서 오는 영광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혈통의 계승을 넘어, 가문의 영적인 유산과 가치관이 후손을 통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면류관'은 히브리어 <아타라>로, '영광', '명예',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손자는 노인의 삶의 결실이자, 그가 살아온 세월과 지혜가 후대에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삶이 의롭고 지혜로웠다면, 그 후손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영화입니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었

더라면 자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가 영화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 된 자의 도리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삶과 유산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으며, 아버지의 명예는 곧 자녀의 자긍심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6:2은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여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대 간의 긴밀한 연결과 각자의 역할에서 오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노인은 후손을 통해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문의 유산을 발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대가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삶은 다음 세대에 어떤 영광과 영화를 남겨주고 있습니까?

[잠 17:7] 미련한 자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

말하는 것이겠느냐

'분외의 말'은 분에 넘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만하고 주제넘는 말이죠. 미련한 자는 거만한 말을 하고 주제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거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고, 주제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당신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그런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거만한 말을 하거나 주제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모두들 싫어하기 때문이죠. 만일 당신이 거만한 말을 하거나 주제넘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주변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17:7은 "미련한 자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존귀한 자가 거짓말하는 것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미련한 자가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조차 어색한데, 하물며 지위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분외의 말'

은 히브리어 <쉐파트 사파>로, '부적절한 입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미련한 자의 언어가 그들의 위치나 상황에 맞지 않게 주제넘거나 거만함을 나타냅니다.

거만하고 주제넘는 말은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언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려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분외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아도취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불필요하게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잠언 16:18은 "[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하여 교만과 그 결과로 인한 파멸을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겸손한 태도로 타인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잠언 15:1은 "[잠 15: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말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끌어줍니다. 당신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혹시 당신의 언어 습관이 원인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잠 17:8]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주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것이지만, 뇌물을 받는 사람에게도 안 좋습니다. 뇌물은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보석이죠. 보석 때문에 눈이 멀어진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보석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보석이면 더욱 갖고 싶어 합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은 보석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물을 통해 무엇이든지 가능케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보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뇌물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 합니다. 뇌물의 힘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뇌물의 보석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뇌물의 보석으로 많은 사람이 변심합니다. 옳지 않은 일일지라도 보석 때문에 변심하고, 그릇된 것이라 할지라도 보석 때문에 용납하죠. 잠언 17:8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며 뇌물이 가진 일시적인 힘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뇌물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뇌물은 정직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관계와 사회 전체를 부패시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뇌물은 '소유 욕구'와 '통제 욕구'를 자극하지만, 부정한 방식으로 얻은 이득은 내면의 죄책감과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뇌물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진정한 신뢰가 아닌 이해타산에 기반하므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5:27은 "[잠 15:27]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고 경고하며, 부정한 이익이 가정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미워하십니다. 출애굽기 23:8은 "[출 23: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명하셨습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여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입을 굽게 하여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뇌물이라는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잠 17:9]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큰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랑을 가진 자에게 사람이 붙지 않는 이유는, 그가 지나칠 정도로 그 사랑을 거둢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싫은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거둢 말하는 것 때문에 그를 싫어합니다.

능력이 많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없는 목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따르지 않는 목사가 있고, 궂은일 마다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없는 목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베풀 사랑이나 행한 일을 거둢 말하기 때문입니다. 거둢 말하는 것 때문에 모든 상급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질려버립니다. 꼴도 보기 싫어하고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죠.

거둢 말하는 사람은 소위 '잘난 체'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잘난 체하고,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잘난 체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드러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잠언 17:9은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친구들도 떠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친구가 떠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4은 "[고전 13: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이나 베푼 사랑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침묵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영원한 상급을 쌓

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 17:10] 한 마디 꾸짖는 것이 미련한 자를 백 대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히느니라

[잠 17:11]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잠 17:12]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혹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당신이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인지를 지금 확인해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수백 마디 권고의 말을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지만, 총명한 자는 단 한마디 권고의 말을 할지라도 새겨 듣습니다. 그것이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입니다. 잠언 17:10은 "한 마디 꾸짖는 것이 미련한 자를 백 대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히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단 한마디 권고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씁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대드는 것을 말하죠. 당신 주변에 대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윗사람에게 대드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권세자에게 대드는 사람도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역을 꾀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악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가 반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파괴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결국 파괴되고 맙니다. 잠언 17:11은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악하여 반역만 힘쓰는 자는 잔인한 사자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 사신을 보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비참하고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혹 하나님의 사신이 당신을 잔인하게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회

개해야 합니다.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지금 반역의 꾀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고,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미련한 자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잠언 17:12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 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고 비유합니다. 그 누구라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와 함께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련한 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모반을 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해치려고 계획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윗사람의 말에 자꾸 대드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당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앞드려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택하여 훈계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의 길을 택하여 반역과 고집으로 파멸에 이를 것인지, 그 선택은 온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잠 17:13]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17:14]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 17:15]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여호와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는 까닭은 악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인을 악으로 대하지 않으시지만, 악인은 다릅니다. 악인은 선인을 악으로 대합니다.

우리는 종종 악으로 선을 갚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정욕 때문에 비롯된 악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악을 행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욕심 때문에 악을 채웁니다. 더러운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악으로 갚게 만듭니다. 성경은 '시비' 때문에 이러한 악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잠언 17:14는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시비'는 모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비가 생겨나고, 정욕 때문에 시비가 생겨납니다. 욕심이 없고 정욕이 없다면 시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은 모두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옛말에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짐승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람의 은혜도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친구의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다만 악으로 은혜를 갚을 뿐입니다.

악인은 악한 자를 의롭다 여기고, 또한 의인을 악하다 여깁니다. 악한 자를 악하다고 여기고 의인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악인이 얼마든지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의인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악인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인 된 자를 의롭다 여겨서는 안 되며, 나의 자녀라고 해서 악인 된 자를 의롭다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악인으로 취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잠언 17:15는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여호와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악인을 의인으로 여기고 의인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아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다스리고, 선과 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악으로 선을 갚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잠 17:16]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찜인고

[잠 17:17]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때를 위하여 났느니라

[잠 17: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우리는 보증을 서는 것을 마치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증 서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잠언 17:18은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고 말하며, 보증을 서는 사람을 지혜 없는 자로 표현합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지혜롭지 못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보증 때문에 인생의 큰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은 히브리어 <타카>로, '손뼉을 치다' 또는 '나팔을 불다'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증이 성립될 때 서로의 손을 치는 습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서로의 뜻이 맞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며 손바닥을 치듯이 말이죠. 보증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마치 하인이 주인에게 귀속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귀속될 때처럼, 우리가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설 때 우리는 그 친구에게 귀속되고 맙니다. 즉,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보증을 서 준 사람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서운 보증을 우리를 위해 서셨습니다. 히브리서 7:22은 "[히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증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보증을 서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보증은 종종 죽음을 요구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셨다고 해서 우리도 남을 위해 보증을 서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셨지만, 결코 서로를 위해 보증을 서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보증은 모두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서면 보증을 서는 사람도 죽고, 보증을 받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 하는 사랑이기에 한계를 가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 죽지만, 주를 위해서는 죽

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위해 죽지만, 주를 위해서는 죽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보증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목숨이 없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죽을 목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 죽지 마십시오. 오직 주를 위해 죽으십시오. 로마서 14:8은 "[롬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증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보증을 설 때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 죽을 목숨이 있다고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위해 함부로 목숨을 버리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위한 목숨을 가지고 계십시오.

[잠 17:19]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툼은 곧 논쟁이죠. 매사에 논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논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손해가 있을 때 다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논쟁하여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자주 다투거나 매사에 논쟁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입니다. 잠언 17:19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다'는 히브리어 <오헤브 마돈>으로, '분쟁을 사랑하다', '싸움을 즐기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기보다 갈등을 자초하며, 논쟁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는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적 불화

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4:1은 "[약 4: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여, 다툼의 근원이 우리의 내면적인 욕심임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것은 죄악의 본성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또한 자신의 문을 높이는 자는 스스로 파괴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문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자랑으로 인해 패망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을 높이다'는 히브리어 <마기 비흐 피트호>로, '자기 대문을 높이 세우다'는 뜻인데, 이는 과시적인 행동이나 교만한 자기현시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은 집의 얼굴이자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이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과도한 자기 과시와 교만을 나타냅니다.

잠언 16:18은 "[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하듯이, 자기 자랑과 과시는 결국 파멸로 이어 집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자에게는 호감을 느끼고 다가가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서는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인간 관계의 기본 원리이자, 하나님의 심판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며,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다툼과 자랑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겸손과 평화로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잠 17:20]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합니다. '사특하

다'는 곧 '비뚤어진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매사에 비뚤어진 태도로 받아들입니다. 어느 말 하나라도 곧게 듣지 못하고, 무슨 말이든 오해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로 가난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좋은 것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사에 비뚤어진 성격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비뚤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마음의 상태가 삶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잠언 17:20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는 히브리어 <이케쉬 레브>로, '뒤틀린 마음을 가진 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왜곡은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기회나 축복마저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히브리어 <하포크 비레쇼노>로, ‘뒤틀린 혀를 가진 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말을 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은 결국 스스로를 재앙에 빠뜨립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비뚤어진 마음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불행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면 실제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만성적인 불평, 비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관계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들며, 결국은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잠언 4:23은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의 근원이며, 마음이 비뚤어지면 삶의 모든 측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마음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비

뚫어진 마음 때문에 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잠 17:21]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를 낳은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모입니다. 미련한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많아지게 합니다.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낙을 찾기 어렵습니다. 잠언 17:21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며, 미련한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을 보여줍니다.

지식이 없다고 해서 미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자식이 미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결코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녀를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6:5-9은 이러한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을 상세히 가르칩니다. "[신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신 6: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새겨야 함을 강조합니다.

미련한 자녀가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지식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이는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잠언 10:1은 “[잠 10: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하여 지혜로운 자녀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안전하며,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참된 기쁨과 자랑이 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8장 =====

[잠 18:1]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 18:2]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죠.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임 가운데 항상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부하고, 항상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당신의 의견이 맞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

다. 하지만 항상 당신의 의견만 맞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거부하고 다른 의견을 내세운다는 것은, 당신이 진정한 이기적인 사람이며 당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잠언 18:1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자'는 히브리어 <니프라드> 즉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를 의미하며, 이는 공동체에서 벗어나 고립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진정한 지혜를 배척합니다. 잠언 12:15은 "[잠 12: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하여,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태도가 미련함의 특징임을 지적합니다.

이기심은 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니다. 이기적인 태도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불신을 쌓으며,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0:24은 "[고전 10: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하며, 이타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나요? 당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 18:3] 악인이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에게는 멸시가 따라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능욕이 따라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면, 먼저 당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군가의 멸시를 받을 때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생

각하고, 나의 참된 모습을 모르고 나를 멸시하는 상대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멸시는 악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능욕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잠언 18:3은 "악인이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능욕을 받는다면, 당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능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당신을 능욕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하고 증오한다면, 당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능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사(Projection)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이나 죄를 직면하기 어려울 때, 그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거나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

향이 있습니다. 멸시나 능욕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변화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할 때 형통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잠언 28:13은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멸시나 능욕을 당할 때, 그것을 외부의 공격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변화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시편 139:23-24은 "[시 139:23]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 139:24]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지금 멸시나 능욕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 변화의 기회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타인만을 원망하며 악순환을 반복하겠습니까?

[잠 18:4]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으니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깊은 물처럼 심오합니다. 또한 명철한 사람의 지혜는 마치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지혜가 풍성한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지혜는 흐르는 내와 같습니다. 잠언 18:4은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으니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고 비유합니다.

명철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철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명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명철해집니다. 아래에 언급되는 '명철'은 모두 히브리어 <비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기 28:28은 "[요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9:10 역시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명철'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악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2:3-4은 "[요일 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यो [요일 2:4]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는 삶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이 깊고 지혜가 샘솟는 명철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잠 18:5]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악인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비록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인을 악인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악인이 될 때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자녀를 악인으로 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배우자가 악인이 될 때 배우자의 입장에서 그런 배우자를 악인으로 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와 가까운 친구가 악인이 될 때 그런 친구를 악인으로

대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은 악인을 악인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지만, '사랑'은 악인을 악인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을 '사랑'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으로 살게 되면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비판하지 못하며, 올바르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정죄하셨을 때 옳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의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10은 "[롬 3:10]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은 아플지라도 악인을 악인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4:25은 "[잠 24:25]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는 자는 낙을 얻을 것이요 또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며, 올바른 책망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결코 '정'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 때문에 재판을 그릇되게 해서도 안 되며, 결코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8:5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악인을 악인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잠 18:6]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 18:7]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에게 해를 더하

고 그 입술은 자기 영혼의 덫이 되느니라

[잠 18: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벌
식과 같아서 밧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을 가졌고, 매를 벌어들이
는 입을 가졌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툼을 일으킨다면, 어쩌면 당신은 미련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다툼을 잘 일으
키는 입술을 가졌을 것입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누군
가 당신의 말을 듣노라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놀
라운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능력 때문에 당신은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습니
다.

당신은 배우자와 자주 다투나요? 미련하기 때문
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을 가졌기 때문이
죠. 당신 스스로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입술로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있
으니 참으로 당신은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 18:6
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

은 매를 자청하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그 미련한 입술 때문에 당신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멸망을 당할 것이며, 당신 때문에 당신 가족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친구들도 멸망을 당할 것이고, 당신 때문에 당신 교회 사람들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잘난' 입술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잠언 18:7은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에게 해를 더하고 그 입술은 자기 영혼의 덫이 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그런 독특한 입술은 당신의 영혼에 거미줄을 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물을 칠 것이고,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올라매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음을 지금껏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인식해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신의 그 미련한 입술 때문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매 순간마다 그 '잘난' 입술을 여는 이유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할 입이 아님을 압니다. 당신의 그 '잘난' 입술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떠들어 댈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떠들어대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별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잠언 18:8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험담을 말할 때의 기쁨이 매우 색다르기 때문이며, 다른 즐거움보다 훨씬 낫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28은 "[잠 16:28]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고 하여, 해로운 말이 관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입술이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잠 18:9]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게으르신 분이었다면 게으른 자를 그렇게 싫어하실 리 없을 겁니다. 사람들도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싫어하면서도 스스로 게으름을 피웁니다. 본인이 게으르면서 남이 게으른 것을 못 참는 사람은, 차라리 게으르면서 다른 게으른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의 삶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게으른 자의 미래는 패망하는 것뿐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잠언 12:24은 "[잠 12:2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스

리게 되다'는 히브리어 <모셀>로, '지배하다', '통치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지런함이 리더십과 권위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부림을 받느니라'는 히브리어 <테하예 레마스>로, '노동을 강요받다', '종이 되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게으름은 자유를 잃고 타인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게으른 자일 수 있습니다. 게을러서 사람에게 부림을 받는 존재가 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17에서 예수님께서 "[요 5: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지런함의 본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부지런히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의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부합합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하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 6:6-8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잠 6: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 6:7]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잠 6:8]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게으름의 사슬에 묶여 사람에게 부림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을 닮아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자유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잠 18:10]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

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 18: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보기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안전함을 얻을 곳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지만 부자는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재물에 가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죠.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잠언 18:10은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망대'는 히브리어 <미그달 오즈>로, '강한 망대', '피할 수 없는 요새'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자 안전한 보루임을 강조합니다. 반면 잠언 18:11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보기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견고한 성' <이르 미브차로> 곧 '요새화된 도시'로 여기며, 그것이 자신을 보

호해 줄 높은 성벽처럼 느낍니다.

당신의 견고한 성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혹 재물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혹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견고한 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21은 "[마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가 결정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안전과 보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을 물질적인 것에 두려 할 때 환상적인 통제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재물을 통해 얻는 안정감은 일시적이고 외부 환경에 취약하여, 결국 더 큰 불안감과 염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내면의 공허함과 유한한 삶의 불안을 회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견고한 성으로 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과 영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시편 20:7은 "[시 20:7]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
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견고한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
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때문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였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
에서도 매우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의 큰 기쁨이 된 존재였죠. 하지만 그가 교만함
으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잠언
16:18은 "[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
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
다. 교만한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게으른

자도 패망을 당할 것이지만, 교만한 자는 특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만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미련함 때문도 아닙니다. 악함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당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도 교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당신을 유혹합니다. 조금만 있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여유롭다 싶으면 교만해지며, 조금만 안다 싶으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멸망을 당하느냐 마느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당신이 교만하는 것 그 자체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면 멸망을 당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를 보면 하나같이 마귀를 닮았습니다. 마귀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마귀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들 중에 더욱 교만한 자가 많음은 어찌 된 일입니까?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마귀를 닮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상은 마귀를 섬기고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허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조금이라도 있다 싶을 때 허영심이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안다 싶을 때 허영심이 들어오며, 조금이라도 잘한다 싶을 때 허영심이 들어옵니다. 조금이라도 교인이 생긴다 싶을 때, 조금이라도 인기가 있다 싶을 때, 조금이라도 예쁘다 싶을 때, 조금이라도 건강하다 싶을 때,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을 때 허영심이 들어옵니다. 그 허영심을 조심하십시오. 허영심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허영심을 없애지 않으면 금세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잠언 15:33은 "[잠 15: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말씀

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직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여유가 있어도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일이 잘 풀려도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할 때에도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인기가 많아도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이 찾아오고, 겸손하지 않으면 허영심이 들어옵니다. 그 허영심을 막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담배 연기를 싫어하듯이 허영심을 싫어하십시오. 빌립보서 2:3은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권면하며 겸손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잠 18: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느니라

‘가장 훌륭한 상담가는 가장 잘 듣는 사람이다’라

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말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간섭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 뭔가 해답을 주기 위해 말을 자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 18:13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느니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이익은 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로 이런 사람은 인기가 없으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혹 당신은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사람입니까? 혹 당신은 남의 말에 끼어드는 사람입니까? 혹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 의도, 그리고 진심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이는 존중과 공감의 표현이며,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경청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어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합니다. 반면,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열린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말을 아끼고,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고

보서 1:19은 "[약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처럼 듣는 것을 먼저 하고, 신중하게 말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타인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경청을 통해 신뢰를 얻고 관계를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 18:14]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상한 심령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spirit)이 우리의 몸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영 <루아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다만 우리 인간의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에 연관된 것들만 가르치고, 혼과 육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육의 영역에 국한된 교육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여간해서는 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성경 안에 있는 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며,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안에 있는 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9-10은 "[고전 2: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강건할 때 비로소 육과 혼이 강건함을 얻습니다. 영이 강건한 사람은 혼의 영역이 더 빛이 납니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우며 더 신명난 삶

을 살아갑니다. 우울한 사람은 영이 우울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영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영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근원은 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합니다. 요한삼서 1:2은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며 영혼의 건강이 전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잠언 18:14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상한 심령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 이기려니와'에 해당되는 말은 <쿨>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매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담고 있다', '포함하다', '준비되다', '제공하다', '감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육신도 어떠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진다면 당연히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심령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과 혼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근원은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질병을 극복할 힘을 얻고, 진정으로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 18:15]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리는 명철해야 하며 지혜로워야 합니다. 명철해야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지혜로워야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엄청난 분량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지식은 영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과 혼의 영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과 혼의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과만 접촉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려고 노력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을 통해 대화를 나누려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영이 발견되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육과 혼으로만 살지 말고 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과만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24은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육적인 사람이라면 더욱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혼적인 사람이라도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육과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도무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심조차도 없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할지라도 살아가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죠. 그런 모습은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고, 당신이 얼마나 육과 혼적인 사람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고린도전서 2:14은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자신의 영의 영역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에 대해 한 번도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의 수가 한 번이라도 깨닫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당신은 놀라야 합니다. 이렇게나 영의 영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어찌

하여 당신은 전혀 충격받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에게는 세상의 뉴스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은 당신의 실체를 보여 줍니다. 이제라도 당신은 영의 영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하나님의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 18:16]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지만, 뇌물은 그 사람의 길을 좁게 만듭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곧 '넓힌다'는 뜻입니다.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지만, 뇌물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한다면, 이는 사람 보기에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곧은 길을 걷게 하지만, 뇌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걷게 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만들지만, 뇌물은 그 사람의 눈을 감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 사람의 판단을 선명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성경은 선물과 뇌물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잠언 18:16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물' <마탄>은 '증여물', '자발적인 기증'을 의미하며, 이는 받는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야르히브> 즉 '넓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표현됩니다. 선물은 관계를 돈독히 하고 기회를 열어주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뇌물'은 히브리어 <쇼하드>로, '뒷거래', '부정한 이득을 위한 대가'를 뜻합니다. 잠언 17:23은 "[잠 17:23]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고 경고하며, 뇌

물이 정의를 왜곡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뇌물은 일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지 모르나, 그 사람의 길을 좁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이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의 눈을 멀게 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양심과 도덕성을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선물과 뇌물이 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자도 당신이며, 뇌물을 주는 자도 당신입니다. 당신이 선물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뇌물을 줄 때는 당신 스스로의 이익이나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기의 차이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통해 사랑과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뇌물을 통해 불의를 행하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이사야 1:23은 "[사 1: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

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불의한 뇌물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것은 지금 선물입니까, 아니면 뇌물입니까? 당신의 의도는 무엇이며, 그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잠 18:17]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 18:18]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쪽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하고 다른 쪽 사람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들으면 공평하지 못합니다.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이는 한쪽 사람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한쪽 사람의 말

만 듣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주로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 그 말이 귀
에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의 판
단을 흐리게 할 때 칭찬을 사용합니다. 사기꾼은
항상 당신에게 칭찬의 말을 합니다. 사기꾼이 결
코 당신을 욕하거나 나무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의 말만 좋아해서는 안 됩
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
가로부터 칭찬의 말을 들을 때 "적군이다!"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칭찬의 말을 가
지고 오는 사람을 무조건 아군으로 생각하기 때
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할 때 먼
저 그 사람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는지 모
릅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 당신을 칭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20:19은 "[잠 20:19]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고 경고하며,
신중하지 못한 언어와 교제의 위험성을 지적합
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비뽑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 18:18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이유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어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는 감정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제비뽑기를 사용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제비뽑기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다툼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소금으로 고루게 하듯이 말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6은 "[골 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고루게 치듯이, 어떤 배추포기에는 소금을

잔뜩 치고 다른 포기에는 소금을 덜 치면 김치의 맛이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도 소금을 고루게 치듯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훨씬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공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판단과 언어는 지금 공평하고 지혜롭습니까?

[잠 18:19]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빛장 같으니라

[잠 18:20]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형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기분이 상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

있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굳게 닫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형제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는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듯이 형제 싸움도 그와 같습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죠. 그렇게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굳게 닫힙니다. 그러니 형제가 아닌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하게 마음이 닫히겠습니까? 잠언 18:19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빋장 같으니라"고 말씀하며, 상한 관계 회복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히는 이유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이라고 해

서 모두 나쁜 말은 아니죠. 비록 상대방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진정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나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에게 나쁜 열매만 돌아올 뿐이고, 우리 삶에 나쁜 열매만 맺힐 뿐입니다.

성경은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혀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어찌나 크지, 혀로 인해 맺어진 결과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혀로 인해 죽음이 오기도 하지만, 혀로 인해 생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혀를 길들이지 못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한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야고보서 1:26은 "[약 1: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

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만큼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것보다 혀를 운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혀는 아주 작은 신체의 일부분이지만, 혀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혀에 달려 있습니다.

[잠 18: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잠언 18:22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라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결혼이라는 것은 온전히 배우자를 '얻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얻다'는 말은 히브리어 <마차>인데, 이는 '찾다', '얻다'는 뜻 외에 '이루다', '이르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를 찾고 함께 사는 것이 얻는다는 의미의 전부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경지에 이르고,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나는 배우자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4은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여 결혼의 영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당신의 언어생활과 결혼 생활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당신의 말이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과의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잠 18:23]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

만 할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자의 말을 하게 될 때, 당신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먼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자의 말을 해야 합니다. 권세자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간절한 말보다는 다소 권세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부자는 '엄한 말'을 합니다. '엄한 말'은 강한 말을 뜻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강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자체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잠언 18:23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부자라면 강한 말이 나올 것이고, 당신의 말에는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당신 말에는 결코 강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간절한 말만 있을 것이고, 뭔가 구걸하는 듯한 말만 나올 것이며, 전혀 권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걸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권세 있는 말로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훨씬 강력한 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보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항상 간절한 말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당신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3은 "[마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말씀하듯이,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삶이 가난한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처럼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권세자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8:17은 "[롬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권세자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럴 때 당신에게 가난은 떠나갈 것입니다. 가난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가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잠 18: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당신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습니까? 혹 너무 많은 친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너무 많은 친구를 두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잠언 18:24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친구 때문에 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친구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친구 중에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두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형제 같은 친구를 두어야 합니다. 비록 친구의 수는 적을지라도 형제 같은 친구를 두는 것이, 많은 친구들 중에 형제 같은 친구가 없이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가 수량보다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에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을지라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15에서 예수님은 "[요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한 종이 아닌, 그분의 마음을 나누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친밀한 친구로 여

기십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친구'는 종종 우리의 시간, 자원, 감정을 소모시키거나 때로는 배신으로 이어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과의 우정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리 위에 세워지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참된 친구는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며, 당신의 성장을 돕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참된 친구의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참된 친구는 누구인가요?

잠언서 19장 =====

[잠 19:1]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입술이 패려한 자는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이간질시키며, 형제의 잘못을 들춰내는 자입니다. 이러한 패려한 입술을 가진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패려한 입술을 가진 것이죠. '패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익케쉬>로, '비틀어진', '구부러진', '그릇된'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9:1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며, 행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게으름으로 인해 가난한 자입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은 성실치 못한 경우가 많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실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한 사람은 게을러 가난해진 사람

보다 낫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툼>으로, '완전함', '무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하고 무결점의 삶을 살지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체적으로 성실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지라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난의 저주부터 끊어야 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가난의 저주, 죄로부터 얽매인 가난의 저주, 영적으로 막혀 있는 가난의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난의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모든 저주는 예수님을 통해 끊을 수 있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가난의 저

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3은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삶에 묶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잠 19:2]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죄 아래 놓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없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지식이 없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하대를 당하거나 멸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 쌓아야 합니다.

잠언 19:2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소원'은 히브리어 <네페쉬>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그 자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입니다. 창세기 2:7은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잠언 1:7은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지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와 멀어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을 얻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잠 19:3]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탓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탓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원망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여깁니다.

대체로 미련한 사람은 이웃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여기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먼 자로 살아가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쓰고 다닙니다. 잠언 19:3은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말씀하며, 미련한 자의 자기기만적인 태도를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다른 것일까요? 누가 미련한 자를 만

들었을까요? 당신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미련한 자의 이러한 태도는 책임 전가(Blame Shifting)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나 잘못을 인정하면 따르는 고통, 수치심, 그리고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타인이나 외부 환경,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성장을 방해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게 하여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시편 51:3-4에서 다윗이 "[시 51:3] 대저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 51:4]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줄 압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내면의 평안과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련한 자를 만드는 것은 외부의 강요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미련함과 고통의 굴레에 묶어둡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지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함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잠 19:4]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은 불의한 것이지만, 동시에 재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사람을 돕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사람까지 얻을 수 있죠. 이는 마치 재물이 신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

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버린 채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24은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며,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파멸적인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9은 "[눅 16: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재물이 불의한 것이지만, 그런 재물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소중하고 저축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친구를 얻는 것이 재물의 가장 큰 가치인 것이죠.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재물을 사용하여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충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6:11은 "[눅 16:11]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이는 재물에 충실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물은 하나님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물을 가리켜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10은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라고 경고하며,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가져올 영적인 파멸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은 그 자체로 선악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 사용 목적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여 우상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지만,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여긴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은 지금 당신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까?

[잠 19:5]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과 거짓말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삽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약속을

맏고, 한다고 해놓고는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안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도 죄입니다. 간다고 해놓고는 안 가는 것은 죄이고, 안 간다고 해놓고서 가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거짓말의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삼습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 동안 끊임없는 거짓말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아무나 쉽게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말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필시 거짓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이 없다면 반드시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잠언 19:5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녀에게도 거짓말

을 하지 마세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이 되고, 두 번의 거짓말이 세 번의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당신의 삶을 거짓 인생으로 만듭니다.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듯이, 거짓말이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에베소서 4:25은 "[엡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권면하며, 진실된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말은 내면에 불안감과 죄책감을 유발하여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이 반복되면 자기 기만이 심화되어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거짓말이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의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01:7은 "[시 101:7]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

에 서지 못하리로다”라고 하여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잠 19:6]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 19:7]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구제하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받을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더욱 빈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30은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설'이라는 뜻이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 부유한 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가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은혜를 받기 위해 너그러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9:6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으니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은혜' 역시 얼굴을 뜻하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뵈기 원하는 것처럼, 무언가 은혜를 얻기 위해 너그러운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곧 관대한 사람을 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관대하시듯이 우리도 관대해야 합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모두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관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하면서 관대한 것과 가난하면서 관대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난하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발길은 많이 끊어질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을 보고자 찾아온다면, 당신은 너그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매우 관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전혀 찾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유할지라도 관대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당신이 가난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언 19:7은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친구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형제도 찾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구할 얼굴'이 되고 있습니까?

[잠 19:8]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성경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잠언 19:8)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가능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스스로의 영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혜 또한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영혼'은 히브리어 <네페쉬>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로, 100% 영(spirit)만을 가리키는 <루아흐> 단어와는 달리 우리의 영과 혼을 총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네페쉬>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사마> 즉,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은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고 기록합니다. <네사마>와 <네페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생령' (Living Being)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네사마>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의 <네페쉬>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지혜'라고 하면 히브리어 <호크마>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잠언 19:8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는 <레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마음'이나 '의지', '정신'을 뜻합니다. 왜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지혜'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잠언 4:23은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지혜의 문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지혜도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

다. 마음은 단순히 뭔가를 느끼는 감정의 장소만
이 아닙니다. 마음은 단순히 뭔가를 깨닫거나 뭔
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
음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적인 영역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그
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
키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합니
다. 마치 깊은 물 맛을 취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
다. 물은 깊은 물 맛이 좋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혜는 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인간
의 가장 깊은 곳은 우리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
다. 물을 깊은 데서 끌어올리듯 지혜를 깊은 영
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귀하며, 지혜로운
자가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
랑하고 싶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 19:9]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하리라

거짓 증인을 하는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증인과 거짓말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삽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약속을 맺고, 한다고 해놓고는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안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도 죄입니다. 간다고 해놓고는 안 가는 것은 죄이고, 안 간다고 해놓고서 가는 것도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거짓말의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삼습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 동안 끊임없는 거짓말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아무나 쉽게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말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필시 거짓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이 없다면 반드시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잠언 19:5은 "[잠 19:5]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 말을 뱉는 자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녀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의 거짓말이 되고, 두 번의 거짓말이 세 번의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당신의 삶을 거짓 인생으로 만듭니다. 습관이 인격을 형성하듯이, 거짓말이 거짓 증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에베소서 4:25은 "[엡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고 권면하며, 진실된 언어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

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말은 내면에 불안감과 죄책감을 유발하여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이 반복되면 자기 기만이 심화되어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거짓말이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의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01:7은 "[시 101:7] 거짓말하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라고 하여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당신의 입술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잠 19:10]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성경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미련한 자의 사치를 마치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취급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과 지혜로운 자가 사치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치'하는 것을 나쁘다고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9:10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치'는 히브리어 <타아누그>입니다. 이 단어는 '화사함', '사치', '호사', '격렬한 기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사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고 한 것은, 미련한 자에게는 진정한 큰 기쁨이 없고 호사로운 삶을 누릴 자격도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미련한 자라면 당신에게는 큰 기쁨이 없을 것이고, 호사로운 삶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미련한 자라면 사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쌍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화사하게 살고, 호사롭게 살며,

사치하며 살고,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더럽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복을 취하지 않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미련한 자만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복을 누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은 사치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누가 사치를 행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짐을 시사합니다. 미련한 자의 사치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분별함을 드러내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호사를 누릴 만한 내면적, 영적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의 내면 상태, 곧 지혜로움과 미련함을 반영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자의 손에 있는 재물은 덕을 세우고, 기쁨을 나누며,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치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손에 있는 재물은 탐욕과 허영심을 부추기고, 결국 자신과 주변을 해롭게 하며,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사야 32:6은 "[사 32:6]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이 함이요"라고 어리석은 자의 파괴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종류의 '사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소유는 지혜로운 자의 큰 기쁨과 호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잠 19:11]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 19:12]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세켈>로, '통찰력', '이해력', '사려분별'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미련'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

은 노하기를 쉽게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더디하다'는 말은 '길다'는 뜻으로, 분노를 오래도록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분노를 오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분노를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낸다면, 당신은 슬기로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미련한 자일지 모릅니다. 잠언 14:29은 "[잠 14: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며, 분노 조절이 곧 명철과 어리석음을 가르는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능력은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이는 통찰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선택이자 연습을 통한 습득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충동적인 반응 대신 지혜로운 대처를 선택합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관계를 보존하려는 깊은 사려분별의 결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감정을 조

절하고 분노를 인내하는 것은 정서 지능의 핵심 요소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반대로 노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미련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며, 결국 후회할 만한 행동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잠언 15:18은 "[잠 15:18]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며, 성급한 분노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분노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슬기로운 자처럼 분노를 더디하고 인내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처럼 쉽게 화를 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선택은 당신의 삶에 평안과 관계의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잠 19:13]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

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는 재앙을 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재앙은 곧 멸망을 의미하며, 실제로 재앙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멸망'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싫어하셨으면, 미련한 자 때문에 부모가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잠언 17:21은 "[잠 17:21]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며, 미련한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을 강조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미련하지 않다면 먼저 미련한 자녀를 두지 않은 것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가 미련하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미련한 자가 된 데에는 어쩌면 나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미련해진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회개의 장소로 인도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를 둔 부모가 재앙을 만난 듯이 고난의 삶을 맞이한 것이라면, 다투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잠언 19:13은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표현은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투다는 말은 논쟁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며 논쟁하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마치 비를 맞는 사람과 같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라 바늘과 같은 비를 끊임없이 맞는 것이죠. 온몸이 터지고, 마음이 터지고, 정신이 터져버릴 듯한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투는 배우자와 함께 산다면, 이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툼이 죄악의 결과임을 여러 번 경고합니다. 잠언 17:14은 "[잠 17:14]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말하며, 다툼의 시작을 경계합니다. 우리의 내면적 죄악과 잘못된 태도가 외적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의 과정입니다. 요한일서 1:9은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합니다. 자녀의 미련함이나 배우자와의 다툼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잠 19: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즐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즐기로운 아내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즐기로운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은 천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집과 재물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잠언 19:14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즐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내가 다 즐거운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아내는 즐거운 아내이지만, 어떤 아내는 즐거움지 못한 아내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비록 나의 아내가 즐거움지 못한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를 즐거운 아내로 여긴다면 그 아내는 즐거운 아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남편들이 즐거운 아내를 얻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즐거운 아내로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즐거운 아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즐거운 아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반드시 즐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아내가 즐거움지 않을지라도 남편이 그런 아내를 즐거운 아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즐거운 아내로 인정할 때, 아내가 즐거운 아내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즐거운 아내를 만나기 원할 뿐이고, 즐거운 아내를 찾지만 할 뿐이며, 슬

기로운 아내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런 남편에게는 좀처럼 슬기로운 아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18:22은 "[잠 18: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내를 얻는 것 자체가 복임을 말하지만, 그 아내를 슬기롭게 만드는 것은 남편의 역할에 달려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같은 심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의 기대나 믿음이 그 대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슬기로운 존재로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며 대할 때, 아내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실제로 더 지혜로운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5:28은 "[엡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오늘 아내를 바라볼 때에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내에게 "당신은 참으로 슬기로운 여인이요"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인정과 사랑이 아내를 진정으로 슬기롭게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잠 19:15]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합니다. '깊이 잠든다'는 표현은 마치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처럼 게으른 자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으를 때 이미 그 사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해태한 사람입니다. '해태'라는 말은 히브리어 <레미야>인데 '느슨함', '속임', '태만', '사기', '반역'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태만한 사람으로 남을 속이고 사기 치며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9:15은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

니 태만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부지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17에서 예수님께 서는 “[요 5: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주님께서도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쉬 없이 일하시며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이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기보다 오직 주변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 삼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조차 호화스러운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식사를 전혀 안 하신 것은 아니었으나, 요한복음 4:34에서 예수님은 “[요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주님처럼 사십니까? 혹 당신을 위해 수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무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당신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정욕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16은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사명을 완수하는데 더 힘을 쓰라고 말하는 제가 참 어리석습니다.

[잠 19:16]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 <미츠와>는 도덕법(Moral Law)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도덕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필요한 법이며,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도덕법은 '십계명'(The Ten Commandments)에서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영혼'은 <네페쉬>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혼과 영 전체를 의미하는 말 그대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생령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살아 숨 쉬기는 하나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잠언 19:16)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행실'은 <데레크>로서 '방식'이나 '태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살아 있는 동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며, 살아 있지만 죽은 존재, 즉 '좀비'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삼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자>입니다. 이 단어는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멸시해서도 안 되며, 경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구식이라고 생각하거나, 십일조 하는 사람을 어리

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구약의 유물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5:3은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업신여기며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

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값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꺾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가난한'이라는 말은 <달>로서 '낮은', '약한', '가난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사람과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자주 연약한 자를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발로차는 행위요, 하나님께 침을 뱉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옛날에도 주님을 향해 침을 뱉는 사람이 있었고, 주님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도 있었고, 주님의 다리를 꺾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머리에 씌우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멸하실 때, 누구를 먼저 멸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뺨을 치고 주님께 침 뱉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당신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일지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찌 당신은 힘없고 낮은 자를 멸시하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일지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미쳤어요?"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보여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똑똑히 보시고 이제 더 이상 낮고 천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40은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잠언 19:17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만일 당신이 뭔가 한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 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없다면, 어쩌면 당신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주변의 가난한 자를 살펴보세요.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누가 낮은 자입니까? 그들을 향해 눈을 돌리세요. 주님도 그들을 향해 눈을 돌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눈을 돌리지 마세요. 당신도 바리새인이 되려고 합니까?

[잠 19:18]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면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자녀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녀이니까 소망을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녀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참혹한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는 해야겠지만 죽여서는 안

되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잠언 19:18은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는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친척이든 친구든, 소망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절대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녀로 여기면 참고 견디는 것이 쉬워 집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그릇이 되면 품을 수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찌꺼기를 끌어안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과 인내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7은 "[고전 13: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사랑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소망을 두는 것은, 그들이 가진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잠재력과 변화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인

내심과 관용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44).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누구를 향한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잠 19:19]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건져 주게 되리라

사람은 누구나 분을 품습니다. 화를 내게 만드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화를 크게 냅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엎어버릴 정도로 화를 내고, 모든 물건을 부서버리며,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당장 나가!"라고 하거나 "우리 이혼해!"라고 함부로 말을 내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 들로부터 벌을 받게 되죠. 경찰에 붙잡힘을 당할 것이고, 친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고, 귀한 것을 빼앗기며, 오고 갈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잠언 19:19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건져 주게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런 사람을 건져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화를 크게 낼 때는 미운 감정이 있지만, 금세 그런 미움의 감정이 연민의 감정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네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건져 주게 되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먼저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먼저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남을 때렸으면 먼저 맞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도둑놈이 불쌍해서 "그냥 뉘라. 오죽했으면 도둑질을 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도둑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때리는 사람을 "그냥 뉘라. 때릴 이유가 있으니까 때렸겠지"라고 말하거나 "이제는 다시 그런 짓 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세게 때릴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당신부터 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징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의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 그 행동은 반복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강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없을 때, 그 행동은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명확한 결과와 징계는 학습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거나 결과를 회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더 큰 악을 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의와 지혜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단호한 태도가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잠 19:20]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 19: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게는 성경의 지혜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성경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성경이 권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혜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며, 때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당신도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당신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필경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1:7은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하느니라”고 말씀하며,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견줄 바가 못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아이디어가 많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지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의 지식은 성경의 지식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지혜자도 성경을 통해 빛어진 지혜자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시편 119:99-100은 “[시 119:99]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를 늘 묵상함이니이다 [시 119:100]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의 탁월함을 노래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잠 19:22]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잠언 19:22)는 말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자함을 베풀 때 남에게 사모함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에게 사모함을 받게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 <타아와>라는 한 단어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타아와>는 '욕구', '갈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자함을 베풀 때,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우리는 뭔가를 바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 없이 선행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욕구가 있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

니다. 아무런 갈망 없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뭔가를 바라시는 것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은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바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서는 자녀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 자녀를 훈육하며, 자녀가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인자함으로 베풀지 아니하면 돌아

오는 보상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바란다면 우리는 인자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베풀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12은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가르칩니다.

가난과 거짓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다

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9:17은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행위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보다 더욱 미워하시는 자가 있으니,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잠언 19:22은 또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명확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보다 거짓말하는 자를 더 미워하시는 이유는,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44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

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귀만이 거짓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2:22은 "[잠 12: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기록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짓말만 허용될 수 있지만,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어떤 거짓말도 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자함을 베풀고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잠 19: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

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고, 족하게 지내
게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
합니다. 잠언 19:23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
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만족함을 주며, 재앙이 물러나게 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이르아>는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사랑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포
함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은 두렵고 떨
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

나눔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상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쾌락과 유흥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찌 알겠으며, 예수님을 어찌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6에서 예수님은 "[요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족함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족함이 있습니다. 이는 그 무엇이든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만 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 같을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무엇이든

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죄인 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두렵고 떨림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모든 환경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빌립보서 4:11-13에서 바울 사도는 "[빌 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 4: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며 자족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없습니다. 이는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재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23에서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죽음의 사자는 곧 재앙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재앙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피한 것입니다. 재앙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재앙은 주님의 보혈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일서 3:8은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주님의 보혈을 피해 달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이기 때문에 보혈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이기 때문

에 주님의 보혈이 그들을 덮는 것입니다. 추워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추워서 떨어 때 필요한 것은 이불입니다. 이불을 뒤집어쓰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으며 행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불처럼 임하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당신을 덮게 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이 당신을 덮을 때 당신은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만 주님의 보혈이 덮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5:9은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경외함 속에서 생명과 만족, 그리고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를 경험하고 있나요?

[잠 19:24]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9:24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귀를 닮은 자입니다. 마귀는 게으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게으른 것입니다. 당신이 마귀를 만나보면 알겠지만, 무지하게 게으릅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게으릅니다. 왜 그들이 게으른지 아십니까?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게으른 것은 게으른 악한 영들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17

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요 5: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먹지도 말라고까지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10은 "[살후 3: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게으르지 않는 자로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당신이 하나님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마귀처럼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선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잠 19:25]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때리십니다. 거만한 자에게는 형벌이 가해집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지 않으면 이내 곧 교만한 자가 돼버립니다.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곧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는 마귀의 혈통을 물려받은 자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기 전 단계가 거만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때려야 합니다. 잠언 19:25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가 맞지 않으면 거만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만한 자는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는 그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 가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거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겸손하십니다. 거만한 자는 겸손치 않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겸손과 교만의 기로에 서 있는 자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한 자가 될 것이지만, 애써 노력할 때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명철한 자를 견책하십니다. 잠언 19:25에서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거만한 자가 명철한 자라면 그가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명철하여서 지식을 얻게 된다면 어쩌면 그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겸손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겸손한 자일지라도 겸손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명철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이지만 그가 명철한 자라면 어찌면 그는 겸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거만한 자들이 주로 교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교만은 사탄의 본성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사야 14:13-14은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 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라고 사탄의 교만을 묘사합니다. 이는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교만이나 거만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늘 성찰해야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3은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

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거만함의 길입니까, 아니면 겸손함과 명철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잠 19:26] 아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 19:27]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사람이 얼마나 거만하면 그 부모를 함부로 대할까요? 거만한 자는 아버를 구박하고, 아버를 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어미를 쫓아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건만, 거만한 자는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고 멸시합니다. 잠언 19:26은 “아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를 쫓아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는 부모의 부끄러움이며 수치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능욕을 부르는 자식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자녀는 결국 하나님의 부끄러움이며 수치를 가져다주고, 하나님께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를 향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거울이 됩니다. 출애굽기 20:12은 십계명 중 하나로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명령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 근원과 질서를 부정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거만한 자녀의 행동은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적 비난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

은 내면의 분노,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무례함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돌아와 고독과 불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베소서 6:1은 "[엡 6: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여 자녀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잠 19:28]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잠 19:29] 거만한 자를 위하여는 심판이 예비되었고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예비되었느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깁니다. '망령된 증인'이라는 말은 곧 악한 증인을 뜻합니다. 악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무시하기 때문입

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된 증인인 반면, 어떤 증인은 진실을 무시하는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귀를 증거하죠. 악한 증인은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멸망시킵니다. 잠언 19:28은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나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죄를 삼킨다는 표현은 물을 마신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악인은 물을 마시듯 그렇게 죄를 마십니다.

심판은 이러한 악인을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망령된 증인은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일수록 악한 증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만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고, 거만하기 때문에 죄를 물 마시듯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만한 자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의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잠언 19:29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는 심판이 예비되었고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예비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거만한 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채찍질을 가하지 않으면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어 멸망의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만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이 우리의 등을 때릴 것이고, 많이 아플 것입니다. 히브리서 12:6은 "[히 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거짓 증언과 거만함은 영적인 파멸로 이끄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거짓 증인은 진실을 왜곡하고, 그들의 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며 사회의 공의를 무너뜨립니다. 거만함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결국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하나

님의 공의와 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과 거만함으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20장 =====

[잠 20: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많은 선택들 속에서, 술 취함은 우리 영혼에 드리우는 짙은 그림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술잔 속 유혹에 빠져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등불은 스러지고 마음의 눈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술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적인 분별력을 빼앗을 때, 우리는 거룩한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유혹의 잔을 멀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욱 깊은 영적 절제와 맑은 영혼이 요구됩니다. 그 위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마음과 깨어 있는 정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오늘날 우

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습니다. 물이 귀하고 오염되기 쉬웠던 시절, 발효 과정을 거친 포도주는 삶의 필수적인 음료이자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수와의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당시 포도주가 얼마나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서도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의 상징으로 종종 등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막에 들어설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레 10: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명령은 단순히 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영적인 순결과 온

전한 정신을 유지하라는 엄중한 요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평소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명령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그들이 일상에서는 포도주를 마셨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술 자체가 절대적으로 악하기보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마시는가가 중요하며,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절제가 필요했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단호한 경고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취함을 깊이 미워하시며,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고전 6:10] 도적이거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강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술 취함을 도둑질이나 탐욕과 같은 심각한 죄와 동일선상에 놓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중대한 방해물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행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술로 인해 이성을 잃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상태, 곧 영혼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술 취한 자들과는 교제조차 멀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고전 5: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는 술 취함이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그 거룩함에도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술 취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관계를 깨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나실인들은 특별한 서원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존재들이

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으며, 다른 엄격한 규율을 지켰습니다. 삼손이 바로 이러한 나실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삿 13: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아무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일률적으로 나실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실인의 수는 극히 적으며, 이는 그들의 삶이 특별한 소명과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실인의 엄격한 금주 규율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의 전체 맥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4절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권면하며, 잠언 31장 6절에서는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실인의 엄격한 규범

으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들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술에 영혼을 내맡겨 방탕하게 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유는 우리가 각자의 소명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롭게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전 6: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 덕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나실인과 같은 철저한 금주가 곧 그들의 거룩한 삶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예를 들어 목회자, 장로, 권사님들처럼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마땅히 나실인과 같은 영적 절제와 구별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곧 공동체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술이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술 취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흐리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소명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된 삶,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각인될 것입니다.

[잠 20:2]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지존하신 왕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처

럼, 듣는 이의 마음을 압도하는 강력한 울림을 지닙니다. 그러하기에,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이며, 이는 곧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는 바로 땅의 왕입니다. 왕의 진노 또한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서, 누구든지 왕의 분노를 사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하늘의 권위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응하는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잠 20:3]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이어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만일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자라면, 불필요한 다툼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다툼이 있는 현장으로부터 멀어지라고 속삭이며, 애초에 다툼이 생길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어 다투려 한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다툼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지혜이며, 오히려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다툼이 있는 곳을 즐겨 찾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기어이 다투어 이기려 합니다. 결국 이기기 위해 다툼을 벌이는 것이죠.

[잠 20:4]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삶에서 부지런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제때 밭을 갈지 않으면 추수 때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진정 충성된 일꾼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뿐입니다. 그의 말은 행동보다 앞서고, 혀는 몸보다 부지런합니다. 그에게는 그저 말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 충성된 일꾼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과 혀로만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과, 묵묵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임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누가 게으른 자이고 누가 부지런한 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잠 20:5]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렇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깊은 생각과 계획은 마치 깊이
이를 알 수 없는 물과 같아서 좀처럼 파악하기
가 쉽지 않습니다. 얇은 물이라면 바닥까지 들여
다볼 수 있지만, 깊은 물은 그 속을 온전히 보여
주지 않듯이, 사람의 마음속 생각과 계획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깊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잠 20:5]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
어 내느니라”

아무리 사람의 마음속 계획을 아는 것이 어려울
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낼 수 있다
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영적 분
별’이라 부릅니다.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은 상대방의 마음을 통찰하고 그 깊은 의도를 깨
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속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읽는 데 탁

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며 쌓은 경험과 통찰력으로 사람의 행동이나 외모를 통해 그 내면의 생각과 계획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외모 역시 그 사람의 됴됨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이 뛰어난 사람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타인의 속마음을 들여다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별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영적 분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영적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분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계획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통해 타인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분별입니다. 구약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바로의 생각이 어떠할지, 그의 마음에 품은 계획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 수 있었기에, 그는 출애굽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러한 영적 분별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속마음을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먼저 이 은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때로는 환상을 통해 상대방의 속마음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명확하게 사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속 생각과 계획이 어떠함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삶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

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나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적 분별의 은사가 필수적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통찰력이 어찌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필요치 않겠습니까? 마땅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를 얻고 개발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잠 20:6]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고, 자신이 의롭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은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며, 어찌면 우리에게 찾아온 귀한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고 시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은 잘났다고 생각하기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충성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능력을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충성된 사람을 삶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자녀가 이처럼 충성된 사람을 만나 복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이의 충성을 바라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충성 그 자체이십니다. '충성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충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부족하셨기 때문에 충

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개념은 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덕목입니다. 아랫사람만이 위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듯이 나라도 그 사람을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신실할 수 있듯이, 남편 또한 그 아내에게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자를 가차 없이 내쫓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랫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위사람이 충성된 자세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다면, 회사는 먼저 그 직원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일을 먼저 시켜놓고 나중에야 월급을 주는 행태는 도둑과 다름없습니다. 진정 충성된 회사는 직원을 고용할 때 먼저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며, 믿음으로 일을 맡깁니다.

충성된 사람은 항상 먼저 충성을 보여주는 법입

니다. "내가 너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충성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다면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충성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이득만을 좇는 도둑 같고 사기꾼 같으며 강도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충성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충성을 먼저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하셨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충성을 계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순간에도, 그분의 충성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유지되는 충성입니다. 참된 충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지라도 충성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우리를 배신하는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진정한 충성은 변함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성되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충성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성이 있어야만 나의 충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충성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잠 20:7]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진정 완전히 행하는 자를 우리는 의인이라 부름

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한 의인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의인이셨으며, 성경에는 그분의 빛을 따라 살았던 수많은 의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아무런 결점이나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이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려 애썼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흠 없고 점 없이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벤후 3: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의인이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찌 후손들만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 때, 나 자신 또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 가까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당신을 통해 지금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을지, 잠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잠 20:8]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흠어지게 하느니라

왕이 심판의 자리에 앉으면, 그는 모든 악의 진상을 낱낱이 가려냅니다. 이는 그가 최고 권력의 자리, 즉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며, 누가 진정한 죄인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늘 아래 그분께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심판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점차 완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보다 더 뛰어난 CCTV는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 20: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 누가 감히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기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짓는 죄, 즉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진실을 깊이 깨닫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롬 3:10]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깨끗해질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 20:10]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잠 20:11]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잠 20:12]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마음과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장사를 하는 이는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야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정직하게 지식을 탐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정직하게 목회를 감당해야 하며, 가정주부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정직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한결같지 않은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상인의 속임수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미워하신다'는 표현은 종종 '억겨워하신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억겨워하시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정직함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조차 그 행위로 정직성을 드러내는데, 하물며 성숙한 어른의 삶은 얼마나 그의 정직함을 선명하게 드러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정직함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

나 많은 이득을 보았는가에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아야만 기분이 좋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정직에 관심을 두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눈과 귀를 정직함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눈으로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바라보고, 귀로 자신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얼마나 더 큰 이익이 있을지를 바라보고, 귀로는 얼마나 돈이 될 것인가 하는 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는 소식에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반짝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눈과 귀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

다. 세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온전히 정직함에 있다면, 우리의 눈과 귀 역시 정직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해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금세 화를 내고,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미워하며,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적인 다툼까지 불사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가장도, 가정주부도, 자녀들도, 심지어 교회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장사꾼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손해 보는 장사를 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바로 이 '손해 보는 장사'를 경험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맏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감수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

셨습니다. 만일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라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인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당신이 경찰청장이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의 경찰청장보다 못한 것처럼 가만히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을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어떤 상인은 하나님을 위해 과감히 이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장사를 이어갑니다. 그래도 그는 행복합니다. 장사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장사해서 남긴 이윤을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러한 상인이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을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때로는 손해 보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교회 성도들을 모두 붙잡아 두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교회 성도를 다른 교회로 기꺼이 보내주는 목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손해 보는 목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정직한 목회입니다. 가난한 교회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혹 그들이 가난해진 것이 당신이 그들의 성도들을 다 데려왔기 때문은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꼭 잘 되어야만 좋습니까? 꼭 성공해야만 직성이 풀립니까? 꼭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손해 볼 때입니다. 남들은 이익을 추구하며 살지만, 우리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봅시다. 어쩌면 그것이 정직하게 살기 위한 가장 첫걸음인지도 모릅니다.

배우자에게 손해를 봅시다. 자녀에게 손해를 봅시다. 부모에게 손해를 봅시다. 다른 교회에게 손

해를 봅시다. 다른 가게에 손해를 봅시다. 다른 성도에게 손해를 봅시다. 이제는 진정으로 손해 보고 살아봅시다. 행여나 내가 배우자보다 이익을 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여나 내가 자녀보다 이익을 보고 살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여나 내가 다른 교회보다 이익을 보고 살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여나 내가 다른 가게보다 이익을 보고 살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여나 내가 다른 성도보다 이익을 보고 살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손해 보는 것이 진정으로 이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해 봅시다. 이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 일인지 느껴봅시다.

[잠 20:13]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유하시기에, 가난한 속성은 그분의 본성과 상반되는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연민을 느끼시기보다 오히려 미워하신다고 오해하기도 하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어렵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 사람이 가난의 굴레에 갇히는 일은 사실상 드뭅니다. 만약 그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때로 우리를 허망한 욕망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이끌곤 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가난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은 결코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헌신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재산을 하나님을 위

해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 직장과 회사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왜 버렸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혹은 세상적인 정욕과 이기심 때문에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버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조차도 신중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을 택했다면, 당신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빈궁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눅 18: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눅 18:30]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면, 그 안에는 게으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이 게으를 뿐 아니라 마음도 게으르고, 생각조차 게으르며, 영혼까지도 게으른 경우가 흔합니다. 육과 혼과 영 중 단 하나라도 부지런하다면 결코 가난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가난은 육과 혼과 영의 총체적인 게으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결코 게으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기기에, 그분 안에는 게으름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한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부지런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이 당신의 것이 되어,

그 지혜와 지식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니, 결코 가난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혼(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당신을 감싸 보호하며, 당신의 재산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흩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마치 물 새듯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심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육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당신의 몸은 놀랍도록 건강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공급되어 모든 세포가 활발하게 운동하며, 힘이 넘쳐나고 지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선물로 주실 것이니,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의 정욕은 힘을 잃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불필요한 돈이 지출되고, 그로 인해 가난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가난은 어쩌면 처음부터 포기한 결과가 아니라,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 지쳐버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난은 당신 스스로가 만든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잠 20:14]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잠 20:15]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입술을 가졌습니까?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지혜'는 <디아트>입니다. <디아트>는 '알다'란 뜻의 <아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모두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입술이 깨끗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체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일체 부정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흘러나와서도 안 됩니다. 포기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저주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는 대로 보물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과의 거래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건을 살 때 거짓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입술에 거짓을 다는 것입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일부러 “물건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말은 결국 보물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잠 20:16]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증 서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의 보증을 반대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보증을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보증 서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함입니다. 물론, 보증은 본질적으로 남을 위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

랑하고 돕기를 언제나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 서는 것을 금하시는 이유는, 보증으로 인해 우리가 파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더구나 선행을 베풀다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보증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만한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신다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증을 섰다가 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보증을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증으로 인해 망할 때는 그 누구로부터도 온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라고 명하신 것은 보증을 서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의 옷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옷은 생존과 직

결된 것이었기에, 불쌍한 이의 옷을 취하는 것은 그를 죽도록 내버려두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한 사람의 겹옷을 빼앗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옷을 취하라고까지 명하신 것은,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 서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볼모로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잔인한 일을 우리에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절대 보증을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불쌍한 사람의 겹옷을 빼앗고, 보증을 선 사람을 포로로 잡아둘 마음이 있다면 보증을 서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단 1%의 보증 서려는 마음조차도 버려야 합니다.

[잠 20:16]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을 서는 대신, 차라리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그냥 주십시오. 꺾주지 마시고, 아예 선물처럼 주십시오. 그것이 보증을 서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은 방법입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조차 줄 수 없다면, 더 이상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당신의 집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주고 당신은 다리 밑으로 들어가 살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당신의 그러한 선행을 진정으로 기뻐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보증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삶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았더라면,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법을 잘 준수하며 살았더라면 결코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또 다른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쉬운 길'이 있기에 그 사람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두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보증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때로는 그 사람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잘못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보증을 선 당신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잠 20:17] 속이고 취한 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남을 속여 얻은 한 그릇 밥은 당장에는 꿀맛 같을지 몰라도, 결국 그 입에는 모래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후회와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함을 최우선으로 삼

아야 합니다. 비록 배가 고프더라도, 남을 속이면
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
하시고, 주님께서 정직하시며, 성령님께서 정직
하시기에 우리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
해질 때 비로소 세상도 정직해질 것입니다. 우리
의 정직한 삶이 세상에 작은 빛이 되어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잠 20:18]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니 지략
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의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
니다. 우리는 배우자, 자녀, 친구, 또는 주변의 아
는 사람들과도 의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보다 더 중요한 의논 상대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한두 번 의논하
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아니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 항상 문제가 생

기기 마련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작전 회의를 거칩니다. 신중하고 충분한 작전 회의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성급하게 전쟁을 치르면 잘못될 수 있죠. 우리 인생도 전쟁과 같습니다. 사람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 건강과의 전쟁 등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끝없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 대화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 해도, 얼마든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직 어렵다면, 먼저 자신의 영과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자신의 영과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꾸준히 대화를 나눠보면 자신의 영과 대화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는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조력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지혜로워지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잠 20:19]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할 일 없이 이리저리 쏘다니기 좋아하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을 퍼뜨리고 싶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일 없이 쏘다니며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비밀이 없습니다. 입이 너무 부지런해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지니라"(잠언 20:19 하반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당신 주변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혹시 당신 자신이 두루 돌아다니며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쉽게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인가요?

[잠 20:20]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칠흑 같은 한밤중에 위태롭게 들고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인생이죠.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저주하는 자의 삶은 마치 불이 꺼지듯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불을 다시 살려주지 않으며, 그렇게 불은 꺼져버리고 어둠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잘 섬기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받듯이, 부모를 잘 섬길 때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부모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엡 6: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3]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잠 20:21]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루아침에 모은 재산은 나중에 결국 사라지고
됩니다. 재산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서는 안
돼요. 이는 재산도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쉽게 재산이 들어오게 되면 하
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며 자만하기 쉽습니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
주 적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주 쉽고 빠르게 많은 재산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
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
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비로소 더 큰 재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잠 30: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
소서 [잠 30: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

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 20:22]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입을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보다 우리가 다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원수가 예뻐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겨나고, 그 상처가 자리를 잡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육신은 병들고, 영혼은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 5: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잠 20:23]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남을 속여 얻은 한 그릇 밥은 당장에는 꿀맛 같을지 몰라도 뒷날에는 그 입에 모래만 가득합니다. 항상 정직함이 우선입니다. 비록 배가 고플지라도 남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시니 우리도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정직하시니 우리도 정직해

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정직하시니 우리도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비로소 세상도 정직해질 것입니다.

한결같이 앎은 저울 추를 사용하는 이유는 부당한 이윤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는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도둑질과 같으며 강도질과 같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이며 칼 없이 강도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앎은 저울 추를 사용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은 <토에바>인데 이 말은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남을 속이면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혐오스럽게 여기시고 가증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시는데 그래도 당신은 거짓된 저울 추로 도둑질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강도질을 행할 것입니까?

[잠 20: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만, 비록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곧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주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지라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질없는 삶입니다.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삶이며, 결국은 지옥으로 갈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비록 우리의 걸음이 험난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은 안전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많고 힘든 여정일지라도, 그 안에는 깊은 보람이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 20:25]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덧이 되느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일은 매우 귀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서원이 오히려 우리에게 덧이 될 수도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서원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텐데,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달아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쳤어요. 남의 눈치를 보거나 억지로 서원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옳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

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바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서원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귀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애써 서원한 것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셈이죠.

어떤 사람들은 서원한 것을 자신의 일상생활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헌금한 것을 나라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쓰거나,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면제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헌금을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웃에게 구제할 여유가 없다고 말하거나,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으니 친척을 도

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서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7:11]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릴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막 7:12] 자기 아비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릴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잠 20:26]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악을 미워하고, 악인에게 마땅한 벌을 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일 악인에게 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는 선한 사람일 수는 있으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을

쫓아내고 몰아내며,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가합니다.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는"(잠언 20:26 하반절)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악인을 키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악인을 타작하는 바퀴로 그 사람을 깔아뭉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당신이 악인에 대해 것처럼 형벌을 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 20:27]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속마음은 쉽게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사마>입니다. 이 단어는 '영'(spirit)을 뜻하는 <르아흐>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곧 하나님의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 길을 밝히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고유한 기능 때문입니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영(Spirit)으로 존재하시며, 모든 심령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다 살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지혜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살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파스>입니다. 이 단어는 '찾다', '수색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마치 물속을 들여다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속마음은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자세히 찾아봐야 하듯이, 사람의 속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온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하듯이, 그렇게 깊이 살피고 찾아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은 대충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수색하고 찾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혼'〈네
사마〉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등불
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래 그러한
등불이 없지만, 하나님의 등불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잠 20:28]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나
라의 왕과 같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인자함
과 진리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왕으로서 스스로를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셨습
니다. 주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인자와 진리로
굳게 서야만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
습니다.

'보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차르>로 '지키

다, '보호하다', '망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파수꾼이 적의 움직임을 항상 살필 때, 또는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인자와 진리를 살피야 합니다. 내게 인자함이 있는지,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잠언 20:28 하반절)고 말씀합니다.

[잠 20:29]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यो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이는 자신의 힘을 뽐냅니다. 하지만 늙은이는 뽐낼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겨우 백발뿐입니다. 백발은 결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늙은이가 의롭게 살 때뿐입니다. 만일 늙은이가 추하게 산다면 더 이상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잠 16:3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늙은이도 힘을 가져야 합니다. 힘을 잃으면 무조건 추해지고 맙니다. 왕이 힘을 잃으면 추해지듯이, 아버지가 힘을 잃으면 추해집니다.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서 '힘'은 <코아흐>로서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이에 비해 젊은이는 힘이 세지만, 성경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가리키지 않고 오히려 '능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능력은 늙은이에게 더 많습니다. 젊은이는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죠. 돈도 늙은이가 훨씬 많습니다. 지혜도 늙은이가 훨씬 많습니다. 친구도 늙은이가 훨씬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늙은이가 젊은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육체적인 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젊은이처럼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죽어 사는 늙은이가 있습니다. 초라하

게 보이는 늙은이가 있죠.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젊을 때 돈을 아껴 쓰십시오. 자녀에게 재산을 다 소비하지 마십시오. 흥청망청 사치하지 마십시오. 돈을 절약하십시오. 노후를 대비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그야말로 백발백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백발만 남아 있는 사람은 결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늙은이는 그야말로 추할 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죽기 전까지 일하십시오. 쉬지 마십시오. 은퇴하지 마십시오. 은퇴하면 늙은이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일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일을 해야 힘이 생깁니다. 일을 해야 능력이 보존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로 살게 됩니다.

[잠 20:30]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매’는 사람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매’는 히브리어 <막카>입니다. 이 단어는 ‘

타격'이나 '부상' 같은 뜻도 있지만, '학살'이나 '재난', '재앙'과 같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뭇가지로 때리는 '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뭇가지나 손바닥으로 때릴 때는 반항감이 생기지만, 재난과 재앙 같은 '매'를 만나게 될 때는 반항감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거꾸러지고 낙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항은 힘이 남아 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전혀 힘을 쓸 수 없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항하지 않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러한 '매'를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반항조차 하지 못하게 내리치시며, 완전히 낮아지고 낮아질 때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한꺼번에 퍼부으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숨조차 쉬기 어렵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잠언

20:30 하반기)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때, 그 고난은 사람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굳이 좋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난보다 더 좋은 학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가르침을 배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사람만이 진정한 빵 맛을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를 때리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악이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매를 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때리는 부모는 없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잠언서 21장 =====

[잠 21:1] 왕의 마음이 여호와에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을 임명하시는데, 이는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 위정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만일 위정자가 정치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을 세우셨기에,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마치 시냇가의 물길을 임의대로 바꾸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여 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 21: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다고 여깁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조차도 저마다 훔쳐야만 했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은 특별히 가르침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뛰어난 소질을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행위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까지 옳다고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심령'은 히브리어 <레브>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스스로의 행위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모든 행위가 옳다고 감히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 21:3]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의롭게 살며 공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의롭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더 기뻐 받으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 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와 삶의 분리된 모습을 경고하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의로움과 외적인 공평함이 일치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와 공평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잠 21:4]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다’는 말은 종종 거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실제로 눈이 높은 곳에 있어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합니다. 그 자신이 항상 위에 있다고 여기기에, 다른 모든 사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눈

이 높은 곳을 본다고 해서 모두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높다'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곳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롬 12: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마음이 넓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하브>로, '넓은', '광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넓은 것이 어찌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 역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눈이 높은 것이 거만한 것을 뜻하듯이, 마음이 넓은 것은 교만한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왕이 되어 모든 사람을 다

스리려 합니다.

이처럼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못된 짓을 일삼 습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 악 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거만하고 교 만한 사람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거만하지 않 고 겸손한 사람보다 더 잘 살고 풍요로움을 누리 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런 거만하고 교만한 악한 사람들은 결국 죄로 살 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들을 죄 없 다고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을 죄 있다 여기실 것입니다.

[잠 21:5]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 21:6]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
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좋 은 일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꼼꼼히 앞뒤 를 살펴보고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분명 풍부함

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지런할 지라도 조금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궁핍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조금한 사람은 늘 서두르고 재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면서도 조금하지 않은 사람은 더욱 큰 풍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남을 속여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재물은 결국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이런 사람의 재물은 마치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남을 속여 재물을 모으는 행동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잠 21:7]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니 이는 공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잠 21:8]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악인의 강포'는 이웃을 못살게 굴고, 못된 짓만 일삼으며,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소멸하는 것과 같아서, 마치 물거품이 사라지듯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은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합니다. 만일 당신이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혹 자신이 악인이 아닌지 깊이 살펴 봐야 합니다.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꺼린다면, 어쩌면 당신은 악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당신이 진정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악인의 횡포를 단호히 멈출 것입니다.

악인의 강포를 행한 자들은 큰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길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사람의 길은 곧습니다.

[잠 21:9]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해도, 움막에 사는 사람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다툰다'는 말은 끊임없이 논쟁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당신은 논쟁을 좋아하지 않나요? 매사에 논쟁하려고 덤벼 들지는 않나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매사에 따지고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당신과 함께 사는 배우자는 지금 매우 큰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움막'은 여기서 '지붕 꼭대기'라는 의미입니다. 지붕 위에 산다는 것은 집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지붕 위는 밤이 되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지붕 위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몸을 춥게 만드는 한기가 배우자의 쟁쟁거리는 논쟁 소리보다 차라리 낫기 때문입니다.

[잠 21:10]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만일 당신이 남의 재앙을 원한다면, 당신은 악인입니다. 사악한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당신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재앙이 닥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신이 악한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만일 당신이 악한 자라면,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당신으로부터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가 재앙 당하도록 간절히 구해서는 안 됩니다.

[잠 21:11]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잠 21:12]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

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조차 그 모습을 보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경성하다'는 히브리어 <하캄>으로 '지혜롭다', '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 그 모습을 통해 스스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거만한 사람이 형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깨닫거나 지혜를 얻기보다는, 그저 그 광경을 즐거워하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교훈을 받을 때마다 지식이 더해질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누군가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말이든 귀담아듣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배울 것이 있음을 믿기에, 어떤 말을 들어도 자신에게 지식을 더해 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혜를 발하게 됩니다.

[잠 21:13]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반대로 당신이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

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간구를 먼저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잠 11: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 21:14]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사람의 화를 가라앉히고 분노를 멈추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선물과 뇌물입니다. 물론 대화를 통해 화를 잠재우고 분노를 그치게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화가 누그러지고 분노가 가라앉기도 합니다. 화를 쉬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선물과 뇌물만큼 확실한 방법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마음에도 없는 선물이나 뇌물일

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눅 16: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잠 21:15]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의인은 공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공의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의인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을 안겨줍니다. 만일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 21:16]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잠 21:17]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명철의 길을 걷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명철하다'는 히브리어 <사칼>로, '지혜롭다', '총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주된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사망을 얻게 됩니다. 명철한 사람은 삶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명철하지 못한 사람은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향락에 빠져 삽니다. 연락을 좋아하고,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며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부유해지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향

락에 빠져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술을 즐긴다면, 이 또한 당신이 지혜롭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잠 21:18]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궤환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대속물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전을 행하십니다. 악인을 의인의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궤사한 자를 정직한 자의 대속물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악인이 의인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되었으니, 궤사한 자가 정직한 자를 위해 대속물

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악인이 잘 살고, 더 유명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복이 충만히 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악인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인이 겪었던 고난을 악인이 당하게 되고, 의인이 누렸던 비참함을 악인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궤사한 자가 잘 살고, 더 유명해지며, 남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이 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정직한 자들이 궤사한 자들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자가 고통을 받았다면, 이제는 궤사한 자가 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잠 21: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오늘날로 치면 '노숙자'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 다투고 성내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물리적인 어려움보다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다투고 성내는 남편과 싸우며 사는 아내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는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다투거나 화를 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가정은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잠 21:20]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키느니라

지혜로운 이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값진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는 곧 값진 보화가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이의 집에는 이러한 값진 보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오차르>는 '보물'뿐만 아니라 '보물창고'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귀중한 보물을 저장하는 행위에서 유래했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집에는 이러한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재물로 가득 찬 창고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귀중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보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물이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보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

물은 영원하며, 천국에서도 잃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보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잠 21:21]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삶 가운데 의로움과 인자함을 지닌 사람은 생명과 의,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이웃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따뜻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의미합니다. 말라비틀어진 채소 같은 삶이 아니라, 싱싱

하고 푸릇한 채소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로움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의롭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지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귀한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영광'을 얻게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드>인데, 이 말에는 '부'와 '영예'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의와 인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와 영예를 얻을 것이며, 나아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이 쌓일 것입니다.

[잠 21:22]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용사들이 굳건히 지키는 성이 있어서 그 누구도 공략할 수 없을 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능히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 성읍을 지켜주는 방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뢰하는 것'은 히브리어 <오즈>이며, 문자적으로는 성을 지켜주는 '방벽'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힘', '능력', '세력', '권능'과 같은 강력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지혜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돌파의 능력이 됨을 시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대한 성읍의 방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그 방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은 당대 가장 견고한 성으로 손꼽혔습니다. 두껍고 높은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렸고,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성벽의 두께가 여러 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혜로웠

기 때문에, 그는 군사적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 하나 대지 않고서도,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 거대한 여리고 성의 난공불락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지혜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잠 21:23]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우리는 입과 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입과 혀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온전히 보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처럼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약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

에 굴레 씌우리라 [약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이기 어려운 존재이며, 쉬지 않고 악을 내뿜고 죽이는 독이 가득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다스리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 21:24]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룸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사람들은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히브리어 <루츠>인데, 이는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을 경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례하고 교만하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경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경멸당한다는 것

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례함과 교만의 그림자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타인을 무시하거나,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망령된 자'가 경멸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존경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서 겸손과 존중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빌 2:3] 참조)를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 내 안에 무례함이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봅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잠 21:25] 게으른 자의 욕심이 자기를 죽이
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잠 21:26]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빈둥빈둥하며 일 없이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은 게으른 자입니다. 이런 게으른 자는 날마다 쉬어야지 쉬어야지 하다가 굶어 죽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저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은 <타아와>입니다. 이 단어는 '욕구'나 '욕망'을 말하는데, 탐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26절 상)에 사용된 '탐하다'의 단어가 똑같은 <타아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게으른 자는 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탐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게으른 자는 더 많은 것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강도질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게으른 자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는 남의 것을 빼앗고 노략질하는 죄인입니다. 게으

른 자에게 탐욕의 욕망이 있듯이 의인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의 욕망과 의인의 욕망은 아주 다릅니다. 의인의 욕망은 남에게 베푸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26절 하). '시제하다'라는 말은 <나탄>입니다. 이 단어는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주는 사람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쪼쪼하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아낌없이 줄수록 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낌없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셨습니다.

"[창 1: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심은 우리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습니다.

“[롬 5: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아낌없이 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아낌없이 주지 않으십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 21:27]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악인의 제물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아주 역겨워하시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제물을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 제물이 악한 뜻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지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시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깨끗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곧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제물이란, 사람들에게 드러지는 깨끗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끗한 제물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 더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제물이란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대받는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죠. 이럴때 비로소 우리 손에 묻은 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 1: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 1: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기를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사 1:17]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잠 21:28]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의 결국은 갑작스러운 몰락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쓰러지고, 무너지

며, 주저앉게 되죠. 잘 안될 리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틀어지고 실패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가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짓 증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나요? 갑자기 무너지고, 일이 틀어지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이유가 거짓 증언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증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마세요. 오직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당장 피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관계가 깨 질지라도 지금 깨지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의 유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마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거짓증언을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마세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갑자기 힘을 잃게 됩니다.

[잠 21:29]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

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악인은 항상 뻔뻔합니다. 이들은 주로 얼굴을 쳐 들고 다닙니다. 저들이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 이유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을 쳐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이 악한 짓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얼굴을 쳐들고 다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저들의 얼굴을 가리켜 '굳게 하다'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다'라는 말은 <아자즈>인데 이는 '강하다',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전쟁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악인은 늘 전쟁 때의 모습을 하고 삽니다. 누군가를 죽이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남들은 웃을지라도 전혀 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주변에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악인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입니까? 싸움터에 나간 군사처럼 얼굴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얼굴도 선합니다. 굳어 있지 않습니다. 얼굴의 힘을 빼십시오. 뻔뻔스럽게 보이는 얼굴을 감추세요. 그렇게 강한 얼굴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런 얼굴을 쳐다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잠 21:30]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잠 21:31]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
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명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명철할 수는 없죠. 아무리 조언을 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조언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죠. 이런 사람은 오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전쟁을 스

스스로의 힘으로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계획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성취하려 하죠. 이런 사람은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는 오직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른다고 믿습니다. 가끔 행운이 따라야 한다고 믿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지라도 말이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일이 잘 안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일이 잘 될 때만 복 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의탁하는 인생은 그 자체가 복 받은 인생입니다.

니다.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나요? 최선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2 장 =====

[잠 22: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
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잠 22:2]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속삭
입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두둑한 통장
잔고를 향해 실 새 없이 달려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삶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
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재산을 긁어모으는 것보
다 한 점 부끄럼 없는 명예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성경은 '명예'를 <셈토브>로 표현하
며, 이는 '좋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
은 은과 금을 쌓아 놓아도, 진정한 행복은 거기
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
가가고 친절을 베푸는 은총이 바로 삶을 풍요롭
게 하는 보물입니다.

"[잠 22: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
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왜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그저 각자의 운명에 맡기기 위함이었다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모두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모두 주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잠 22:2]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만일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 오직 재물만을 쫓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행위는 곧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서도 직접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마 25:40] 임금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잠언은 가난한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단언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여기서 ‘조롱하다’는 뜻의 <라아그>는 단순히 비웃는 것을 넘어, 경멸하고 깔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난한 이들을 비웃는 행위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가 됨을 경고합니다.

“[잠 17: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성경은 부를 쌓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딤후 6:17]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딤후 6: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존경받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탐욕이 아닌 나눔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뛰어넘는 진정한 행복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 22: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의 폭풍이 몰아칠 때, 슬기로운 자는 멀리서 먹구름을 보고 미리 몸을 피합니다. 마치 홍수가 닥치기 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 7: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 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둡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재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신호임을 깨닫습니다. 잠언 27장 12절에서도 “[잠 27:12]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구절에서 ‘슬기로운 자’에 해당하는 <아룸>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 ‘영리함’이나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회피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고난, 즉 굶주림, 가난, 질병 등을 가장 큰 재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힘과 물질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재앙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구절에서 ‘지옥’에 해당하는 <게헨나>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덧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문제에 부딪힐 때,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7장 5절은 경고합니다.

“[렘 17:5]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구절에서 '사람을 믿으며'에 해당하는 <바타흐>는 하나님 대신 인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반면, 슬기로운 자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 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고난이 아닌, 영원한 재앙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1절은 “[시 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삶은 세상의 덧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잠 22: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물로 향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바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물과 명예, 생명을 얻기 위해 세상의 길을 좇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보물들을 움켜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잠 15: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구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경외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르아>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을 넘어,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약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반면에 잠언 22장 5절은 패역한 자의 비참한 결말을 경고합니다. 그들의 길에는 뾰족한 가시와 교묘한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가시는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올무는 그들의 발을 묶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겸손하지 않아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지혜로운 자에게 이러한 패역한 자를 멀리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을 가까이하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웅덩이 옆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태도와 불신앙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악한 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시편 1편 1절은 의인의 복된 길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처럼 우리가 맺는 관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들과 교제하며,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은 부모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강조합니다.

“[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단순히 세상의 윤리나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의 인생에 굳건한 기초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자녀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할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 가르침이 부재할 때, 자녀의 영혼은 방황하고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길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그 영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신 6:6]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정 안팎에서, 앉거나 서거나, 자거나 깨거나, 매 순간 말씀을 이야기하고 실천함으로써 자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의 헌신은 자녀가 늙어서도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잠 22:7]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행사하며 그들을 지배합니다. 이

것은 그들이 가진 부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중요한 진실을 말합니다. 설령 가난할지라도 빛을 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지는 순간, 그 사람은 채주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빛진 자가 겪는 고통이자 굴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는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빛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사랑을 빚졌고, 죄에서 구원받은 생명을 빚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롬 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재앙을 거두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샤>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넘어, 근

본적인 불의와 악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앙'에 해당하는 <아웬>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헛됨'이나 '공허'를 뜻하기도 합니다. 악을 뿌린 자는 결국 그들의 삶에 헛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이치와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특히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 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보다 더 큰 영적, 물질적 궁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을 뿌린 자는 그들의 힘이 쇠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빛진 자로서,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악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앙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

니다.

[잠 22:8]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의 씨를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불의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고통과 파멸을 불러옵니다. 그들의 분노와 교만으로 쌓아 올린 힘은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악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요일 3: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의 속에 거함 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 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씨는 거룩하고 순결한 생명력을 담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씨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의 본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악한 길을 멀리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결국 재앙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잠 22:9]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눈'은 단순히 착한 눈빛을 넘어,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의 눈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바로 그 선한 눈의 결과입니다. 이 눈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눈이며, 슬픔과 아픔을 감싸 안아 녹여주는 눈입니다. 진정한 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짜증과 경멸, 미움과 원한이 서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절망과 좌절로 인해 그 빛을 잃어버린 슬픔의 눈은 아닌지요?

지금 잠시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눈빛을 의도적으로 바꾸어보십시오.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세상에서 더 없이 온화한 시선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눈으로 다시 세상을 마주하십시오.

선한 눈으로 이웃을 대하고, 따뜻한 눈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당신의 눈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싹틀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가득했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원수가 사라지고, 당신이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선한 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눈

빛에 있습니다.

[잠 22:10]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기서 '거만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츠>는 단순히 교만한 사람을 넘어, 남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마치 불길이 번지듯,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싸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삶에서 멀리하는 것이 곧 평화를 되찾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다툼이 쉬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거만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잠언 13장 1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 13: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거만한 자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에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기 때문에 항상 평화롭습니다.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롬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진정한 평화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옷 입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겸손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잠 22:11]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잠 22:12] 여호와와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경건보다 마음의 정결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면의 깨끗함이 겉으로 드러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덕과 은혜가 넘칩니다. 이 진실함과 은혜로움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많은 친구를 얻게 하며, 나아가 세상의 권위자인 왕까지도 그의 친구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가장 큰 복을 누립니다.

여호와와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겸손하게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는 이러한 사람들을 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으며, 오직 그분을 향한 진실한 열정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입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결국에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들의 삶은 실패라는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진실과 정결을 추구하는 자만이 궁극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 22: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 22장 13절은 게으른 자의 내면을 정확하게
꺾뚫어 봅니다.

”[잠 22: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을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은 단순히 행동이 느린 사람을 넘어,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일을 하기 싫어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나아가 할 일을 찾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때, 그들은 밖이 위험하다고, 마치 사자라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깥세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핑계와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당신 주변에 늘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 당신 자신이 그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 핑계가 많다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은 세상의 위협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게으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잠 22:14]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달콤한 유혹의 말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실체는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함정입니다. 여기서 '음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라>는 '낮선 자',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란한 여성을 넘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과 존재를 상징합니다.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이 땅에 가득한 영적인 음녀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유혹의 말은 당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곤경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파멸(히브리어: <쇼하트>)에 이르는 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음녀의 함정에 빠진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하며, 음녀의 입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잠 22: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얹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인은 미련한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웨레트>는 단순히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마음속에 얹혀 있는 한,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미련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하는 채찍이 필요합니다.

이 채찍은 부모의 손에 들린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끝없이 반복되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깨우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인생의 채찍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없다면, 미련한 자는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자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채찍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고난이 사라질 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얹힌 미련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잠 22:16]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학대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쇼크>는 '압제하고 착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행위는 곧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잠 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자를 결코 부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잠언은 부자에게 아침하며 재물을 바치는 자 역시 가난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경과 물질을 사람에게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재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일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진정한 부와 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잠 22:17]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어다

[잠 22:18]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는 단순히 똑똑한 지식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기술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삶의 좋은 친구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이 귀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언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잠 16: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

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타인의 말을 받아들여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입술을 통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잠 22:19]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잠 22:20]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잠 22:21] 내가 진리의 확
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삶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말씀에 대

해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밀어내고, 결국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고독한 섬에 갇히게 됩니다.

혹 당신은 지금 홀로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당신의 교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신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타흐>는 '안심하고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고, 그분을 대면하며, 그분과 더불어 깊은 대화를 나누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 22:22]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코 압제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죄를 짓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한 자를 짓밟고 모멸감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히브리어 <다카>는 '짓밟다', '으스러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공적인 장소에서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대하는 태도는 당신의 신앙과 영적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냅니다.

[잠 22:23]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브>는 '싸우다', '다투다', '경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원수와 직접 다투시고, 그들을 압제하시며, 마침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원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2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선포합니다.

”[사 61: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모든 억압된 자가 해방되고, 모든 포로 된 자가 자유를 얻는 은혜의 해로 오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당신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쥬빌라데(Jubilate)~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고, 매일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온 세상에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꽃들에게, 돌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전하십시오. 은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나타내십시오.

[잠 22:24]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잠 22:25]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는 콧구멍에 분노의 용암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좀처럼 화를 식히지 못하고 씹씹대는 그의 분노는 너무 뜨거워서 당신의 영혼을 태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와 친구가 되면 그의 분노가 전염되어 당신의 것이 되고, 당신의 영혼도 뜨거운 용암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마>는 '열', '격노', '분노'를 의미하며, 마치 폭발하는 용암처럼 분노가 터져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는 자의 말은 독을 퍼뜨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소리칠 때에는 재빨리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동행하다'는 것은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방을 들고 나는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당신은 전염병에 옮듯 그의 독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행위를 본받아 당신의 영혼을 스스로 올무에 빠뜨리게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 멀어지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영혼을 파멸의

길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 22:26]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 22:27] 만일 값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 말씀은 보증을 서는 행위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값을 능력이 없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편히 눕고 자는 침상마저도 빼앗길 것이라 경고합니다. 보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라브>는 '뒤섞다', '뒤엎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을 서는 순간, 당신의 운명이 빚진 자의 운명과 뒤섞여 버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보증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위해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시나요?’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파멸에서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당신이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형제를 돕고자 보증을 서야 한다면, 당신이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으로만 보증을 서야 합니다. 보증은 이미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당신이 갚겠다는 약속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보증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 22:28]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이 돌은 나라와 나라, 지파와 지파, 심지어 집과 집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지계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게불>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가 정한 신성한 경계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힘 있는 자들이 이 돌을 옮겨 남의 재산을 빼앗고 자신의 땅이라 우기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남의 것을 탐내는 죄악, 즉 십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탐내지 말지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마드>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뜻합니다.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남의 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도 마십시오.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군침을 흘리거나, 아까

워하지도 마십시오.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마음에 두지도 마십시오. 그래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찬물로 머리를 씻고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정신 차려라!" 오직 이럴 때에만 당신은 탐심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 22:29]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능숙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히르>는 단순히 빠르거나 익숙한 것을 넘어, '신속하고', '능숙하며',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근실한 사람은 이 사명을 신속하고 능숙하게 완수하며,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러한 근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고백했습니다.

“[행 20: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듯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근심한 마음으로 완수할 때, 우리는 세상의 낮은 자가 아닌 왕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23 장 =====

[잠 23:1]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
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
며

[잠 23:2] 네가 만일 식탐이 있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관원’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
경 시대에는 주로 나라의 높은 관리를 가리켰지
만,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모두 현
대의 ‘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높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젊은 직장인에게는 자신이 다니는 작은 회사
의 사장이 가장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학
생에게는 교수가, 군인에게는 상관이 가장 권위
있는 존재로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
니는 성도에게 담임목사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
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속마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소기업 과장이 대기업 회장과의 만찬에 초대받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평소 겸손했던 그가 갑자기 과도하게 아첨하거나, 반대로 위축되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리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다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발각된다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 낮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가 만일 식탐이 있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잠언 23:2).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치 외과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메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

해 이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자 앞에서 실수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탐식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탐식자'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탐식자'입니다.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도 '탐식자'입니다. 심지어 교회 부흥을 너무 간절히 원하는 목회자도 '탐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탐식자는 곧 욕심이 많은 사람, 절제를 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목회자는 교회 성장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권력 있는 정치인과의 만남에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실망했고, 그 교회는 오히려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식자'가 되었을 때의 위험한 결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먹다'라는 단어는 <라함>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단순히 '먹다'는 의미 외에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맛있게 음식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인이 투자자와의 만찬에서 사업 제안을 하거나, 정치인이 후원자들과의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줄을 놓고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다 보면 어느새 전쟁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탐식자'라는 말은 <네페쉬>와 <바알>의 혼합어

입니다. '탐식'이라는 단어가 <네페쉬>이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알>입니다. <네페쉬>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와 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뜻은 '영혼',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탐식'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 '영혼'을 뜻하는 거룩한 단어가 '탐식'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탐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식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녀를 위한 순수한 사랑이었지만, 어느새 자녀의 성공이 부모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탐식'하는 사람은 다소 관찮아 보이지만 '탐식자'가 되는 것은 결코 관찮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탐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어떤 음식이 맛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건강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이 얼마나 귀해 보이겠습니까? 이런 탐식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탐식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탐식자는 곧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탐식자는 곧 <바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주인',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이방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농업의 신, 번영의 신으로 숭배받던 <바알>은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짓 우상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바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식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한 전직 대통령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권력이 그의 주인이었고, 그는 권력의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모든 권력을 잃고 법정에서 심판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탐해야 합니다. 세상의 음식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

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 설 때, 우리는 누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우리가 기뻐하시게 해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탐식자가 되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어떤 높은 자리의 사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 23:3] 그의 맛있는 식물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우리가 진찬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간사하게 베풀어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간사'라는 말은 <카자브>인데 이는 '거짓말', '허위', '사기'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진찬은 이처럼 거짓말로 차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진찬은 대부분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며 사기치려고 차려놓여진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권력자가 베푸는 호화로운 만찬이 과연 순수한 친절에서 나온 것일까요? 대기업 회장이 중소기업 사장을 초대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계산된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미끼이거나, 상대방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한 대기업 총수가 정치인들과 가진 만찬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겉으로는 친목과 소통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특혜와 혜택을 얻기 위한 로비의 장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음식들 사이로 얼마나 많은 거짓과 계산이 오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진찬을 조심해야 합니다. 탐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돈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그 돈을 주울 것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놔 둘 것입니까? 왜 그 돈을 주웠습니까? 경찰서에 갖다 주려고요? 아니면 당신 주머니에 넣으려고요? 혹시 '손에 쥔 놈이 임자'라는 생각 때문입니까? 그 돈이 당신 손에 있으니 이제는 당신 것이 된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는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길에서 돈을 주웠을 때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내 주머니에 넣었던 그 순간부터, 나는 점점 더 큰 부정직함에 익숙해져 갔다. 작은 탐욕이 결국 큰 탐욕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만일 당신이 탐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돈을 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탐하는 자가 아니라면 결코 그 떨어져 있는 돈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것이 아닌 물건에 당신의 눈이 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것이 아닌 물건을 당신이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돈을 그곳에 놔두면 됩니다.

“목사님, 누가 가져 가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시죠? 누가 가져가든 말든 왜 상관하시죠? 그 돈이 당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인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핵심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공하는 모든 재물을 거절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 14: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부자 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세상의 거짓된 은혜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남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이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곤란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탐욕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엡 4: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오히려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남이 쓰고 남의 아내를 내가 차지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에게 맡기신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청지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탐욕을 품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한순간의 탐욕이 살인까지 이르게 했고, 그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사한 진찬을 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만족해야 합니다. "[딤후 6:6]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의 화려한 진찬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요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잠 23:4]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 23:5]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잠언 23:4-5)

하나님은 세상 부자를 싫어하십니다.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위한 부자가 되려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지만 세상을 위한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은 모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두로의 왕들, 이집트의 바로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 역시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그 부는 자신의 영광과 쾌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나라들

은 모두 멸망했고, 그들의 재물도 흔적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적으로 부해지려 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당신의 재물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날아가듯이, 그렇게 당신의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부는 바람에 나뭇잎이 흩어지듯이, 그렇게 당신 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였던 어떤 기업인은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곳에 쓰인 '부자'라는 단어는 <아사르>인데 이 단어는 '부유하다',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 부유해지고 풍부해지

는데 뭐가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전혀 좋은 느낌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부질없는 이유는 부해지려는 마음 자체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욕에 물들게 되어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딤후 6: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흥미롭게도 디모데전서에 언급된 '부하려 하는'이라는 단어 역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부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쓰인 단어는 <플루테오>입니다. 이 단어와 <아사르> 단어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같은 메시지를 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재벌 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로부터 천문학적인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다가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적 처벌을 받고 가문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굴의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잠 30: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 30: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것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

습니다. 배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너무 가난해도 절망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존 록펠러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바친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그조차도 결국 깨달은 것은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 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마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썩어질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의 부자가 되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 23:6]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잠 23: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잠 23:8]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없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진열합니

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눈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 6: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 6: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둡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눈에서 악한 기운이 나타납니다. 히틀러의 사진들을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광기와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스탈린의 초상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혹하고 계산적인 악함이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기업가는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한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 냉랭하고 계산

적인 느낌이었다. 직감적으로 불안했지만 급한 마음에 계약을 맺었다. 결국 그는 나를 이용만 하고 중요한 순간에 배신했다. 그때 깨달았다. 눈은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만일 그런 사람이 음식을 사준다면 선뜻 그 음식을 받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뭔가를 같이 하자고 제의할 때 그 제의를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잠 23:6]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식물을 먹지 말며 그 맛있는 것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체적으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인 악한 사람은 눈에 악한 기운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당신을 속이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은 애써 눈을 속입니다. 악한 기운이 나타나지 않도록 선한 기운을 덮어씹습니다. 양의 털을 쓴 늑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경고하셨습니다: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속에는 악한 의도를 품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교회에 큰 헌금을 하겠다며 접근했는데, 말은 매우 경건하고 겸손했지만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교회 건축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려는 속셈이었고, 약속한 헌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자세히 쳐다봐야 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춥니다.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

십시오. 가정에서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아이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권력 관계에서 그 사람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친구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이익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빌 게이츠에 대한 한 비서의 증언입니다:

“그분을 15년간 모셨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직원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으셨고, 항상 먼저 사과하고 감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관심을 두고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 영분별의 기본입니다. 영분별은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 16: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이 선한지 악한지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눈'입니다. 내 눈이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내 눈이 더러우면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마 7: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 7:5]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정결과 거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눈이 먼저 깨끗할 때 훨씬 더 상대방의 눈 상태가 잘 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 51:10]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어떤 추장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가 복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그를 바라볼 때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선교사들에게서 물질적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면 훨씬 잘 보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눈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 10: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바로 영분별의 핵심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과제입니다.

결국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눈을 깨끗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참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잠 23:9]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지혜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입니다. 미련한 자 <케실>은 단순히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완고하게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지혜를 전하는 사람마저 무시하며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여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자녀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자아가 강하며,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잠 17:25]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근심이 되고 그 어미에게는 고통이 되느니라"

여기서 '근심' <카아스>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고통' <메메르>는 '쓰디쓴 마음의 아픔'을 의미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조언을 듣지 않고 또다시 무모한 투자를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직 미련해서 그래. 하지만 언젠가는 지혜를 깨달을 거야. 그때까지 나는 기도하며 기다릴 거야."

3년 후, 아들은 눈물로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배우자가, 동역자가 당신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

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호크마>를 가진 한 사람이 미련한 열 사람보다 나은 법입니다. '호크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 '삶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사람과 억지로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차라리 홀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한때는 미련한 자였고, 누군가의 인내와 사랑으로 지혜를 배웠다는 것을.

오늘 당신 곁의 미련한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언젠가 그의 인생을 바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잠 23:10]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잠 23:11]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성공을 복이라 여기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참된 복은 하
나님의 형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르아트 아도나이>은 단순
한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이 어
우러진 마음'을 뜻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
으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
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
까?

한국전쟁 때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전쟁고아들
을 돌보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유
지가 고아원 땅을 탐내어 지계석 <게불>을 몰래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불'은 '경계 표시'를 뜻
하는데, 이를 옮기는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믿었습니다. "저 외국인 선교사가 뭘 알겠어? 고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하며 조금씩 땅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 68:5]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비 예토밈'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얀 알마노트'는 '과부들의 변호인이자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 유지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빼앗은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자신도 병으로 고통받다가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반면 그 고아원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실까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보호자도, 변호해 줄 사

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의 것을 빼앗는 사람, 힘없는 자의 땅을 침범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는 "죽으려고 환장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편에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는 노인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미혼모와 그 자녀들...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벌을 면하는 길이고,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여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보호자

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잠 23:12]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훈계 <토케하트>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토케하트'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는 교정'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마음 깊이 새기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 따끔한 충고가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거부하고, 지혜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하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겸손히 귀를 기울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충고하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멀리합니다. 결국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달콤한 거짓말에 둘러싸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아픈 말일수록 더욱 귀담아듣습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참된 친구로, 인생의 스승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당신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습니까? 감사함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솔직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
미 당신을 훈계해도 듣지 않는 사람으로 포기했
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만이 계속 성
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에게 쓴소
리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들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잠 12: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
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잠 23: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
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
리라

[잠 23:14]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
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엄한 말을 해야 할 때, 부모의 가슴은 먼저 찢어집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엄히 훈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강하게 훈계를 명하십니까요? 훈계 없이 자란 자녀의 영혼이 결국 음부 <스올>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그곳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아픈 훈계를 받는 것이 천배, 만배 나은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채찍으로 때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리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의 영혼을 향한 절박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자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때리라는 말

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자녀에게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감정적 분노나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훈계가 아니라 학대입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녀의 영혼이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 때, 진리를 거부하고 죄의 길로 향할 때, 그때 부모는 눈물로 매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채찍'은 꼭 물리적인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엄한 꾸지람이 채찍보다 더 깊이 심령을 찌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훈계의 말씀이 영혼 깊숙이 새겨져 평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채찍이든 말이든, 잘못 사용하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온전한

나무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폭력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채찍은 학대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결코 자녀를 훈계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훈계는 자녀를 향한 애타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기에, 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부모의 눈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매를 맞으면서도,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훈계는 어떻습니까? 감정의 분출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표현입니까? 자녀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훈계 후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잠 13:24] 매를 야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징계하느니라"

[잠 23:15]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잠 23:16]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언제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유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즐거워하시는 순간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울 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마음이 지혜로우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 <레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전체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지혜로움은 바로 이 마음의 영역에 국한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를 머리카락의 문제로 여기지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조차도 우리 마음의 한 부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이든, 지혜로운 마음이든, 모두 우리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을 보며 즐거워하시듯,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는 더욱 유쾌해하십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헌금생활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계명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때는 바로 우리가 정직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입술에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이익에 따라 어떤 사

람과 사건에 대해 말을 부풀리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정직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유쾌하다'라는 말은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속'이라는 말은 <킬야>로서 '궁핍' 또는 '신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신장이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잠언서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신체를 언급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온 몸으로, 육체적으로 크게 기뻐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배는 드리지만 거짓말하고, 헌금은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 정직한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겁고 유쾌하게 해드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몸으로 기뻐하시며 당신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2:22)

[잠 23: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 23:18]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때때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화가 납니다. 의인이 잘 되는 것도 속이 상한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럴 때면 괜히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나보다 남을 더 챙기시

는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저런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여기서 '부러워하다'는 말은 단순한 선망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며 부러워하는 마음, 영혼을 썩먹는 독과 같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죄인'이란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갖가지 죄를 짓고 사는 거짓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답은 '결국'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에 얻게 될 장래의 복이 현재의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장래에 얻

게 될 복이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현재의 복이 장래의 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현재의 복과 장래의 복 중에 어떤 복이 더 소중합니까?

만일 당신이 현재의 복을 장래의 복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경고합니다. 당신의 복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 그렇게 당신의 복도 말라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복은 아침 이슬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현재의 복보다 장래의 복을 더 크게 여긴다면, 약속합니다. 당신의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막과 같던 당신의 삶에 생명의 강줄기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수가 끊임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쩌면 당신이 장래의 복보다 현재의 복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믿음을 바로 세우십시오. 현재보다 장래를 바라보십시오. 세상보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악인의 일시적 형통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끊어지지 않을 소망, 영원한 장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 23:19] 내 아들이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악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내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죄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지혜롭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지혜로우면 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려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놀랍게

도 그 누구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원수의 입에서도, 어린아이의 입에서도, 심지어 우연히 들린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지혜가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날 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은 <아샤르>인데,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참으로 풍성합니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 외에도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공과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

하는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문이 열리며,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부모님의 충고에서, 상사의 지적에서, 친구의 조언에서, 심지어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의 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십시오.

듣는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는 자가 올바른 길로 가며, 올바른 길로 가는 자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의 순서입니다.

[잠 23:20]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 23: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헤어질

웃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토록 단호하게 그런 자와 사귀지 말라고 명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술을 즐겨하고 고기를 탐하는 자는 가난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니까 더욱 가난해집니다. 절망이 술을 부르고, 술이 더 깊은 절망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탐하다'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질랄>인데, 놀랍게도 이 말에는 탐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가치하다', '하찮다', '가볍게 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고기를 탐하다'라는 말이 실제로는 '고기를 하찮게 여기다' 또는 '고

기를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라면, 도대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이 단어가 음식에 대해 사용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음식을 탐하거나 폭식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방탕한 연회를 베푸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음식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음식을 방탕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식을 취하고 방종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폭식도 죄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방탕한 연회는 그보다 훨씬 더 부덕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탐을 넘어 삶 전체를 타락시키는 생활 방식입니다.

패턴을 보십시오. 술을 마시는 자는 주로 방탕한 연회를 베풁니다. 방탕한 연회에는 언제나 술이 함께 합니다. 술과 방탕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추기며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방탕함이 우리에게도 전염됩니다. 그들의 가난이 우리의 가난이 됩니다. 그들의 타락이 우리의 타락이 됩니다.

이러한 방탕한 연회를 즐겨하는 자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가난해집니다. 재물의 가난뿐 아니라 영혼의 가난, 관계의 가난, 품격의 가난에 빠집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술과 방탕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십시오. 당신의 영혼과 삶을 지키십시오.

[잠 23: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함의 가장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잘 들어야 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듣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듣기 싫은 설교보다 훨씬 더 듣기 힘든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잔소리로 들릴 때에는 더욱 듣기 힘들어집니다. 귀를 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잘 듣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귀담아 새겨 듣습니다. 백 번 들은 이야기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합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씀 속에서도 사랑과 염려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부모의 말씀을 진심으로 새겨 듣고 있습니까? 잔소리 같아 보이는 말씀이라도 마음을 열고 들었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까?

더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대하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어찌 자녀가 부모를 소홀히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자녀가 부모를 하찮게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경히 대합니다. 특히 아버지에게는 그나마 덜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유난히 경히 여기는 자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늙은 어머니가 하찮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해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온 삶을 다 바친 어머니,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모두 희생한 어머니인데, 그런 어머니가 늙어지면 추하게 보이거나 뵙니다. 주름진 얼굴이, 굵은 등이, 떨리는 손이 초라해 보이거나 뵙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늙은 어머니를 하찮게 여깁니다.

혹 당신도 그렇습니까? 늙은 어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니까? 늙은 어머니를 추하다 여기십니까? 늙은 어머니를 하찮게 여기십니까? 어머니의 반복되는 말씀이 귀찮습니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당신을 위한 눈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굽은 등은 당신을 업고 다녔던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 떨리는 손은 당신을 먹고 입히느라 쉼 없이 일했던 손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십시오. 그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잠 23:23]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 23: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잠 23: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

미를 기쁘게 하라

만일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진리를 사고서 결코 팔지 않을 것입니다. '산다'는 말은 모은다는 말입니다. 거둬들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부지런히 긁어모아야 합니다. 값을 지불해서라도 사들여야 합니다. 진리는 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 힘을 다해 사들여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반드시 사들여야 할 것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입니다. 만일 당신이 의로운 자라면 이러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어리석은 자라면 이러한 것이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지 악한지를 분별하려면, 그에게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진리' <에메트>는 '신실성, 성실성, 충실함, 확고함, 확실함, 진리, 진실'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아멘, 곧 확고하고 확실하며 신실한 것으로 믿어지

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듯,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거짓이 없고, 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지혜’ <호크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wisdom’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지식과 전혀 다릅니다. 지식은 학문적인 것이며 눈과 귀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라면, 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정리되고 체득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훈계’ <무사르>는 ‘훈련, 훈계, 징계, 징벌’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거대한 훈련장입니다. 경험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습니다.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정금같이 빛어질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

‘명철’ <비나>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은 명철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욥기 28:28)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10)

보십시오. 명철은 바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비로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
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어찌 악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이 어찌 더러운 죄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창고를 점검해 보십시오. 진리가 있
습니까? 지혜가 쌓여 있습니까? 훈계를 받아들
였습니까? 명철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사들이는 데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사는 데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영원한
진리를 사는 데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십시오. 그리고 절대 팔지 마십시오. 그
것이 의로운 자의 길입니다.

[잠 23:26]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24장로가 자신의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렸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리지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리질 때, 비로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질 때, 진정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계 4: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장로들은 그들의 가장 귀한 것, 영광의 상징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주의 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자꾸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주인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억지로 주님의 길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무감에 사로잡혀 마지못해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바라보는 것 역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당신의 눈이 어떤 길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눈이 세상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주님의 길을 바라보
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너
무 아까워서 한숨을 쉬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즐거운 심령으로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이 당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고 있습니까?

마음과 눈, 이 두 가지가 주님께 향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마음이 주님께 드러지
고, 눈이 주님의 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금면류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
님 앞에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시
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기
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잠 23:27]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잠 23:28]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은 '음녀'와 '이방 여인'입니다. 음녀는 세상 여인입니다. 세상에 속한 여인입니다. 음녀와 함께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방 여인 역시 세상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 모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녀를 가리켜 '깊은 구렁'이라고 말하며, 이방 여인을 가리켜 '좁은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강도와 같습니다. 강도는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매복해 있습니다. 강도는 자신의 정체를 감춥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을 빼앗을 때 비로소 그가 강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

인도 강도처럼 매복해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음녀가 음녀같지 않아 보이고, 이방 여인이 이방 여인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자는 궤사하게 됩니다. '궤사하다'라는 말은 <바가드>인데, 이는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행하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성실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배반하거나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궤사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녀와 이방 여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서야 되겠습니까?

음녀와 이방 여인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들이 매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음녀와 이방 여인과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음녀와 이방 여인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녀의 특징은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해서 여자만 음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도 음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적인 사람은 음녀입니다. 부모도 음녀가 될 수 있으며 자녀도 음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적인 사람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음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음녀입니다. 만일 당신의 직장 상사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직장상사는 음녀입니다.

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음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물건도 음녀가 될 수 있으며 직장도 음녀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도 음녀가 될 수 있으며 장소도 음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 때문에 당신이 세상적인 사람이 된

다면 그 물건은 음녀입니다. 만일 자동차가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 자동차는 음녀입니다. 만일 집이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 집은 음녀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속한 단체가 당신을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 단체는 음녀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거한 장소로 인해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 장소는 음녀입니다. 이렇듯 음녀는 당신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 주변에 있는 음녀를 찾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음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음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은 믿지 않는 여인입니다. 물론 음녀도 이방 여인에 속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 음녀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와 이방 여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의 특징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 배우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아내만 이방 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도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으며 자녀도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당신이 주님과 멀어졌다면 당신의 부모는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당신이 주님과 멀어졌다면 자녀가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의 직장이 당신을 주님과 멀어지게 했다면 그 직장은 이방 여인입니다. 어떤 물건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물건은 이방 여인입니다. 골프가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모임이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이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것이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취미생활이 이방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을 찾아보십시오. 생각보다 이방 여인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에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음녀와 이방 여인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세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싸워야 할 음녀와 이방 여인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이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 23:29]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잠 23: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의 삶은 비참합니다. 술 중독자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술 중독자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술 중독자는 항상 투닥거리며 싸움질만 합니다. 술 중독자는 까닭 없이 얻어

맞습니다. 술 중독자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술 중독자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술 중독자는 항상 불그스레 달아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 중독자는 악한 세력에게 붙잡힌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성령에 취하지만 술 중독자는 술에 취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도 제 정신이 아니지만 술에 취한 사람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지 술에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악한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좋지 않는 것에 중독되게 합니다. 술 중독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가지 중독에 걸리도록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음식 중독에 걸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투기하는 중독에 걸리기

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 사 입는데 중독이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적 중독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중독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주님을 버립니다. 마치 술 중독자가 술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주님을 버리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혹 당신은 어떤 중독에 걸려 있습니까?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중독을 끊으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 증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중독 증세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을 중독시킨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잠 23: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잠 23:32] 이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
사 같이 쏘 것이며

[잠 23: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
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발할 것이며

[잠 23:34]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
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잠 23: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
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꺾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 술을 안 봐야 합니다.
성경은 "...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31절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보
지 말아야 합니까? 이는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
기 때문입니다. 술에 대한 표현을 들어 보십시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
나니..."(31절 상). 어쩌면 잠언서 기자는 포도주
를 즐겨했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
고서야 어떻게 이리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요? 맞습니다. 술은 아름답습니다. 술을 먹어본
사람은 술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에게 있는 모든 중독증은 아름답습니다. 중독증은 매우 악하고 더러운 것이지만 결코 우리 눈에는 악하고 더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눈이 불그스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독증에 걸린 사람의 눈을 쳐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눈이 불그스레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독증에 걸린 사람의 눈은 대체적으로 불그스레 하거나 희미합니다.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며 선명하지 않습니다. 맑은 날씨가 아니라 마치 흐른 날씨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에 중독되었구나'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눈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물론 병이 들었을 때에는 다릅니다. 병들었을 때 눈이 희미해지거나 여러가지 안좋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눈의 모습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맑고 청명하며 순수하고 깨끗한 눈을 갖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럴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뜨지 마시고 오히려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뜨

면 주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을 감아야 비로소 천국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술 중독자는 들으십시오. 만일 당신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거나 마음 속으로 망령된 것을 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속에서는 헛된 소리가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중독이 된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게 이미 붙잡힌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당신을 오랏줄로 꽂꽂 묶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좋아하거나 즐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슬퍼하며 빠져 나오려고 애를 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 빠져 나오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십시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가까운 교역자를 만나십시오. 중독에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뭔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잠 23:29]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 까

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
느뇨 [잠 23: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잡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잠언서 24 장 =====

[잠 24:1]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 24:2]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었고 그 입술
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역설 중 하나는 바로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부와 성공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은 신자들의 마음에 깊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악인이 고통받고, 의인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악인처럼 변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1절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 구절에 쓰인 히브리어는 <아와>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바라다', '열망하다', '간절히 소원하다'라는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악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과 같아지기를 마음 깊이 원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여 형통한 자를 보며, 그 행위를 따라 도둑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사기꾼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며, '악인이 되어도 좋으니 나도 저들처럼 형통했으면 좋겠다'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바로 이 '악인처럼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

나님의 약속과 거룩함을 떠나 세상의 거짓된 성공에 고정될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헛된 이유를 잠언은 그들의 본성에서 찾습니다.

“[잠 24:2]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악인의 마음은 강포<하마스>로 가득 차 있으며, 입술은 잔해<아말>를 말합니다. 강포는 폭력, 잔혹, 불의를 의미합니다. 잔해는 고통, 해악,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의 내면은 폭력과 파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쌓는 부는 그들의 폭력적인 마음과 거짓된 언행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형통함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알게 모르게 그들의 마

음(강포)과 입술(잔해)을 닦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소원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잠 24:3]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잠 24:4]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집, 곧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건축 작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집'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잠언은 이 집, 곧 우리의 인격과 삶이 무엇으로 건축되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의 방들은 지식으로 채워져야 하며,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은 과연 지혜로 건축되었습니까? 당신의 집은 명철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심령이라는 방에는 참된 지식이 채워졌으며, 영원히 가치 있는 보배들로 가득합니까?

여기서 언급되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지식과 보물은 세상이 추구하는 일시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지혜는 결국 교활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명철은 자기만의 아집이 되기 쉬우며, 명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오히려 교만과 멸망으로 이끌 뿐,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부와 명예는 영원한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명철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썩지 않는 천국의 보물로 우리의 방을 가득 채워
야 합니다.

우리의 집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명철, 세상
의 지식, 혹은 세상의 보물로 채워지는 것을 경
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며, 우리
의 영혼에 영원한 견고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
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우리의 집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잠 24:5]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잠 24:6]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잠 24:7]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미치
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
느니라

세상의 전쟁은 힘센 용사의 팔과 날카로운 무기

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의 전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그 어떤 용사보다 강하며, 지식 있는 자가 힘센 장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잠언은 힘보다 지혜가, 근육보다 깨달음이 훨씬 우월함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고 외우는 '앎'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여 삶을 변화시키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지금 수많은 지식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영혼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진정한 지식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내면의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모략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무모한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혜로운 모략, 곧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싸울 때 승리를 거머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힘이 세다고 해서 인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는 말씀은,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모사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충고를 받고 조언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나누는 공동체적 삶을 의미합니다. 당신에게 진실한 충고를 해주고 조언해 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그 누구의 조언과 충고도 듣지 않고, 스스로의 짧은 생각만을 고집하며 홀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당신의 삶에 진정한 조언자나 충고자가 없다면, 당신은 잠언이 경고하는 미련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있고 깨닫는 자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너무나 짧고 어리석어서 지혜자의 깊이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지혜는 너무 높아 미련한 자에게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그는 재판과 변론이 이루어지는 성문 앞에 서있을지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는 겁쟁이가 됩니다. 공동체가 모여 중요한 결정을 논하는 자

리에서 아무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임을 깨달으십시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모사들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듣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 24:8]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
특한 자라 하느니라

[잠 24:9]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 주변에는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특한 자라 부르며, 그들의 근원을 깊이 파헤칩니다. 여기서 '꾀하다'는 히브리어 <하샤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다', '치밀하게 계획하다', '세밀하게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악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다

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계획하려 해도 그 끝은 결국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악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함 자체가 악을 잉태하게 만드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중심에는 악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이내 자기 유익을 탐하는 악한 생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사람의 계산 또한 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일지라도, 그 계산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기때문에, 이는 곧 악을 행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그 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철저히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련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자아를 부인할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거룩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가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심은 완벽하게 선하시며, 우리의 미련한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깊이와 넓이를 가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뜻으로 어떤 것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분의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획한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계획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뜻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인 계획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은 결국 자기 유익

을 위한 함정이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영원히 틀림이 없으며,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 스스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모든 행위는 성경이 지적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9절 상).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행위 자체가 미련한 자의 특성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며, 스스로 계산합니다. 이 행위가 바로 미련함의 증거이며, 결국 그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거만에 빠지게 됩니다. 미련함이 거만함을 낳고, 거만함이 다시 미련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이 미련함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교만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경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거만하다'는 뜻은 곧 '경멸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마음을 품

고 있다면, 당신은 그 거만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결국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싫어함을 넘어 '경멸함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경멸하는 자는 자신이 뿌린 씨앗대로, 결국 남으로부터 똑같이 경멸을 당하며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잠 24: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사람들은 환난 날에 낙담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낙담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것이 나의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난 날에 우뚝 서야 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차라>입니다. 이 단어는 강렬한 내적 혼란을 말합니다. 마치 적에게 포위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실제로 인생의 환난을 당하는 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단어에는 공포심을 느끼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나타난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에 느껴지는 공포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에는 '대적자 아내'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내가 '환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대적자로 여기고 있으며 아내가 '환난'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대적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당신은 배우자가 환난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 브닌나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에게 있어서 환난이었습니다.

“[삼상 1:6] 여호와께서 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대적 브닌나가 저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낙담하다’라는 말은 <라파>인데 이 말은 ‘가라앉다’, ‘떨어지다’, ‘낙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물 속에 물건이 가라앉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암흑 속에 가라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단어는 물건이 떨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망에 붙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낙담은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희망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혹 당신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습니까? 혹 당신의 마음에 그 어떠한 희망이 없습니까? 너무나 희망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면 당신이 그만큼 연약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환난으로 인

해 낙담할 때에 마귀가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희망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다시금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잠 24:11]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잠 24:12]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인생에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당장 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옆의 형제에게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모른 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라는 생
각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소극적이고 부정
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
녀라면, 이웃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소
극성을 결단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
이야,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라고 치부하며
무관심적인 마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잠언 24
장 12절은 선언합니다.

“[잠 24:12]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
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
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당신

의 모든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순간 그 마음의 무게까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당신 삶에 아무런 보상이나 상급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당신은 행위대로 보응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길 원하십니다.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주변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형제가 누구인지 살펴 보십시오. 모든 힘을 다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 주십시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도

우심이 필요합니다.

[잠 24:13]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
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잠 24:14]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4장 13절은 우리에게 꿀을 먹으라고 권하
며, 그 단맛이 입에 달다고 말합니다. 이 달콤함
은 단순히 육체의 만족을 넘어섭니다. 14절은 바
로 이 꿀과 같이 지혜가 우리 영혼에 좋으니 이
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강력하게 약속합니다.

지혜는 우리 영혼에 꿀과 같은 것입니다. 꿀이
몸에 좋은 것처럼 지혜는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는 꿀이 있고 없는 차이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꿀이 없어도 다른 음식으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미련한 자로 변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마치 짐승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는 지혜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영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성령님과 깊은 기도를 통한 대화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지혜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장래와 결코 끊어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덧없는 달콤함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찌우는 하나님의 지혜의 꿀입니까?

[잠 24:15]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잠 24: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잠
24: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
24:18]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
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당신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아
야 합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악인입니
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이라
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일곱 번 넘어진다 할지
라도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악인
이라면, 재앙이 임하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 곧장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항
상 다시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도록 새 힘과 능
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
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의인이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잠 24: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 24:18]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우리는 결단코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가 엎드러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쾌재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실망하실 때, 어쩌면

악인에게 임한 심판의 재앙을 거두시고 그 진노를 돌려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지 모른다는 두려운 경고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듯이, 악인의 몫인 재앙을 우리에게 옮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이 악인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의인이 의인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참된 의인이라면, 악인의 아픔을 기뻐하거나 조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당신과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해야 하며, 악인에게 임한 재앙이 당신의 삶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그 보호하심에 겸손히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악인의 재앙에 대해 기뻐하거나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뻐하는 그 악인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형제일 수 있으며, 우리가 겸손을 잃는다면 언제든지 당신이 그 악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경외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그 진노가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자세입니다.

[잠 24:19]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 24:20]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는 곧잘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마땅히 악인 취급을 받아야 정상인데, 오히려 악인이 의인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게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노를 잠재우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듯 보일 때조차, 우리가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악인은 장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일시적인 형통함의 역사를 누릴지라도, 저들의 장래는 결국 무너짐뿐입니다.

“[잠 24:20]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의 등불은 결코 영원토록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성공과 부요함은 마치 아침 이슬이나 꺼져가는 등불의 불꽃과 같아서, 이내 곧 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의미해집니다.

우리의 장래는 세상의 일시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득의함에 마음을 빼앗겨 분노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스스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내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빛날 의인의 면류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진정한 평안이며, 끊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잠 24:21] 내 아들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모반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 24:22]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우리는 결코 모반자로 더불어 사귀거나 그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는 저들에게 재앙이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반자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왕에게 반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세상의 권세와 질서에 반역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반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역자들과 결코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모임에 참여해서도 안 되며, 그들의 선동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왕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왕과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모반자와 사귀는 것은 곧 그들의 재앙과 멸망의 길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이 경고하듯, 모반자들의 재앙은 속히 임할 것이며,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순종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반자들과의 교제를 끊고, 거룩함과 순종의 길에 굳건히 서서,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멸망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앙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잠 24:23]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잠 24:24]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잠 24:25]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잠 24:26]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우리는 악인을 미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배울지라도, 악인을 의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더욱더욱 피해야 할 영혼의 죄악입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정상적인 행위, 곧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태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잠 17:15]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여호와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향한 견책은 정당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준엄하게 욕을하신 것은, 악한 자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견책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며, 공의를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악인을 의인으로 여기거나 취급하는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악인을 견책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오며, 오히려 좋은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진실한 견책을 ‘입맞춤’에 비유합니다. 이는 진실된 견책이 결국 영혼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잠 24:26]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자는 입맞춤

과 같으니라”

또한, 이러한 용기 있는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잠 24:25]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는 자는 낙을 얻을 것ियो 또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리라”

당신은 지금 악인에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혹 악인을 의인으로 인정하며 눈치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니까? 당신의 입술이 공의의 입맞춤을 전하는 용기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 24:27]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네 집을 세운다’는 말은 가정을 꾸리는 것, 즉 장가가고 시집가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중요한 가정을 꾸리기 전에 먼저 열심히 일을 해야 함을 엄격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

서 예비하고..."라는 명령은,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여 세상의 삶의 터전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감을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집에서 말썸보고 기도만 하면, 복이 굴러들어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하지 않고 밥을 먹으려는 못된 심보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신성함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은 오직 열심히 일하는 자의 성실함과 책임감 위에 건축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책임감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언은 가정을 세우는 일은 영적 열심 이전에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준비 과정이 필수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 24:28]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

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잠 24:29]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협박과 강압으로 사람을 거짓 증언의 자리에 서게 하는 비열한 행위를 금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아주 강력한 위치를 의미하며, 증인은 마땅히 옳고 그름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협박을 사용하여 거짓된 증인을 서게 하는 것은 진실의 근간을 흔드는 악한 죄악입니다.

이렇듯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가 내게 행한대로 나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는 영적인 협박입니다. “당신이 내게 한대로 갚아줄게”라는 말은 주먹으로 상대를 패는 것과 같은 폭력적인 언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복의 언어를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자녀에

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해야 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고귀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눅 6: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방식인 보복과 양갚음의 원칙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주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된 증언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의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잠 24:30]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잠 24:31]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

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잠 24:32]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잠 24:33]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
고 좀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잠 24:34]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증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대로 ‘내가 지나갈 때에’로 해석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느 한 때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본 광경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가시덤불이 퍼져 있었고, 거친 풀이 지면을 덮었으며, 집과 밭을 지켜주어야 할 돌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게을러서 밭과 포도원을 관리할 마음조차 잃은 것이고,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하여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조차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게으른 자이거나 지혜 없는 자라면, 틀림없이 당신의 밭과 포도원(곧 당신의 삶)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 황폐함은 외적인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

니다. 게으름은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게으른 자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고 스스로를 유혹합니다. 이는 육체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나태함까지 포함하는 심각한 영적 태만입니다. 게으르고 미련한 자에게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냉혹하게 다가옵니다.

"[잠 24:33]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잠 24:34]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빈궁이 강도처럼 예고 없이 들이닥치고, 곤핍이 군사처럼 무자비하게 삶을 점령합니다. 이는 저들이 육체적인 나태함뿐만 아니라, 미련함 때문에 영적인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빈궁이 있다면, 당신 스스로 게으르지 않는지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에 곤핍함이 있다면, 당신 스스로 미련하지는 않는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빈궁과 곤핍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부지런함
과 지혜로 가꾸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을 누리
는 의인의 길입니다.

잠언서 25 장 =====

[잠 25:1]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잠 25: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 25:3]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깊은 심해나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반면, 이 세상 왕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권세와 업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쉽게 포착되지 않지만, 이 세상 왕의 영광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도 누구나 그 화려함과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곧 그 본질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숨긴다'는 말은 <사타르>인데 이 말은 '숨기다', '감추다'란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기에, 그 영광을

찾고 발견하기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영적인 심마니의 수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의 영광은 이와 반대여서, 오히려 그 영광을 드러내고 '살피다'<하카르>를 통해 백성들이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살피다'는 이 단어는 '찾다',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왕은 자신의 영광을 밝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는 굳이 영적인 노력 없이도 세상 왕의 영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왕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차 있습니다. 공기가 온 세상을 덮고 있듯이,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심령을 덮고 있습니다.

“[합 2: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 왕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

광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저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으며 마음이 굳어 있으므로 그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전 2: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지혜로써만 이 감춰진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잠 25:4] 은에서 찌끼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잠 25:5]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잠 25:6]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잠 25:7]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만 세상 왕에게도 존중을 받습니다. 성경은 정금을 만들기 위해 찌끼를 제거하듯이, 왕은 악한 자를 제거할 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를 제거할 때 왕의 자리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악한 자로 왕 앞에 선다면, 왕은 당신을 제거하여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 할 것입니다. 은에서 찌끼를 제거할 때 비로소 쓸만한 그릇이 나오듯이, 왕은 당신의 악함을 제거하여 그의 통치에 필요한 도구로 삼거나, 아예 제거하여 나라의 순결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악한 자로 왕 앞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왕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거나 쿠데타를 계획하는 사람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교만함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 결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마십시오. 왕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 대인의 자리에 서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당신의 생명과 영광을 잃고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 위에 누군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앞에 스스로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많은 영광은 이 교만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스스로 높은 자리를 취했다가 저리로 내려가라는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처세술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영원한 질서를 가르칩니다.

[잠 25:8]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
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잠 25:9]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
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잠 25:10]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
욕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다른 사람과 다툴 때, 우리는 반드시 다툼의 경
계를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툼 때 "변론만 하고"라고 명합니다. 이는 오직
그 사람과 관련된 문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 국
한된 사안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만일 다툼 일이 생길지라도 그 다툼이
 오직 두 사람에게서 끝나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입
니다. 잠언은 이웃과 다툼 때 절대로 남의 은밀
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
은밀한 일'은 히브리어 <소드>입니다. 이 단어
는 '의논', '협의',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

가와 의논했거나, 누군가에게서 들은 조언, 혹은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정을 다툼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논하고 조언해준 제삼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다툼은 건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배우자와 다툼 때에 오직 배우자와 연관된 문제만 가지고 다투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 혹은 친구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툼에 끼여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와 다툼이 있을 때에도 오직 그 자녀와만 다투야 하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친구를 끌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실수는 또 다른 다툼을 불러오고, 불화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툼 때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툼 때조차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잠 25: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고 가르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적절함과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잠언은 이웃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를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명예에서 찾습니다.

“[잠 25:10]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까 두려우니 네 수욕이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르나, 결국 듣는 자에게 책망을 듣고 수치(수욕)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발설한 말이 우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만들기 때 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침묵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다툼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과의 신뢰 관계를 지키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인정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툼의 순간에도 혀를 제어하고 이웃의 은밀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우리 영혼의 수치를 막는 방패입니다.

[잠 25: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에 금사과니라

[잠 25: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와 같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은 이 지혜로운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아로새긴 은쟁반'은 정교하게 세공되어 그 자체로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하며, 그 위에 놓인 '금사과'는 희귀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즉, 말 한마디가 물질적인 귀금속이나 예술 작품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히 칭찬이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그리고 진리를 담아내는 절제된 표현이 결합될 때 비로소 탄생합

니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성찰과 지혜로운 판단을 거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다툼을 멈추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을 가집니다.

말하는 지혜가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듣는 지혜입니다. 잠언 25장 12절은 이 듣는 지혜의 가치를 놀라운 비유로 승화시킵니다.

“[잠 25: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때때로 듣기에 고통스럽고 마음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변호하려 하고, 비판을 거부하며, 훈계하는 사람을 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쓰디쓴 말을 청종하는 귀, 즉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 책망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장식품으로 변화시킵니다.

금고리와 정금 장식은 고대 사회에서 부와 존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가치를 지닌 보석에 비유된다는 것은, 겸손하게 수용한 훈계가 우리의 외적인 명예나 소유보다 훨씬 더 귀한 내면의 인격과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준다는 의미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불편함은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와 성장은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에는 금사과처럼 고귀하게 하되, 들을 때에는 그 말이 금고리처럼 내 영혼을 장식하도록 겸손히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훈계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잠 25: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 25: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 시원하게 해 드립니다. 잠언은 이 충성된 사자를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땀과 수고로 지친 뜨거운 날, 영혼의 갈증까지 해결해 주는 시원한 냉수처럼,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염려와 근심을 단번에 해소하고 깊은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충성스럽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성실을 넘어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란 뜻 외에도 ‘지지하다’, ‘믿다’라는 견고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일꾼입니다. 그들의 정직함과 변함없는 성실함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지지할 만합니다. 이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헌신은 주인의 마음을 가장 근본적으로 시원하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맡은 자리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

케 해 드리는 일꾼입니까? 혹 당신의 상사는 당신을 믿음직한 일꾼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실함이 주인의 영혼에 시원함을 안겨주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주인의 마음에 오히려 홀가분함과 안도감이 들지는 않을지, 우리는 스스로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랑이나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들을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로 비유하며 그들의 허무함을 경고합니다.

“[잠 25: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은 농부에게 최악의 절망을 안겨주는 현상입니다. 구름은 비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방울의 생명수도 땅에 내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자랑하는 자는 큰 축복과 선물을 약속하는 것처럼 요란하게

말하고 허풍을 떨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결실도, 유익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실체가 없는 허무한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고, 기대를 품었던 모든 이들에게 실망만을 남깁니다.

충성된 일꾼은 신실하고 정직하며 깨끗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자랑이나 헛된 약속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신뢰와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삶이 빈 구름과 같이 허무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고, 오직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진실된 열매로 가득 채우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 25:15]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
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 25:16]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으
라 과식하므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오래 참는 자는 결국 승리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

입니다. '오래 참다'는 것은 분노를 삭이고 화를 내지 않으며 인내하는 깊은 영적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할 때, 권위 있는 관원조차도 그 말을 용납하고 수용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조금하게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할 경우에 일을 그르치고 실패하게 됨을 경고합니다. 오래 참는 자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의 부드러운 혀는 아무리 딱딱하게 굳은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녹이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부드러움'조차도 지나치면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6절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꿀에 비유합니다.

“[잠 25:16]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만큼 먹
으라 과식하므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속을 상하게 하고 토하게 되듯이, 부드러움이라는 미덕도 너무 과하면 상대방에게 역겨움과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아침이나,

진실 없는 유순함은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절제된 미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은 분명 복되지만, 그 행위의 진정성과 적절함을 잃을 때 그 가치마저 퇴색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 25:17]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
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잠 25:18]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잠 25:19] 환난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는 이웃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며 미움을 받게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잠언이 이처럼 이웃을 의지하는 행위를 경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지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은 그만큼 이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에게 내

어주는 영적인 오류입니다.

이웃을 의지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순수한 신뢰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마찰과 다툼, 그리고 미움으로 끝이 납니다. 의존은 관계의 파멸을 부릅니다. 이처럼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국 이웃과 곤경에 빠지고 서로를 해치는 자로 변질됩니다. 결국,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자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과 같습니다.

“[잠 25:18]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이웃을 해치는 행위는 곧 그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 결국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고 맙니다.

이웃을 의지하는 것은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진실된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사랑은 완전치 못하여, 환난 날에는 결국 우리를 해치거나 실망시키는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의지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잠 25:19]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는 음식을 씹을 수 없어 생명을 위협하고, 위골된 발은 몸을 지탱할 수 없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환난 날에 세상의 것을 의뢰하는 것은, 우리를 지탱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무능력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배우자,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의지는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리고, 영혼의 평안을 앗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잠 25: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잠 25:21]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
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잠 25:22] 그리하는 것은 핀 솜으로 그의 머리
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원수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
집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누
가 우리의 원수인지 쉽게 분별하며, 결코 원수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의 필요를 채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
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
을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의 삶
에 복이 충만하지 않다면, 어쩌면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
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
여 하나님의 복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

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잘못된 위로는 오히려 상처를 더합니다.

“[잠 25: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는 기운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여기서 노래는 잘못된 위로를 상징합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처럼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쏘는 기운에 식초를 부음처럼 고통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적절한 위로를 건네지 못할 뿐 아니라, 원수에게는 더욱 냉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가 배고플 때 식물을 먹고, 목말라할 때 물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솥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잠 25:22] 그리하는 것은 핀 솥으로 그의 머리

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원래 솜을 올려 놓는 것은 죄를 사함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핀 솜에 의해 죄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선대할 때, 원수는 그 행위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영적인 효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죄를 사해주는 것을 뜻하며, '원수'라는 죄명을 떼어 버리는 용서의 행위입니다. 이제 더이상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원수의 머리에 핀 솜을 올려놓으면 원수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의미에서 선행을 베풀었지만, 도리어 원수는 그 사랑과 선대함 앞에서 자신의 악함과 비열함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원수가 느끼는 이 수치심은 그 어떤 복수보다 더 진한 원수 깊음이 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의미에서 솜을 그의 머리에 올려 놓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원수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원수에게서 빼앗는 복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복보다 더 큰 복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복처럼 에누리없는 복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복은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와 선행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 25:23]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잠 25:24]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 25:25]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참소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마치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북풍이 예기치 않은 비를

몰고 오듯,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참소하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세테르>에서 파생되었으며, 이 단어는 '은밀한 곳', '비밀', '뒷개'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숨어서 혀를 놀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토록 비밀스러운 곳에 숨어서 남의 일을 꾸미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는 것일까요? 배우자를 깜짝 놀래주기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참소하는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남의 비밀을 폭로합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하니까 숨어서 하는 거잖아요"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까? 아닙니다. 숨지 않고서 비밀을 폭로할만한 자신감과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숨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어서 친구의 안 좋은 부분을 폭로합니다. 우리는 숨어서 배우자의 좋지 못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숨어서 자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숨어서 정부에 대해 비판합니다. 우리는 숨어서 교회 목사를 깁니다. 숨어서 남의 흉을

보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은밀한 악행은 분노와 다툼을 초래하며,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정마저 파괴합니다. 여기에 드러내놓고 까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투는 여인입니다. 다투다는 말은 논쟁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숨지 않습니다. 아주 뚝뚝합니다. 용사보다 더 용맹스럽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쉴만도 하지만 도무지 이 여인은 쉬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해댑니다. 울던 새도 울음을 멈추고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여인이 이깁니다. 새와 함께 남편도 날아갑니다. 저 멀리 산으로 가서 움막을 짓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좋은가 봅니다.

“[잠 25:24]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이 주는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가, 다투는 여인에게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함보다 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역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기별입니다.

“[잠 25:25]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냉수를 마실 때, 그 시원함이 온몸에 퍼져 갈증을 해소하고 생기를 불어넣듯, 좋은 기별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툼과 참소하는 혀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가장 좋은 기별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영혼은 이 목마른 자가 마시는 냉수처럼 회복되고 소생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혀가 이웃을 상하게 하는 북풍이 아닌, 영혼을 살

리는 좋은 기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 25:26]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마치 맑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의인의 본질적인 순수함과 생명력이 악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오염되고 파괴되는 영적 비극을 경고합니다.

잠언 25장 26절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앞에'라는 단어는 '얼굴'을 뜻하는 <파님>입니다. 의인이 악인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굴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모트>입니다. 이 단어는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 영혼이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의인이 악인의 얼굴을 볼 때 흔들릴까요? 왜 의인이 악인 앞에서 물 녹듯이 미끄러지고 마는 것일까요? 바로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의인은 자신이 의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의인은 항상 의롭게 살아야 자신감이 생기는데, 조금이라도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될 때 본인 스스로 영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이라 하여 악인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결코 악인 앞에서 비틀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곧바로 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비틀거릴지라도, 그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어야 비로소 악인의 얼굴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 스스로 죄인이라는 부끄러움 때문에 악인 앞에서 찢찢매거나 무너진다면, 당신은 오히려 하

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훨씬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흔들리고 비틀거리며 미끄러질 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의인의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흐려진다'라는 말은 <사하트>입니다. 이 단어는 '멸망되다', '파멸되다', '부패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파멸되고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 앞에서 흔들리고 비틀거리며 미끄러질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악인 앞에서 찢찢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인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죄인 된 모습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어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악인 앞에서만큼은 당당하십시오! 어찌 악인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사람으로 여깁니까? 악인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악인 앞에서는 절대로 찢찢매지 마십시오. 당신

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악인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당당함에 달려 있습니다.

[잠 25: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꿀을 좋아하는 사람은 꿀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영예를 추구합니다. 성경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하듯,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경고합니다. 꿀의 달콤함이 몸에 과하게 축적되어 결국 탈을 부르듯이, 영예를 향한 끝없는 갈망은 영혼에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예'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보드>입니다. 이 단어는 '부'나 '명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헛되니라'는 단어 역시 <카보드>가 사용되어, 영예 자체가 가진 허무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부를 추구한

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케르>입니다. 이 단어는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뭔가를 발견하고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연구하고 찾는 간절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기만을 원하며,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갈망이 멈추지 않으며, 이는 마치 꿀을 좋아하는 사람이 꿀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꿀입니까? 아니면 사라질 세상의 부유함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헛된 열망이 가져올 파멸을 경고합니다.

"[딤후 6: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은 주님 한 분
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세상의 꿀
이나 영예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으며, 오직 영원
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풍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 25:28]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장 취
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은 그 모습을 가리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
는 것 같으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성벽 없
는 성읍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
태이며, 곧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마음'은 히브리어 <루
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 (Spirit)입
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모두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마귀의 영과 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마귀의 영, 곧 세상의 정욕과 악한 유혹과 접하게 되어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과 삶 전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악한 영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영적 싸움에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통제력을 잃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성벽이 무너진 성읍처럼 약탈당하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머물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견고한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수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영적인 결단이며,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언서 26 장 =====

[잠 26:1]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오는 것 같으니라

[잠 26:2]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1절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상황을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나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부적절한 일이며,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은 수확을 망쳐버리는 재앙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영예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만나 시너지를 내어 악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저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새가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듯, 까닭 없는 저주 또한 이유 없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 아래 거하는 자는 복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풀어진 것입니다.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만일 당신이 스스로 '나는 아직도 저주 아래 있

는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속히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당신의 모든 저주가 주님의 은혜
로 풀어질 것입니다. 오직 저주는 주님을 통해서
만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저주
를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잠 26: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
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잠 26:4]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
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잠 26:5]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
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
길까 하노라

[잠 26:6]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잠 26:7] 저는 자의 다리는 힘 없이 달렸나니 미
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잠 26:8]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잠 26:9]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잠 26:10]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
으니라

[잠 26:11]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느니라

[잠 26:12]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와 함께 하는 사람은 결국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대화를 나누지 마십시
오. 당신의 지혜가 희미해져 미련한 자가 될 것
입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남들
이 당신을 미련한 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 때문에
당신이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
로 인해 당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
신이 아무리 애써 노력한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

를 고용하면 미련한 자 때문에 당신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잠 26:11]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느니라”

성경은 미련한 자의 행위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에 비유하며, 미련한 자의 본성이 얼마나 완고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들은 악순환 속에 갇혀 계속해서 미련할 것입니다.

이 모든 미련함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이며,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배울 것이 없다고 착각하여 진리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가장 위험한 미련함입니다.

당신 주변에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미련한 자를 떠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가급적 빨리 떠나십시오. 미련한 자와 함께 하는 당신 또한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너무 확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미련한 자로 남게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지라도, 결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를 도울지라도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 26:13]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 26:14]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

[잠 26:15]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 26:16]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당신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자입니까? 만일 당신이 게으른 자라면, 그 첫 번째 징표는 행동보다는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을 좋아합니다. 물론 말조차 하기 싫어하는 극도의 게으른 자도 있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행동의 결핍을 말로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자가 나타나도 말만 합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목숨을 걸고 도망을 치거나 맞대어 싸워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만 할 뿐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싫고, 맞대어 싸우기를 꺼려하는 두려움과 나태함 때문입니다. 혹 당신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행동은 취하지 않은 채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돈이 없어도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일하지 않으면서 돈 없는 것을 걱정하십니까? 혹 당신은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행동을 취하면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여, 결국 일어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숨어있는 것입니까?

게으른 자는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이며, 동시에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잠언 26장 14절은 게으른 자의 나태함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잠 26:14]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

문짝이 제자리를 맴돌듯, 게으른 자는 침대 위에서 몸만 뒹척이며 아무런 생산성 없이 시간만 허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 먹을 때만 나오는 데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밥 먹기 위해서 문을 열고 밥상까지 걸어 나온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숟가락을 올리는 것도 귀찮아하는 다른 게으른 자와 비교하며, 자신은 그래도 아주 열심히 밥을 먹고 있다고 스스로 감동을 먹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한시도 방을 떠나지 않는 거룩한 분들입니다.

게으른 자는 중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독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게으른 자로 중독 시킨 것입니다. 마치 무우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그렇게 마귀의 영향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귀가 그의 손을 마비시키고, 그의 발을 마비시킨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마귀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는 생각까지 넣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게으른 자는 스스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거룩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착각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게으른 자들이 방에 쳐박혀 아무 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들처럼 숭고한 사명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도 없으며, 저들처럼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다고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좀처럼 함께 하

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를 확인시켜 줍니다.

“[잠 26:16]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마귀한테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십니다. 마귀한테 빼앗기면 좀 억울함이 덜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은 영혼에 큰 상처가 됩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게으른 자와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게으른 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게으른 자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 25: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마 25: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마 25: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만일 당신이 게으른 자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악한 자로 여기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방에 쳐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서움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 미련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미련한 자를 떠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가급적 빨리 떠나십시오. 미련한 자와 함께 하는 당

신 또한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너무 학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미련한 자로 남게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미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을지라도, 결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를 도울지라도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 26:17]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잠 26:18]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잠 26:19]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잠 26:20]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잠 26:21]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잠 26:22]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벌식과 같아서 밧 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툼에 간섭하길 좋아합니다. 이들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마치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며, 주변 사람의 모든 일에 개입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과도한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간섭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잠 26:17]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신과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행위는 개 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개 귀를 잡으면 개를 놓을 수도 없고, 개에게 물릴까 두려워 잡고 있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거나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내가 남편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합니다. 이렇듯 간섭하게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내 뜻대로 남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남편을 자신이 지배하고 조정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개 귀를 잡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내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입니까? 아내는 아내의 것입니다. 결코 남편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는 아내 것이며 남편은 남편 것입니다. 스스로 독립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서기입니다. 결코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는 홀로 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 하십시오.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입니까? 자식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을 당신 소유물처럼 취급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당신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 소유물이 아닌 자식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잠시 맡겨 놓은 선물 처럼 생각하십시오. 잠시 맡겨 놓은 것이지 결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직원을 당신의 소유물로 취급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사는 부하직원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이런 상사를 만난 부하직원은 많이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부하직원을 힘들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에게 이 성경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딤후 5: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먼저 남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
해 간섭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쟁이가 됩니다. 말을 멈
추게 되면 너무나 슬퍼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합니다. 말을 쉬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말쟁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잘
보기 때문입니다.

말쟁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재미있기 때문입
니다. 이 세상의 가장 재미나는 게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을 것입니
다. 그래서 말쟁이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벌식
에 비유하여 경고합니다.

”[잠 26:22]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벌식과 같아서 밧 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별식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중독시키고 파괴하는 독과 같습니다. 숨어서 남을 깔아뭉개는 맛이 일품이어서, 그 달콤함이 뱃속 깊은 곳까지 중독처럼 내려앉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내 곧 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타오르고 있는 불일지 모르나 이내 곧 꺼지고 말 것입니다. 말쟁이의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불이 있을 동안 꺼지는 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타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쟁이의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우리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잠 26:21]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당신은 지금 남의 일을 간섭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지금 남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의 일을 간섭하기보다 남의 일

을 더 간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잘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혀를 제어하여 생명을 얻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 26:23]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잠 26:24]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꾀함을 품나니

[잠 26:25]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잠 26:26] 꾀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술에는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지만,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온유하다'라는 말로 해석된 히브리어 <달라크>는 본래 '불타다', '맹렬히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온유하다'로 풀이된 배경은, 아마도 열정과 불타오르는 사랑을 가지고서 남을 칭찬하거나 호감을 보이는 모습을 외형적인 온유함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열정과 불타오르는 사랑의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는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습니다. 토기는 흙에 불과하지만 유약을 바름으로써 멋진 모습으로 탄생시키는 것처럼, 속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온유한 입술이 마치 그 사람이 한없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러한 이중인격자의 행위를 궤함과 가증함으로

폭로합니다.

“[잠 26:24]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궤환을 품나니 [잠 26:25]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의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하며, 그 마음이 가증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달콤한 말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인격자는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 26:26] 궤환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회중에게 폭로되고 말 것입니다. 하늘 아래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드러나게 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칭찬이 가득 차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는 진실한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 26:27]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잠 26:28]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에 치이게 하기 위해 돌을 굴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악을 꾀하는 자에게 임하는 가장 확실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당신이 파 놓은 함정에 당신이 제일 먼저 빠지게 될 것이며, 당신이 굴린 돌은 도리어 당신 자신에게 치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며, 결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삼가야 합니다. 거짓말은 결국 거짓된 관계와 불신으로 끝이 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 하는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되며,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의 굴레에 갇힙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 26:28]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입 또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진실되이 사랑해야 합니다. 아첨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속마음과 겉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정직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형제를 나무라는 말을 할지라도 정직한 것이 좋습니다. 형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로 칭찬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할 경우, 제일 먼저 그렇게 말한 자신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함이야말로 우리를 지키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잠언서 27 장 =====

[잠 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 27:2]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잠 27:3]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잠 27:4]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1절 상)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자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할랄>입니다. 이 단어는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라는 뜻과 함께 '찬양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존재를 찬양하는 행위

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특별히 당신을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당신을 미워할 것이지만, 그들의 미움은 미련한 자의 미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 27:3]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보통 사람들의 미움은 모래와 같지만, 미련한 자의 미움은 바윗돌과 같습니다. 모래는 파도에 의해 쉽게 옮겨지지만, 바윗돌은 여간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미련한 자의 분노를 사게 되면, 당신의 삶은 잔인한 패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나타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의 업적을 밝히거나 찬양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미련한 자의 질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변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당신이 오늘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미련한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미련한 자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미련한 자의 질투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미련한 자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칭찬을 받을 때, 당신을 향한 분노를 삭힐 것입니다.

“[잠 27: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만들고 풀무로 금을 만들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 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아낀다면, 당신은 결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특히나 당신 곁에서 함

께 할 친구는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즐겨한다면, 당신 주변에는 미련한 자만 득실댈 것입니다.

잠언 27장 4절은 분노의 파괴적인 속성을 경고합니다.

“[잠 27:4]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는 잔인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노는 창수(홍수)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투기(질투)입니다. ‘투기’ 앞에는 그 누구도 감히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투기는 마음속에서 뼈를 썩게 하는 독과 같으며, 관계를 가장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와 투기의 감정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잠 27:5]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잠 27:6]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 27:7]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잠 27:8]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잠 27:9]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잠 27:10]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잠 27:5]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잠 27:6]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 27:7]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잠 27:8]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잠 27:9]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

이 아름다우니라 [잠 27:10]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면책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면책'은 밝히 드러내어 책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 앞에 꾸지람을 당하거나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면책이 오히려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말로 사랑을 너무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면책하는 행위가 훨씬 더 진실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만큼 진정성이 없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만 말로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다면 반드시 몸소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통책'은 곧 진실한 꾸지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의 꾸지람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의 입맞춤을 더 좋아합니다.

“[잠 27:6]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만일 당신이 원수의 입맞춤을 친구의 꾸지람보다 더 좋아한다면, 당신은 잠언서에서 줄곧 언급하고 있는 미련한 자입니다.

친구의 꾸지람을 달게 받지 못하는 자는 배부른 자와 같습니다.

“[잠 27:7]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는 꿀을 싫어하듯이 친구의 꾸지람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친구의 꾸지람에 주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꾸지람에 목말라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꾸지람 때문에 친구를 떠난다면, 당신은 보금자리를 떠난 새와 같습니다.

“[잠 27:8]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친구의 꾸지람을 듣기 싫어 친구를 원수로 삼아서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꾸지람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한다면, 당신은 보금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새와 같습니다. 꾸지람을 듣기 싫어해서 친구를 떠나는 사람은 꾸지람을 하지 않는 친구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마치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새와도 같습니다.

친구의 꾸지람을 즐기십시오. 친구의 꾸지람은 기름처럼 값지고 향처럼 향기로워야 합니다.

“[잠 27:9]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

니라”

만일 당신에게 있어서 친구의 꾸지람이 토할 것 같은 썩은 음식처럼 여겨진다면, 당신은 정말로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친구의 소중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 27:10]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 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당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당신 부모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왜 성경은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권할 때에 부모의 친구까지 언급했을까요? 그만큼 친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친구는 부모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소중한 사람은 당신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혈육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가까운 이웃 중의 이웃입니다. 옛 말에 친구 세 명을 둔 사람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중의 친구이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만한 친구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롬 5: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주님은 우리의 친구 중의 친구이십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꾸지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친구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 27:11]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잠 27:12]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 27:13]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

하나님은 슬기로운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슬기로우시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슬기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따끔한 말을 해 주실 것입니다. '비방하다'라는 말은 경멸하다 또는 질책하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방하고 경멸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비방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비방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거나 피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 역시 재앙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사람을 통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피해야 상책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맞부딪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잠 27:12]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무엇이 재앙을 불러오고 어떤 사람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지 압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보증이 됩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보증은 어리석은 자만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 생각에는 보증이 사랑의 행위라고 여길지라도, 보증은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잠 27:13]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누구든지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외인들을 위해 보증이 되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을 빼앗기며 그 몸이 볼모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잠 17: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 27:1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 같이 여리게 되리라

[잠 27:15]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잠 27:16]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우리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행위가 오히려 저주 같이 여겨지게 된다는 역설

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이라는 선한 의도조차도 상대방의 상황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방식으로 전달될 때, 축복의 본래 의미를 잃고 오히려 소음과 무례함으로 여겨져 미움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혜가 결여된 선행이 악행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며, 큰 소리를 내면 자신이 이기는 것처럼 여깁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마치 빗방울이 끊임없이 이어 떨어지면서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쉬지 않고 논쟁과 잔소리를 계속합니다.

“[잠 27:15]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마치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잠 27:16]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다툼을 시작하고 언제 끝마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산다는 것은 마치 기름을 움켜잡는 것과 같습니다. 잡은 것 같은데 막상 손을 펼쳐보면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다 새어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다투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제어할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혹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다투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언어와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선한 의도일지라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은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빛나게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 줍니다.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빛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님>입니다. 이 단어는 성막의 진설병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막의 진설병에는 떡과 포도주가 진설되어 있습니다. ‘진설’이라는 말이 곧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파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분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떡과 포도주, 즉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자는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세상 친구만을 사귀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의 얼굴에는 세상이 묻어 있고, 세상의 냄새가 나며, 세상의 양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를 친구로 사귀어야 합니다. 주님의 냄새가 나고, 주님의 모습이 풍기는 자를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얼굴이 영적으로 빛나게 됩니다.

친구와의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는 연마 과정과 같습니다. 철이 철을 연마하듯, 지혜로운 친구의 충고와 사랑은 우리의 영적 미련함과 어두움을 깎아내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친구는 당신의 얼굴에 어떤 빛을 더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자만이 영광스러운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 27:18]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

라

[잠 27:19]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는 확실한 방법은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히브리어 <나차르>로,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정성껏 잘 가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주고 사 먹는 사람은 상한 열매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화가 필요합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카바드>인데 이 말은 '무겁다', '짐이 되다'라는 뜻 외에 '존귀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화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존귀한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화를 받는 것은 복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영화를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

종드는 것입니다. 시종드는 것은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시종들다'란 말은 히브리어 <사마르>입니다. 이 말은 '지키다', '보존하다'란 뜻 외에 '준수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시종들어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교회 모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하인이 정성으로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화를 얻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습니다.

"[잠 27:19]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정성으로 시종들지 않으면서 주님의 영화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통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정성으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전도'와 '헌신'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화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잠 27:20]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그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며, 유명은 히브리어 <아밧돈>입니다. 이 단어는 '멸망'을 의미하며, 음부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를 뜻합니다. 지옥은 아무리 많은 영혼을 채워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며, 마귀는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 또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잠언은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고 단언합니다. 무엇을 보든지 만족함이 없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고 채워도 사람의 마음에 궁극적인 만족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곧 지옥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마음은 곧 지옥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세상적으로 풍요로울지라도 내면은 끊임없는 결핍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참된 만족함은 그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합니다. 이 만족함은 세상의 소유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보고 끊임없이 탐하며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갈증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오직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지옥과 같은 마음의 공허함에서 벗어나 천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 27: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잠 27:22]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찜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은을 만들 때 도가니를 사용하고 금을 만들 때 풀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뜨거운 불과 연단이 귀한 금속을 만들어내듯, 칭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시련하여 만들어내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칭찬을 아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치 못한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칭찬하지 않

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하고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며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작은 선행까지도 과분할 정도로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은 칭찬할 일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할 것을 칭찬할지라도, 마치 귀한 물건을 아끼듯이 칭찬을 아깁니다. 아끼는 물건을 남에게 주기 아까워하듯이,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이런 인색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형벌로도 불가능합니다.

“[잠 27:22]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으로 찜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곡물과 함께 공으로 찜어 가루로 만들지라도, 그의 근본적인 미련은 결

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련함이 단순히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과 영적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채찍이나 강한 형벌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미련함은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자를 칭찬으로 교육할 때, 그는 그 사랑과 인정 속에서 마음을 열고 변하여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영혼을 세우는 말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정금처럼 빛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잠 27:23]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

[잠 27:24] 대저 재물은 영영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잠 27:25]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
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잠 27:26]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잠 27:27]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양떼가 많아지면 일일이 양들의 형편을 헤아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부지런히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그 형편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떼를 잃게 됩니다. 소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떼가 적을 때는 온갖 신경이 소떼에 기울여지지만, 소떼가 많아지게 되면 점차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 각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립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각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적을 때는 온갖 신경이 쓰이지만, 물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양떼의 형편을 헤아리고 소

때에 마음을 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루 아침에 양떼와 소떼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어와 양떼와 소떼를 다 가져갈 수 있으며,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양떼와 소떼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 27:24] 대저 재물은 영영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성경은 재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가 가진 재물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물이 적당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양떼가 적당히 있을 땐 양떼의 각 형편을 헤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떼가 적당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소떼에 있습니다. 소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금세 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양떼를 거느린 사람은 양의 털을 이용해

가족이 입을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양의 털을 팔 것입니다. 양털을 팔아서 사 입는 옷보다 오히려 양털로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염소는 수없이 많은 재물을 거둬들이게 하겠지만, 적절한 염소를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잠 27:26]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잠 27:27]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당신은 풍족하기를 원합니까? 양떼가 넘쳐나고 소떼가 넘쳐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주신다 할지라도, 당신 혼자서 그 많은 짐승을 돌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서 곤고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재물 때문에 더욱 곤고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넘치는 소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안에서 부지런히

살피고 관리하며 자족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 장 =====

[잠 28:1] 악인은 쫓아 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 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악인은 늘 도망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늘 도망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영혼은 악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망치는 이유는 쫓기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이며, 무언가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는 결코 온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주님과 깊은 연합에서 비롯되는 의인의 본성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와 군대장관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군대장관, 곧

주님을 만난 후 그는 변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처럼 담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수 1:9]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내면에 죄의 굴레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양심과 죄책감으로부터 끊임없이 쫓기며, 잠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 의인의 담대함은 죄를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으며, 무엇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오직 하나님
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 안에만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잠 28:2]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
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
게 되느니라

[잠 28: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
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주관
자가 많아지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은 사공이 많아지는 것과 같아서, 사
공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배
는 마땅히 바다에 있어야지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나라'란 히브리어 <에
레츠>입니다. 이 단어는 '땅', '나라'를 의미하며,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을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나라'가 될 수 있으며, 가정도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는 주관자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원래 가정은 가장이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이 죄를 범하게 될 때 배우자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고, 자녀들이 주관자로 나섭니다. 이렇게 주관자가 많아질 때 가정이 망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나라입니다. 교회도 죄 때문에 주관자가 많아집니다. 주관자가 많아지면 패가 나뉘어지고, 이는 곧 분열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집니다.

나라에 죄가 없으려면 명철과 지식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지도자의 부재는 곧 죄를 만들어 내고 맙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수많은 주관자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 나라는 산으로 올라가고 말 것입니다.

잠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의 행위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잠 28: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이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자가 더 약한 자를 압제하는 행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는 수확물을 완전히 쓸어버려 공동체 전체를 궁핍하게 만드는

재앙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악행이 자기 자신과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가져옴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악한 자를 착취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에 어떠한 결실도 남기지 못하는 자기 파괴적인 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 28:4]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잠 28:5]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 율법을 버린 자들, 곧 악인을 대적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당신은 어쩌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

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추어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악인이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공의와 사랑으로 구분됩니다. 공의는 율법으로 행해지지만, 사랑은 은혜로 임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절반만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듯이, 당신 또한 사랑과 공의 두 속성을 모두 균형 있게 취해야 합니다.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도, 공의만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골고루 취할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5절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강조된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적인 사람입니다. 공의만 강조된 사람 역시 부분만 깨달을 뿐입니다.

'찾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카쉬>입니다. 이 단어는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묻다'란 뜻 외에, 무엇을 확보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렘 29:13]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갈망하며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만이 모든 것을 깨닫는 온전한 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다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분의 완전한 속성을 깨닫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 28:6]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성실히 행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툼>이며, 이 단어는 '완전함', '무결', '성실'을 뜻합니다. 성실은 곧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싫어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성실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성실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삶이 성실함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성실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곡히 행하는' 것은 히브리어 <이케쉬>로, '비뚤어진', '왜곡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사는 가난한 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보다 영적으로 훨씬 부유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만을 좇아 악을 행하는 사곡한 자의 길입니까, 아니면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 성실함으로 빛나는 의인의 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에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 28:7]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잠 28: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

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탐식
자를 사귀는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
다. 여기서 '탐식자'는 히브리어 <잘랄>입니다.
이 단어는 '무가치하다', '하찮다', '가볍게 하다'
란 뜻입니다. 이는 음식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재
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
리 스스로 재물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 재물을 모을 수 없었을 것입
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합
니다.

성경은 중한 번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역설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잠 28:8] 중한 번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
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고리대금(높은 이자)을 통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구제를 위해 저축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리대금 자체는 율법이 금하는 행위입니다. 이 구절이 주는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한 방법(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모은 자는, 결국 그 재산을 자기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의로 취하여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악인의 불의한 소득은 의인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중한 번리로 재산을 많아지게 한다면, 그 재산은 마땅히 가난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고리대금으로 높은 이자를 착취하였다 할지라도, 그 재산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운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높은 이자를 착취하면서도 그 중의 일부만 구제에 사용한다면, 당신의 악한 의도가 심히 크기 때문에 복 대신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 사용은 곧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탐식자와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나누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아들의 삶입니다.

[잠 28:9]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보

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러한 가증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히브리어 <토에바>입니다. 이 단어는 '혐오스러운 것', '역겨운 것'을 의미하며, 주로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거스르면서 드리는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우상을 바치는 것과 같이 역겨운 행위로 취급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성립됩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 진리를 분명히 밝힙니다.

“[시 66: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귀를 닫고 율법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내면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금 순종의 혀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악함의 외침에 불과합니까?

[잠 28:10]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에게는 하

나님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보호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도 복을 받으며, 이런 정직한 사람이 있는 교회 역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직한 자를 지키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십니다.

“[시 91: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 91:12]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정직한 자를 유인하려는 악인의 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내버려 두시어, 그가 스스로 판 함정에 갇히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직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아래 두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우리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의 약속하신 복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 28:11]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피어 아느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부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은 가난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런 사실을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명철한 자는 알고 있는데, 정작 부자인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자가 스스로의 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자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배우자가 성실한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고백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명철한 가난한 자는 부자의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봅니다. 명철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기며, 물질의 풍요 뒤에 감춰진 교만의 공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인정과 감사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잠 28:12]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명백하게 나뉩니다. 사람들은 의인을 좋아하지만, 악인을 싫어합니다. 만일 당신이 의인이라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 곁에 머무르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좇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악인이라면,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사람을 잃습니다. 악인은 그 존재 자체가 주변에 불안과 불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악인이 일어나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숨게 됩니다. 이는 악인이 불러오는 재앙과 파괴를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생존의 반응입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잃었다면, 당신의 삶에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악해졌음을 드러내는 뼈아픈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의인이 득의하면, 그에게는 큰 영화가 있습니다. 의인의 득의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계시다는 증거이기에, 사람들이 기쁨과 안심을 느끼며 그 의인을 따릅니다. 의인의 영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안전함을 느끼며 모여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변 사람들을 당신 곁에 머물게 하는 의인의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숨게 만드는 악인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과 관계의 열매를 통해 당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
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
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
람이 죄를 짓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죄를 짓
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 앞에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롬 3:10]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
며"

죄를 짓는 것에는 모두가 동일하지만, 그 죄를
숨기는 자와 드러내는 자로 나뉩니다. 당신은 죄
를 숨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죄를 드러내는 사
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부끄
럽다는 이유로, 혹은 남들이 알면 곤란할까 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언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

통치 못하니!

주목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형통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숨기기 때문에 형통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죄를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에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더욱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죄의 당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일단 죄를 자백했으면,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는 죄는 숨기는 죄와 같습니다. 죄를 버려야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죄를 숨기는 행위는 자신을 하나님의 빛에서 고립시키고, 결국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용기 있는 겸손은 하나님의 긍휼(불쌍히 여김)을 얻게 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참된 형통과 평안을 원하신다면, 오늘 바로 그 죄의 굴레를 끊고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잠 28:14]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두려워하고 떨림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강박한 모

습입니다.

강박함은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악한 행위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완악해져 강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재앙에 빠집니다. 강박하기 때문에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 재앙을 찾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재앙이 그 사람을 덮습니다. 재앙이 그 사람을 가두고, 재앙이 그 사람에게 밀려옵니다. 마치 홍수처럼 재앙이 밀려와 그를 압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가장 근본적인 복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겸손한 순종이며, 이 경외함만이 우리를 강박함

에서 벗어나 재앙의 굴레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 28:15]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잠 28:16]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마음이 강박해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합니다. 저들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이유는 바로 강박함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압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압제당하심을 싫어하시며, 누군가 하나님을 압제하려고 하면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미련한 자가 있다면, 그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그는 가난한 자의 참된 가치를 깨

닫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15절 하) 같을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은 자신의 힘과 위협을 과시하며 먹잇감을 찾으려는 본능적이고 잔인한 모습이며, 주린 곰은 공허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맹렬한 폭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찢으시고 곰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곧 탐심이며,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얻고자 갈망하는 탐욕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가난한 자를 압제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돈을 얻고자 갈망할 때, 가난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돈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결국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맙니다.

성경은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지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라고 대조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모르기에 폭력과 압제(포학)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탐욕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장수(오래 사는 복)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증거이며, 이 장수의 복은 탐욕을 미워하고 버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탐욕은 생명을 단축하고 영혼을 파멸시키지만, 거룩한 절제와 공의를 따르는 삶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잠 28:17]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결국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자체가 곧 스스로를 멸망의 함정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남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열심히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이 오히려 그를 함정으로 빠지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남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되며,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길에서 벗어나 구원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를 막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의지로 파멸을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물리적인 살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의한 행위로 남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 또한 생명을 해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악인은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의 죄악이 이미 파멸을 향해 달려가도록 그들을 독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며,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 28:18]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잠 28:19]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비뚤어진 길로 행하는 사람은 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형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위험한 순간에도 위기를 능히 넘길 것입니다. 마치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내 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비뚤어진 길은 마귀의 길이며 인간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곧은 길이며 옳은 길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땅을 성실히 경작합니다. 이 '땅'은 단지 물리적인 토지를 넘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성실하게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풍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뿐입니다. 방탕을 좇는 자는 항상 궁핍함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을 좇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치를 부리는 것을 넘어, 헛된 욕망과 쾌락을 좇으며 삶의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잠 28:19]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성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증거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그 발걸음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비뚤어진 길로 걷는 사곡히 행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비뚤어진 길을 버리고,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경작하여 하나님의 풍족함과 구원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 28:20]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에무나>는 '성실', '신실', '견고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람들도 이런 충성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렸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눅 2: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충성된 사람에게는 복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속히 부하게 됩니다. 사람 복도 많지만 재물 복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형벌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벌’이란 단어는 <나카>로서 ‘비우다’, ‘깨끗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깨끗이 비어지는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비어있습니다. 창고가 텅 비어있을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충성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

이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면,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나처럼만 살라고 해! 나같이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생각은 항상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은 당신을 더 힘든 상황으로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당신이 했던 모습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했던 말들을 들어 보십시오. 당신 스스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잠 28:21]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곧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차별대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별대우는 결국 뇌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시작점입니다. 처음에는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정(情)에 의해 차별대우를 하지만, 나중에는 뇌물을 받고서 차별대우하는 행위로 발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의 외모나 배경에 따라 공정함을 잃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며, 심지어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조각 떡은 아주 작은 물질적인 이득이나 호의를 상징합니다. 이는 큰 재물이나 뇌물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이익이나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의를 저버리고 불법을 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직함의 경계가 얼마나 무너지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작은 호의나 정에 이끌려 공정함을 잃기 시작하면, 결국 더 큰 뇌물과 부

정한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작은 불의를 용납하는 것이 결국 큰 죄의 문을 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이웃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혹은 교회 성도에게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한 조각 떡'의 호의를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호의가 결국 우리를 범법의 굴레로 이끌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평한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 28:22]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사람을 보면 대체적으로 눈이 악합니다. 악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꾼은 대체적으로 장사꾼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은 선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부는 주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은 대체적으로 학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사꾼인데도 장사꾼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꾼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할 때 눈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사람의 눈은 사악한 기운이 있습니다. 욕심의 눈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눈입니다. 욕심이 많은 눈입니다. 눈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자꾸만 옆 사람을 봅니다.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자꾸만 다른 곳에 초점을 둡니다. 남을 쬼어보는 눈

빛이 있습니다.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려는 매서운 눈빛이 있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이 있습니다. 너무나 눈빛이 힘이 없고 나약한 눈빛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눈빛이 있습니다. 눈빛이 깊지 못합니다. 물이 얇듯이 눈빛이 얇습니다. 이런 눈은 충성된 눈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의 눈빛은 고정되어 있으며 깊습니다. 안정된 눈빛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라도 변함이 없을 것 같은 눈빛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에 빈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빈궁의 눈빛이 있고 부유함의 눈빛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부유함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빈궁함의 눈빛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얼굴의 화색이 변하듯이 눈빛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악한 눈은 가지지 마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사악한 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악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오직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정작 그들이 피하려 하는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합니다.

“[잠 28:22]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욕심이 눈을 가려 미래의 파멸을 예측하지 못하게 함을 경고합니다. 그들의 헛된 탐욕은 결국 그들의 삶에 궁핍을 불러오며, 재물을 얻기 위한 급한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선한 눈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눈은 만족함을 알지만, 악한 눈은 끊임없는 갈망 속에서 영혼의 빈궁을 자초하게 됩니다.

[잠 28:23]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입에 발린 말로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아침꾼보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는 경책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더욱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꾸짖는 말보다는 듣기에 좋은 아침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아침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의 곁에는 결국 아침꾼만 모여들 것입니다.

아침꾼만 모이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꾸짖어주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침의 말은 순간적으로 귀를 즐겁게 하지만,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반면, 경책하는 말은 마치 메스와 같아 아픈 곳을 도려내지만, 결국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됩니다.

“[잠 28:23]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덮어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엄중히 꾸짖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꾸짖음 속에 아버지의 참된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침의 관계는 거짓된 평화 속에서 결국 파멸에 이르지만, 진실된 경책의 관계는 영원한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아픈 말을 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의 존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잠 28:24]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잠 28:25]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자는 부모의 재산까지도 욕심을 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킵니

다. 왜냐하면 탐심은 평안을 깨고 자기 유익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잠 28:24]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가정과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본성을 닮았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주변의 평화를 깨고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탐심은 끝없는 갈망을 낳아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불안과 불화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릅니다.

“[잠 28:25]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풍족함은 단순히 재물의 많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영혼의 만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탐심은 다툼과 멸망을 낳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충성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진정한 부요함을 가져다줍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탐심의 다툼입니까, 아니면 의뢰의 풍족함입니까?

[잠 28:26]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
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시기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습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고, 스스로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온갖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미련한 자의 뒤를 따라다니는 삶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종종 스스로를 기만하며,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행위 자체가 가장 큰 미련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미련한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신의 한계와 죄악된 본성을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곧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잠 28:27]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곧 하나님을 돕는 것과 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자녀들을 지켜보시며, 특

별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먼저 살피십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이 연약한 자녀에게 더 가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가난한 자에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들을 직접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영적 순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제 대상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받을 필요가 있다면, 결코 가난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못본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본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대하는 것이 곧 주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우리가 가난한 자를 못본체 하는 순간, 우리는 저주를 자초하게 됩니다. 잠언은 ”못본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고 경고합니다. 이 저주는 단순히 우연히 닥치는 불행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외면한 행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공핍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움켜쥐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풍성히 흘려보내는 구제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까?

[잠 28:28]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만일 당신에게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악인임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당신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당신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의인이라면 분명 사람이 당신을 따랐을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악인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인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인이 일어나 권세를 잡으면 사람이 두려워 숨는다고 경고합니다. 악인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정의와 평안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당신 주변에 사람이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는 사람을 잃습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잃었다면, 당신의 삶에 악함이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악인의 패망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영적인 기회가 됩니다. 악한 권세와 영향력이 사라질 때, 잠재되어 있던 의인들이 용기를 얻고 일어나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의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진정한 의인이 되십시오. 의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언서 29 장 =====

[잠 29: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환난과 역경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고쳐 나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망을 당하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출 32: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패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목이 곧은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받은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이 곧으면 곧을수록 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며 더 큰 역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혹시 목이 곧아 있는지 깊이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역경 가운데 있다면, 아마도 그 뿌리에는 목이 곧은 완악함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당신을 위한 절박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절대로 목이 곧아서 그것 때문에 패망 당하지 말라고 일부러 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절대로 목이 곧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고 훈계를 받는 자의 마땅한 도리

입니다.

[잠 29: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당신이 의인이라면 주변 사람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악인이라면 주변 사람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쩌면 악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중이 악할 경우엔 의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악한 법은 거의 드뭅니다. 악한 지도자는 있을지언정 악한 대중은 없습니다.

잠언 29장 2절은 통치와 리더십의 본질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잠 29: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여기

서 '의인'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따르는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의로운 리더십은 공평과 정의를 세우고, 공동체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반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은 탄식합니다. 악한 지도자는 사리사욕을 채우고 압제와 불의를 일삼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 아래서는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당신이 지금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또는 교회에서 당신의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당신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기적인 행동과 태도로 인해 사람들이 은밀히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악한 지도자는 있을지언정 악한 대중은 없다는 말처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당신이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진정 의인이라면, 당신이 가진 영향력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잠 29:3]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지혜있는 자는 아버를 즐겁게 합니다. 그가 지혜롭기 때문에 아버가 즐거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리석은 자라면 당신의 아버는 즐겁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버가 괴로운 것입니다. 당신이 지혜롭다면 당신 주변 사람은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혜롭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창기를 사귀는 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창기를 사귀는 자의 행동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창기와 사귀는 자와 같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이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 창기와 사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기를 사귀는 행위는 단지 육체적인 죄악을 넘어서, 재물을 없이 하는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소중한 자원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재물과 시간을 헛된 곳에 낭비하여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이는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영혼의 재물을 지켜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 29:4]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공의로운 사람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자를 가리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공의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 자신은 공의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공의롭게 살지 못하면 거룩한 나라로 설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나라입니다. 각 사람이 나라가 되기 때문에 나라들이 모인 가족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든든한 나라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공의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나라입니다. 가정이 모여 교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의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몸 되신 주님께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의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몸 되신 주님께서 떠나시는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공의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공의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공의가 없는 곳은 주님께서 떠나십니다.

공의는 히브리어 <미쉬파트>입니다. 이는 '법도'를 의미합니다. '법도'는 '규례'라고도 말합니다. 법도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행해져야 하는 도덕적인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러

한 사회법은 한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굳건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법은 곧 질서입니다. 질서를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할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법이 지켜져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질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부모도 따라야 하며, 자녀도 따라야 합니다.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야말로 더욱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부터 먼저 교회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뇌물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의와 탐심을 몰아내고, 공의의 법도를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 29:5]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잠 29:6]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항상 우리의 발 앞에 그물을 치기 때문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도 그물을 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물에 넘어지게 하는 악인입니다. 당신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당신에게 아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악인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분별을 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영분별은 상대방의 겉모습과 행동을 보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분별은 눈을 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감을 때 영분별이 더 잘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을 바라볼 때에 제대로 된 영분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세마포를 바라보는 것도 영분별에 도움이 됩니다. 세마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보여지는 세마포는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여쭙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분별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증거입니다.

세마포를 볼 수 없거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엔,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상당히 좋은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분별은 상대방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마 7:20]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구체적인 열매의 관찰:

-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 보십시오.
- 그 사람의 말투를 살펴 보십시오.
-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살펴 보십시오.
-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잘 듣는지 살펴 보십시오.

- 혹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 혹 그 사람이 뒷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 혹 그 사람이 뒷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혹 그 사람이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 그 사람은 정직합니까?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는 않습니까?
- 다른 사람 몰래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빨간불에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 결눈질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찌려 보지는 않습니까?
- 일을 하기 싫어서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돈을 내기 싫어서 화장실에 가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열매는 많습니다.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자기 영혼에 올무를 만들어 그를 멸망케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하심 속에서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아침꾼이

친 그물에 걸리지 않고, 의인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잠 29:7]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

당신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린다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릴 줄 모른다면 당신은 악인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은 때로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는 당신을 향해 "바보야!"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보고 의인이라면 당신은 의인이고, 당신보고 악인이라고 하면 당신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가난한 사람에게 어찌 대하는가입니다.

만일 당신이 의인이 되고 싶다면, 주변의 가난한 사람을 살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살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양식이 없다면 양식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회비가 없어서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 대신해서 회비를 드리십시오. 그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면 짝을 찾아 주십시오. 짝이 있는 당신은 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 그렇게 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봉변을 당할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염려는 당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자신의 안전보다 이웃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줄 지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영적 통찰입니다. 악인은 자기중심적인 탐

욕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공감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사랑을 통해 배웁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 가난한 이웃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참된 의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 29:8]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 29:9]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모만한 자는 '거만하고 냉소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가정에 이

런 사람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혹 당신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혹 당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다툼이 일어날 때 노를 그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들은 분노를 잠재우고 평화를 회복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결코 미련한 자와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9절은 미련한 자와의 다툼의 허무함을 경고합니다.

“[잠 29:9]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당신이 그 다툼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다툼은 심이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분노하든(노하든지), 비웃든(웃든지), 미련한 자는 그 자극에 계속 반응하여 싸움을 끝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법정 싸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미련한 자와 다투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와의 다툼은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지혜는 미련한 자와 관계하지 않는 단호한 결단에 있습니다.

[잠 29:10]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거나 때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피가 흐릅니다. 사람을 때릴 때에도 피가 흐

룹니다. 가인은 아벨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가 살인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벨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피 흘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다면 당신은 악인입니다. 비록 당신이 몽둥이로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을지라도, 당신 때문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어떤 사람은 피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말 때문에 피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당신의 행동 때문에 피 눈물을 흘립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해치려 찾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를 지키실 것입니다. 저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가 그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피 흘리게 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피 흘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언행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이든 행동이든,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 피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 29:11]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잠 29:12]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억제하는지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노'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는 '영'(Spirit)을 뜻하며, 때때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분노' 등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을 모두 말

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간직하느니라” 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생각을 지키느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영'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놀릴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고귀하며 거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거룩한 예배당에서 함부로 뛰어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경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룩하고 고귀한 영적 체험입니다. 이것은 보물단지를 다루듯이 소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에게나 예언을 해 줍니다. 너무나 쉽게 예언을 해 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

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국밥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라 탈 수 있는 버스도 아닙니다. 천국행 기차가 쉽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영으로 가는 길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영적인 경험과 분별을 억제하고 지키며, 그 가치를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잠 29:12]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이 구절은 지도자나 권위 있는 자의 거짓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경고합니다. 관원, 즉 지도자가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를 따르는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정직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 전체의 도덕적 기준이 되며, 그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지도자가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불의를 행할 때, 하인들(혹은 따르는 이들)은 그것을 모범으로 삼거나 정당화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거

짓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하인들은 "우리도 거짓으로 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과 행위는 곧 지도자의 타락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킵니다.

따라서 교회나 가정, 사회에서 지도자의 정직성은 생명과 같습니다. 공의롭고 진실된 리더만이 조직 구성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을 말할 때, 그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잠 29:13]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되심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

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욕심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을 공급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빛을 공급하시고, 포악한 자에게도 빛을 공급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시지 않으며, 포악한 자에게 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빛은 곧 생명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욕심쟁이라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3절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

여 살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이 혼재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생명의 빛, 곧 존재와 기회의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사유화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공평하심을 깨닫고 욕심쟁이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 29:14]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위가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신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파트>입니다. 이 단어는 '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신원하다는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가난한 자에게 성실함과 공의로써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한 태도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 없이 창조하셨기에, 약한 자에게 행하는 우리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만일 당신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대한다면, 당신의 삶에 복이 넘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왕은 단순히 통치자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공의와 성실로 다스려질 때,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영적 위치(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잠 29: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당신은 지금 채찍과 꾸지람을 즐겨 받으니까? 만일 당신이 채찍과 꾸지람을 즐겨 받는 사람이라면, 이미 당신은 지혜자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즐겨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채찍과 꾸지람을 즐겨 받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의 말을 꾸지람보다 더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꾸지람하는 사람을 곁에 둡니다. 이는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꾸지람을 줄 때에 당신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꾸지람이 꿀송이처럼 달콤합니까? 아니면 칭찬이 꾸지람보다 훨씬 달콤합니까?

잠언은 훈계(채찍과 꾸지람)를 통해 지혜가 얻어짐을 강조하며, 반대로 자녀를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임의로 하게 버려두다'는 것은 방치와 무관심을 의미하며, 이는 자녀의 영혼과 인격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학대입니다. 자녀를 방치한 결과는 결국 자녀의 파멸뿐 아니라, 부모에게 수치와 욕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혜자이길 원한다면,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당신에게 꾸지람하는 사람을 즐겨 받으십시오. 그들의 쓴소리 속에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잠 29:16]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

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잠 29:17]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
라

내 자식이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것도 참을 수 없는 아픔이지만, 내
자식이 악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에게 매우 큰 고
통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도 악한 자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악한 자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가 필요합니
다. 부모는 자녀를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
이 악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하다’라는 말은 <야사르>입니다. 이 말은 ‘
징벌하다’라는 의미 외에 ‘교훈하다’, ‘훈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징계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
로 다스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하겠지만, 징계의 보다 근
본적인 내용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로 하여
금 의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가 필요
하면 매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녀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과 평안을 선사합니다. 이는 자녀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녀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들이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의 삶에도 기쁨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쁨과 평안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고 있다면 부모도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 29:17]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성경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고 경고합니다. 악인의 증가는 세상의 타락을 가속화시

키지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의인이 악인의 몰락을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실현됨을 지혜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속에서 신앙적 확신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악인의 망함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욱 확고하게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악의 길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우리 마음에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주는 길입니다.

[잠 29:18]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존>입니다. 이 말은 ‘환상’과 ‘이상’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상으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상과 이상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더 깊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 보다 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시, 즉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묵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입니다. 이 말은 '풀어 놓다', '내버려두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짐승을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을 아무렇게 내버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

법은 곧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로 세상을 세우셨습니다. 묵시는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 줍니다. 묵시가 없는 사람은 율법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율법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율법도 존중합니다. 우리들 중 질서가 없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묵시(비전)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의 삶에 영적인 구심점을 제공하고, 율법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매일의 행동 규범과 질서를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약속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잠 29:19]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당신이 말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고 경고합니다. 좋은 말로만 할 때 고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에게 노예의 근성, 즉 복종이 아닌 강제에 길들여진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종이 고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즉, 몰라서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지시에 순종하거나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미련함이 아닙니다. 알고도 청종치 않는 것은 영적인 완악함이며,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교만의 죄입니다. 종의 근성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의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지금 말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치지 않는 사람입니까?

당신 스스로 종의 근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 29:20]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경고합니다. 조급하게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이며,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다가는 관계, 명예, 신뢰 등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조급하다’는 것은 성급함과 충동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음이 평안하

지 못하고, 영적으로 안정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숙고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를 다스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약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말을 아끼고 듣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약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언어에 조급한 미련한 길에서 돌이켜, 신중함과 절제로 혀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 29:21]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체 하리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 그가 자식인 체 할 것입니다. 종이 자식인 체 하는 것은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종이 상전 행세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전보다 더 높은 체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종 관계가 바로 서있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인은 아무리 높을지라도 상전보다 더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높을지라도 주인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결코 부모 위에 올라서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종의 관계, 곧 질서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주종 관계를 깨뜨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환 시바가 므비보셋을 얹보고서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행위는 사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바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취하는 자도 사악하지만,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 또한 사악한 사람입니다.

“[삼하 16:1]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이백과 건포도 일백 송이와 여름 실과 일백과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삼하 16:2]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하 16:3] 왕이 가로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삼하 16:4]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의 말은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므비보셋은 왕위 찬탈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바는 마치 므비보셋이 왕위 찬탈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고함으로써 므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피난 중에 경황이 없어서 흥분한 상태에서 시바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죄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는 주종 관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남편-아내 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를 넘보거나, 하인이 상전 행세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파멸을 자초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지킬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잠 29:22]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하는 사람일수록 다툼이 많습니다. 분을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범죄함이 많습니다. 누군가와 다툼다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를 자주 발하게 될 때, 그것이 분노로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마치 잔잔한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처럼, 사사건건 노를 발하는 사람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참지 못하여서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것도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당

하는 것도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노하는 자와 분하여 하는 자의 비참한 결과를 명확히 경고합니다. 그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결국 범죄함이 많아지는 길로 나아갑니다. 분노는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마비시켜, 사소한 감정에서 시작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확장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파괴적인 분노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힘입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여 맺는 인생의 쓴 열매를 피하십시오. 오직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분노를 지혜로 억제하는 자만이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 29: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사람은 결국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영예를 얻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이려 애를 씁니다. 이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탄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들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높은 데 올려 놓습니다.

마귀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자꾸만 높은 곳만 바라봅니다.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이 제일 능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단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뽐내며 자신의 잘남을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가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가장 낮은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짐을 당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듯이

그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서 이 땅에 떨어졌듯이, 교만한 자도 스스로 거할 곳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예는 히브리어 <카보드>입니다. 이 말은 '부'와 '영광'을 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낮아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예를 얻습니다. 겸손은 낮아짐의 길 이 아니라, 존귀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길잡이입니다.

[잠 29:24]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겉모양은 모두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악한 사람은 스스로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은 도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치 못하기 때문에 진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대로 직고(직접 고백)하라는 요청을 받아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미 영혼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의 충언을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충언을 듣지 못합니다.

혹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의 충언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은 도적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신이 지은 죄와 멸망의 길
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보호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을 미
워하는 가장 잔인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충언에 귀 기
울여 진실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
니다.

[잠 29: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
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 29:26]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
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
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올무에 걸리고 맙
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사람을 온전히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으며, 돕고 싶어도 결국 유한

한 능력에 부딪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것을 넘어,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의 시선에 굴복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존과 두려움은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올무는 우리의 자유와 영혼을 움아매는 덫이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파멸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언뜻 보면, 눈앞의 사람이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6절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

는 자가 많으나”라고 세상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언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행위조차도 그 성취와 최종적인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지혜를 깨닫고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안전하리라는 진리를 붙들고 사십시오.

[잠 29:27]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습니다. 서로의 본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와 잘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서로의 악한 본성이 맞기 때문에 오히려 악인들은 서로 도와주고 보호합니다. 악인들은 함께 하는 악인을 미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함께 하지 않는 의인을 미워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을 사람은 악인이어야 마땅하지만, 악인끼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함께 모여 의인을 미워합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움과 끌림은 그 사람의 영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마치 물이 기름과 어울리지 못하듯이, 의인과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만일 대중이 악인이라면, 의인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대중이 악인이 된다면 그 사회는 악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그 나라는 악한 나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질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도 악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르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우리는 관계와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의인과 정직한 자가 되는 길은 세상의 미움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서 30 장 =====

[잠 30:1]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잠 30: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잠 30: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잠 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잠언서 30장의 저자인 아굴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그가 솔로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잠언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아굴은 자신 스스로를 짐승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의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겸손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역시 아굴의 고백 앞에서 스스로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총명과 지혜가 부족하며,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총명하다 여기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한 아굴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굴의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역에 대해 질문하는 데로 나아갑니다.

"[잠 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

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은 인간의 모든 지식과 총명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이처럼 아굴은 세상의 지혜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아굴처럼 "나는 짐승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 30: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잠 30:6]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

우니라

아굴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잠언 30장 5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절대적인 진리 자체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뜻을 첨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의지를 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해석이나 사상으로 더러워질 때, 결국 인간은 진리에서 멀어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신이 타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잠 30:6]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은 타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사후 세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깨끗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지금 당신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 당신은 성경 말씀 중 어느 부분에 당신의 불순한 생각을

집어넣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더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길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책망을 자초하는 무서운 죄악임을 명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흔들리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잠 30:7]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잠 30:8]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 30:9] 혹 내가 배불라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나는 허탄함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너무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부유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굴이 구하였던 이 두 가지 기도는 실로 우리에게

게 충격적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굴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수많은 것을 구하면서도, 정작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다른 세속적인 것들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다른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부유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아굴처럼 부유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유케 되길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굴은 달랐습니다.

아굴은 너무나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부유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잠 30: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참으로 지혜자였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지혜자는 미련한자와 다릅니다. 지혜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다릅니다. 지혜자는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마땅히 우리도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아굴과 같은 영적 균형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혼의 순전함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잠 30:10]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휘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윗사람에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전에게 아랫사람의

흉을 봅니다. "그런 사람을 뭐하러 일을 시키느냐?"라는 말을 종종합니다. "저 사람 내 보니 앞으로 당신에게 피해를 가할 사람 같아!"라는 충고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충고나 조언은 이간질일 뿐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아랫사람의 흉을 듣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아랫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당신 아랫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아랫사람을 흉 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은 타인을 훼방하는 행위를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며, 그 결과로 훼방한 자가 저주와 죄책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 30:10]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훼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상전에게 고하는 것은, 겉으로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럼 보이지만, 그 동기가 시기심이나 정죄함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인간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남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제어하여 불필요한 험담이나 훼방의 말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훼방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경계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고 쉽게 동조한다면, 당신은 이미 악한 관계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싶다면, 말의 문을 단단히 닫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귀에 험담을 속삭일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죄책의 올무에 걸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과 진실만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잠 30:11] 아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 30:12]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잠 30:13]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잠 30:14]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
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
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굴이 이 잠언서를 쓸 당시에 얼마나 악한 무
리들이 살고 있었는지 이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께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
이 그 당시에 그런 악한 자가 살고 있었습니
다.

또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
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잠
언 30장 12절은 이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
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속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 죄를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내면
의 부패를 감추려는 영적 위선자들입니다.

그리고 눈이 심히 높고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찾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러한 악한 무리들은 그 존재 자체가 사회의 약자들에게 재앙입니다.

“[잠 30:14]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들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다는 무시무시한 비유처럼,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멸시하며 오히려 괴롭히고 삼킵니다. 그들의 언행과 행위는 약자에게 치명적인 폭력이 됩니다.

지혜자의 눈에는 항상 이런 악한 자들이 쉽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자는 타인에게 있

는 악한 모습을 보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있는 악한 모습을 쳐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타인을 정직하게 분별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잠 30:15]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잠 30:16] 곧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말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딸들이 부모에게 자꾸만 '달라 달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철없는 딸들은 부모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의 것을 빼앗는지 그들을 거머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거머리는 피를 빨아 먹습니다. 부모에게 매사에 '달라 달라' 하는 자녀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습니다.

니다.

지혜자는 거머리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라 달라' 구하는 것이 서넛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 30:16] 곧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음부: 음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채워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인간임을 기웁고 있습니다.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인은 끊임없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같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물로 땅을 채운다 할지라도 결코 땅은 물로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적 욕망과 갈증은 채울 수 없습니다.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불은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타올라도 스스로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물을 부어 불을 꺼뜨려야 겨우 안정을 찾을 정도로, 불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이 만족하지 못할 때, 당신 스스로 거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생명력과 영혼의 기쁨을 빨아먹는 거머리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 30: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는 자가 있을까요?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을까요? 혹 당신입니까? 당신은 아비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미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비를 비웃었습니까? 무능하다고 업신여기고, 나쁜 사람이라고 멸시했으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어미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비를 조롱하지 않고 어미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은 오히려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임을 당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은 다른 신체 부위도 있는데 '

눈'을 쫓아 먹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지식, 성격, 태도, 성향, 견해, 열정 및 반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눈은 인간의 내적 생각의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 교만한 눈빛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에게 쫓임을 당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에게 곤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치 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에게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 역시 하찮은 것입니다. 독수리도 아니고 독수리 새끼입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독수리 새끼에게 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이처럼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형벌입니다.

혹 당신은 말도 하찮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눈'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향한 불순종

과 경멸의 마음이 당신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불러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 질서를 세우셨으며, 이 질서를 깨뜨리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 30:18]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잠 30:19] 곧 공중에 날아 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잠 30:20]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할지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겪습니다. 잠언의 저자인 아굴은 자신이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넛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굴이 열거한 첫 세 가지는 자연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 그리고 바다 위를 지나 다니는 배의 자취입니다. 독수리의 자취는 그냥 보면 간단한 것이지만, 독수리 스스로는 어떠한 질서와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땅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로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도 우리는 그 궤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물 위를 다니는 배의 자취도 곧 사라져버려 그 시작과 끝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세 가지 기이한 자취의 공통점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길을 영원히 포착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는 참으로 기적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평생을 동거동락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

다. 남녀의 결합은 그 기원과 깊이에 있어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사람의 만남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음녀가 많습니다. 음녀는 자신이 음녀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0절은 이 음녀의 자취를 마지막 불가사의로 추가합니다.

“[잠 30:20]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후에도 그것이 부적절한 행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고 입을 씻으면 깨끗해지듯이, 죄를 짓고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완악함이야말로 인간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가장 기이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인생을 가리켜 "이거다"라고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리켜 "이거다"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사람의 인생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기이한 일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 30:21]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잠 30:22]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잠 30:23]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때때로 종이 임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미련한 자가 부유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지독하게 흠이 많은 여자가 아주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간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계집 종이 안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진동을 하며 도저히 믿기 어렵습니다. 때때로 화가 납니다. 이는 나보다 더 못난 자가 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다 숨어있는 질서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믿기 어렵고, 내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지혜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세상의 기준을 뒤엎으시는 역전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어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잠 30:24]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잠 30:25]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잠 30:26]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잠 30:27] 임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잠 30:28] 손에 잡힐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주 작은 짐승이지만 지혜로운 것들 넷이 땅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들은 크기나 힘으로 위용을 떨치지 못하지만,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지혜를 완벽하게 실천합니다.

개미: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미리 예비합니다.

사반: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사반은 너구리가 아니라 쥐와 비슷한 크기의 바위너구리를 뜻합니다.)

메뚜기: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며 강력한 질서와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도마뱀: 손에 잡힐만하여도, 담대하게 왕궁에 들어가 거주하는 비범함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처럼 작고 연약한 짐승들보다 더 지혜가 없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까요?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작고 연약하여도, 그들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주신 본능적인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악하여서, 창조주

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짧은 지혜로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미련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질서와 지혜를 거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크고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 30:29]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잠 30:30]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잠 30:31] 사냥개와 수염소와 밧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잠 30:32]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잠 30:33] 대저 젖을 저으면 배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나라

짐승 중에는 위풍당당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 짐승 앞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사자가 있습니다. 사냥개와 수염소도 그러합니다. 사람 중에는 임금이 그러합니다. 임금은 절대로 그 누구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임금은 위풍당당하게 걷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위풍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위풍당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높은 체 할지라도 미련한 자는 결국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위풍당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
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과 악한 일을 꾀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수치를 당하게 할 뿐입니다.

“[잠 30:33] 대저 젖을 저으면 뱀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분노를 격동하는 것은 마치 젖을 저어 엉기게 하
고 코를 비틀어 피를 내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다툼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 다
툼은 우리의 교만과 악한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위풍당당한 삶은 교만이나 허세에서 나오는 것
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
워하지 않는 신뢰와, 자신의 입을 제어하여 불필
요한 다툼과 악을 막는 겸손한 지혜에서 나옵니
다. 우리는 세상의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신 하
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며, 자신의 영혼 앞에서 겸손한 삶
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1 장 =====

[잠 31:1]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 31:2]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잠 31:3]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잠 31:4]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잠 31:5]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급게 할까 두려우니라

[잠 31:6] 독주는 죽게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잠 31:7]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잠 31:8] 너는 병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 31:9]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혹자는 그가 솔로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훈계를 듣는 자녀는 복된 자녀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양육하고, 남편을 훌륭한 남편으로 세웁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에게 몇 가지를 훈계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힘을 써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에게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는 가장 먼저 힘을 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힘을 써야 할 대상은 백성입니다. 물론 여자도 백성 가운데 포함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왕은 여자에게 훨씬 많은 시간을 빼앗깁니다. 결코 여자를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두지 않습

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본인 스스로 여자인 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는 결코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왕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여자에게 힘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자는 남자를 원하지만, 어머니는 자녀를 원합니다.

또 다른 훈계는 술입니다. 왕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전혀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술은 곧 잔치를 뜻합니다. 이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물론 필요한 잔치가 있습니다. 부모의 칠순 잔치는 매우 귀한 잔치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워하라는 어머니의 경고는, 통치자가 공의를 잃는 순간 백성 전체가 재앙에 빠질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또 다른 훈계는 병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왕은 쓸데없는 것에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오직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힘 들고 궁핍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도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위해 힘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지혜로운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잠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잠 31: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
니 산업이 핏절치 아니하겠으며

[잠 31: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
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현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일>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힘’,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단지 힘없고 순종적이며 부드러운 여인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숙한 여인은 남자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력하며, 용감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은 매우 강력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인과 함께 하는 남자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면, 성경은 당신의 가치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을 통해 남편이 복을 받고, 한 가정이 든든하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은 언뜻 여인에 대한 과거의 편견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산업이 핏절치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은 여인이 도망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여, 여인이 남자의 전리품처럼 여겨져 왔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취급되어 왔던 잘못된 관점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며, 남자의 재산도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 31장에 언급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소유물이라기보다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보여집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키워 양육하듯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 남편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의 소유물이 되길 원한다면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편의 품에 안기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 뜻을 펼치며 살지 못한 채 오히려 집안에 갇혀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현숙한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적어도 남편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더 능력을 키우십시오. 당신의 지혜와 능력이 남편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할 때, 비로소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으로 인해 남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현숙함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받아 가정을 파멸이 아닌 영광으로 이끄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잠 31: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잠 31:14]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잠 31: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잠 31:16] 밭을 간파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잠 31:17]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잠 31:18]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잠 31:19]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현숙한 여인은 그 이름처럼 단순한 순종을 넘어

지혜롭고 부지런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창조적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집안 일만 하는 여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이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경제적 주체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것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최대한 좋은 양식을 내다 팔기 위해 상고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양식을 구입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서 밭을 간판하여 사며 그 밭으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 돈을 재투자하여 더 큰 땅인 포도원을 구입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근면성을 지녔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깊도록 일하였습니다. 잠언은 그녀가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한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로운 줄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를 알기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돈만 벌기 위해 열심히 뛰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해 여종들에게 할 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나가서 돈을 벌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 스스로 물레질을 하며 실을 뽑고 베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가족의 옷도 만들었으며, 나아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러한 현숙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인들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더욱 번창하려면 현숙한 여인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번창하려면 현숙한 여인이 필요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둔 가족은 행복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둔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녀로 인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현숙한 여인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현숙한 여인처럼 부지런합니까? 단지 열심히 청소하고 빨래하는 정도를 가지고 스스로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더욱 창조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연약한 여인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변 사람이 더욱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 31:20]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잠 31:21]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당신을 통해 어느 누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을 통해 누가 굶주림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어느 누가 당신의 도움 때문에 추운 겨울을 따뜻
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 31:21]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
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
지 아니하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라는
말은 두껍고 따뜻한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현
숙한 여인이 옷에다가 솜을 가득히 넣어서 만들
어 준 옷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신과 함께 하
는 사람들이 추위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
숙한 여인이라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외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
라면, 당신 때문에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제할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구제는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눈에는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면, 당신 눈에는 가난한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잠 31:20]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현숙한 여인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현숙함이 곧 사랑과 공의, 그리고 이웃을 향한 책임감을 동반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이 가난한 자를 향해 열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현숙함의 열매를 맺고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잠 31:22]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잠 31:23]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

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잠 31: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잠 31: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잠 31: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잠 31:27]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녀는 침실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며, 스스로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 고운 모시 옷과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많이 버는 여인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은 성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여인이며, 남편에게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여성 중에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여인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모두 잘 해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현숙한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해냅니다.

현숙한 여인의 영향력은 가정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으로 하여금 지도급 인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잠 31:23]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급 인사가 될 것입니다. 남편을 지도급 인사로 세울 정도의 여인은 결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돈도 잘 벌면서 가정도 잘 꾸려나가고, 게다가 남편에게도 지극 정성을 다하며 남편을 지도급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여인은 참으로 뛰어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잠 31: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을 웃으며”라는 말은 미래에 대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현숙

한 여인은 품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을 가리켜 "능력과 존귀"가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는 곧 '품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품위가 있다는 것은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이 품위만 갖고 있으면 그 품위는 허풍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능력과 존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빛이 납니다. 당신은 품위가 있습니까? 혹 능력은 없으면서 단지 품위만 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친절합니다.

"[잠 31: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능력이 있고 품위가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지혜로운 여인이 훨씬 품위가 있습니다. 진짜 품위가 있는 여인은 친절합니다. 타인에게 친절하지 않는 여인은 품위가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멍니다.

“[잠 31:27]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녀는 부지런히 일하며, 그 결과로 얻는 능력과 존귀가 그녀를 빛나게 합니다. 당신의 삶이 현숙한 여인의 지혜와 능력을 닮아, 당신의 남편과 가정을 세우는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 31:28]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잠 31: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잠 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 31: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의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어머니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어머니는 자녀를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임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마땅히 자녀는 어머니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도 현숙한 여인을 칭찬합니다. 만일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면 남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칭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잠 31:29]德行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혹 당신은 남편으로부터 이런 칭찬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마도 현숙한 여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당신 스스로 “나는 현숙한 여인인데 남편이 못돼서 그런 겁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마도 당신 남편은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편으로부터 단 한 번도 그런 칭찬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고, 가정을 잘 꾸리며,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잠 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당신이 진정 현숙한 여인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여인은, 남편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주변 사람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최상의 여인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면, 당신 삶에는 복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가정에 복이 가득 찰 것이며, 당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하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을 만난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행함과 그 열매를 인하여 성문(공동체의 판단의 장소)에서 칭찬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레위기

초판발행	2025. 10. 2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